

2009

양양의 6·25 비화

글_이한길

38선
THE 38th PARALLEL

양양문화원



양양의 6·25 비화



발간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6.25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국토는 둘로 갈라져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지 6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민족의 최대비극이었던 6.25동란 6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하여 조국의 수호신으로 장열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오래도록 기리고자합니다.

그동안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으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0년 전 북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 민족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슬픔을 남겨 놓았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산가족의 아픔 등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38선 이북지역으로 대부분 인공치하에서 이념의 갈등을 심하게 겪으면서 6.25를 경험하였고 1.4후퇴와 휴전으로 수복이 되기까지 국군과 인민군이 공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눈물겨운 산역사의 격전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전사(戰史)들이 왜곡되어 가고 있으므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분들의 기억이 상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우려되어 더 노쇠하기 전에 6.25전쟁을 올바르게 증언하여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찾아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수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전쟁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 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과 6.25를 경험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알고 판단함으로서 안보의식이 해이해 질 것이 우려가 되는 후세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전쟁 없는 튼튼한 나라로서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그동안 본 전사를 발간하기 까지 노력하신 강릉원주대학교 이한길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어 그 당시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증언하여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 동 창
양양문화원 원장

발간사

서문

한국전쟁에 관한 필자의 지식은 그리 깊지 않다. 필자 또래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기에 아마도 교과서적인 지식, 그것도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대부분일 것이다. 혹 여기에 한두 가지 이야기 거리를 덧붙인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몇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이번에 양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연 양양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서 처음엔 전쟁의 아픔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당혹감에 휩싸여야만 하였다. 우선 양양군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만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양양군의 대부분은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1945년부터 시작하여 전쟁이 나면서 수복되기 전까지 인공의 정치를 받아야만 하였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수복은 되었지만, 1954년 11월 완전히 민정으로 이양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점령당한 점령지로서 간주되었다. 5년여의 인공생활, 다시 전쟁과 점령지로서의 5년여의 생활, 도합 10여 년의 생활은 이 시대의 양양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양양군의 6개 읍면 중 현남면은 완전히 38선 이남이었고, 현북면이나 서면도 일부는 38선 이남이었다. 그러나 38선 이남이라고 하여도 이들 지역이 충청도나 남부지방처럼 완전히 자유 대한의 땅은 아니었



다. 이들 지역은 접경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였다. 그 삶이란 것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접경지 중의 한두 마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마을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하면서 아예 없어지는 비운도 겪어야만 하였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전쟁 이전부터 돌발 사건들이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필자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전쟁이 휴전된 지 60여 년이 되어가 건만, 그래서 당시의 코흘리개 아이들이 어언 70대가 되었건만, 아직도 그들은 전쟁의 망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못하였는데, 설령 말을 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어떤 말을 하였을 때, 남한의 어떤 곳에서 혹은 북한의 간첩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실명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이 글 제2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역사의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상당수의 두려움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문헌에 나오는 자료는 실명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각주로서 그 출처를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어려움은 한 마을에 좌익과 우익의 후손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자료수집이 잘못하면 마을의 분열을 조장하지나 않나 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이런 일은 실지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마을이었다.

할머니들 여러 명이 앉아 놓고 있는 마을회관이었다. 무심코 6.25 (한국전쟁)에 대한 사연이 있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한 할머니가 말문을 열기 시작하자, 그와 비슷한 사연을 지닌 몇몇 할머니들이 그와 비슷한 사연들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 몇 분이 빨갱이들 사상이라고 공박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재빨리 수습을 한다고는 하고 마을회관을 나왔지만, 영 꺼림칙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한국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당혹감을 맛보아야 했다. 1945~1954년 간의 자료 자체가 (반공학생 사건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이후는 전쟁의 와중이니까 그렇다고 하여도, 1945~1950년간의 기록마저도 거의 없었거나 아예 기록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그때 양양에 고급중학교가 있었다.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다. 그러나 양양의 그 기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 실체를 찾을 길이 만무했다.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북한 공산집단의 사회주의 이념은 기피한다 하더라도, 양양사람들의 삶과 관련 있는 제반요소들은 기록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기피했던 점들은 양양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기피하여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졌다. 스스로 조심스러워했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북지역이라는 멍에를 여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의 전반부는 문헌에 전하고 있는 양양지역과 관련있는 6.25전



쟁자료들이다. 양양이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존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거의 가감없이 원자료를 발췌하여 전재했다.

이 글의 후반부는 6개 읍면 약 140여 개 마을(없어지거나 합해진 마을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면서 각 마을마다 발생했던 사건들 위주로 꾸몄다. 그러나 모든 마을에서 모두 사건이 발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사건 대신 감동 받을 만한 개인의 사연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당대의 민속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들로 꾸며보았다. 이 책은 인공시대를 살았던 양양사람들의 전쟁관련 자료집임과 더불어 그 시대 민속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민속지(民俗誌)이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자료집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物心) 양면으로 도움을 준 양양문화원의 양동창 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광영 국장님, 최선미 간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아직도 전쟁의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양양의 사람들에게도 어서 빨리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이 한 길
강원도민속학회 편집이사

일러두기

1. 한국전쟁이 옳은 말이나, 여러 문헌에 6·25라 전하는 것과 또 답사 자료 중 6·25로 나오는 것은 기존문헌 및 발화자의 의중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의 개입이 있는 구절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표기하였다.
2. 가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명을 밝혔다.
3. 문헌자료는 여러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양양군 관련자료를 취합하였다. 가능한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제하였다.
4. 답사자료는 양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미처 자료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 실린 답사자료는 전수조사한 자료의 절반정도임을 밝힌다.

제1 부. 문헌에 전하는 양양관현 기록

1) 194518년~1954년간의 양양군 관련 전쟁기록 16

- * 간략한 연표(1945년~1954년) / 18
- * 38선 통행금지와 군사경계선화 / 21
- * 38표지석의 문제 / 22
- * 사범국장 최용달 / 22
- * 전쟁 전 북한의 토지개혁 / 28
- * 북침설의 내막 / 28
- * 1948년의 주한외국군 철수문제 / 29
- * 서북청년회 / 30
- * 인민유격대의 남파와 빨치산 활동 / 32
- * 호국군 / 34
- * 남북교역장 / 34
- * 명태사건 / 35
- * 김석원 장군 / 36
- * 1949년대 38선 충돌사건 / 38
- * 제1차 기사문리 고산봉 전투 / 40
- * 호림부대 / 42
- * 호림부대의 대북침투 / 47
- * 북파 호림유격대 / 50
- * 양양돌입사건(제2차 고산봉 전투) / 53
- * 북한의 창군과정 / 54
- * 남한의 창군과정 / 55

- *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 / 59
- * 국민방위군1 / 63
- * 국민방위군2 / 64
- * 6.25 발발 직전 남한의 군 작전 상황 / 66
- * 6.25 직전 북한군 상황 / 67
- * 6.25 때 동해연안 조선인민군 작전 / 68
- * 의용군 / 70
- * 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 / 72
- * 대한청년단의 무장 시도 / 74
- * 수색대대 / 75
- * 38선 돌파에 대한 정부의 입장 / 75
- * 국군의 38선 돌파결정(1950년 10월 1일) / 78
- * 양양-간성 진격전(1950년 10월) / 81
- * 무지개 부대 동해안 파견대 / 85
- * 양양-서림지구 전투(1950년 12월) / 86
- * 대관령 확보 : 51년 1월의 상황 / 96
- * 양양 진격작전(1951년 3월) / 97
- * 중공군의 4월 공세(1951년 4월) / 99
- * 중공군의 5월 공세(1951년 5월) / 99
- *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 / 100
- * 1951년 6월 이후의 한국전쟁 / 102
- * 반공포로 석방사건 / 102
- * 국군의 날 제정과 양양군의 관련성 / 105

2) 양양군 지역 내 문헌에 전하는 반공사건들 106

- * 서북청년단 / 107
- * 민일당 사건 / 108
- * 반공의거 사건 / 109
- * 양양 건건장 방화사건 / 109
- * 학생의거사건 / 110
- * 김일성 초상 소각사건 / 111
- * 비밀문서 발견사건 / 111

- * 호림유격대 제5대대, 제6대대 사건 / 112
- * 반공유격대 및 특공대의 활동과 전과 / 116
- * 도리 민주당 사건 / 117
- * 장리 지서원 납치사건 / 119
- * 김창수, 이선영의 죽음 / 120
- * 이근우의 죽음 / 121
- * 김남형·김학래의 죽음 / 122
- * 영덕리 공비토벌 개항 / 123
- * 태백산지구 남침공비소탕 / 123
- * 행정수복 / 124
- * 반공투사 이야기 / 126
- * 현북중학교 폭격사건 / 127
- * 다시 빼앗긴 성당 / 130

제2부. 답사자료

- 1) 38선 이남의 양양..... 136
- * 100일 정치와 자아비판 / 136
 - * 호국군(護國軍) 현남중대 / 138
 - * 죽으면 죽었지 못 가 / 140
 - * 소 한 마리의 기쁨 / 142
 - * 수색대의 횡포 / 143
 - * 아이마저 죽었건만 / 144
 - * 군인을 숨겨주었더니... / 146
 - * 총알을 막아주는 숨이불 / 149
 - * 비행기가 떠나 좋은데 오늘은 비행기가 왜 안 뜨지 / 150
 - * 도민증 때문에 건진 목숨 / 150
 - * 상월천리에 불 지른 사람은? / 151

- * 전봇대를 자른 사연 / 152
- * 의좋은 형제 / 153
- * 두 번 죽은 고호헌 / 153
- * 술로 푸는 피명 / 154
- * 남로당원 이대학 간첩사건 / 155
- * 준 대로 받는다 / 156
- * 재산이 될 소와 재산이 되지 못할 소 / 156
- * 의용군에서 도망치는 방법 / 158
- * 이북으로 가는 피난 / 159
- * 가재선 / 160
- * 자기 집을 태우다 / 161
- * 피난은 바다로 / 162
- * 술쌀과 밥쌀 / 162
- * 명태 덕장의 덕나무 / 164
- * 피난할 겸 모를 심자 / 165
- * 5중대 탈보 중대장 / 166
- * 안질 때문에 / 167
- * 칼에 31곳 찢린 사나이 / 168
- * 우익이 여덟 집 반 / 169
- * 의용군 탈출기 / 170
- * 인민위원회 대회 / 177
- * 포매리에 좌익이 많았던 이유 / 178
- * 모듬 / 178
- * 농촌과 어촌은 1촌 / 179
- * 면옥치리에서 21명이 동사(凍死)한 내막 / 182
- * 뱀에 물리면 / 186
- * 학상동무, 엄마동무, 밥 먹으래 / 187
- * 감자밭의 주인은 누구? / 188
- * 공 차는 켈로 한림부대 / 189

2) 38선 이북의 양양..... 190

- * 영혈사의 지불 / 191
- * 동호리 앞바다에 좌초된 함선 / 192
- * 윤석진 월남사건의 진실 / 193
- * 1950년대 전후 현북면의 교육기관 / 197
- * 설악대 / 197
- * 1945년 : 징병, 해방 그리고 / 201
- * 조선해방기념비 / 203
- * 주문진의 서북청년단 / 204
- * 호림부대의 훈련 / 205
- * 호림부대의 출동과 활약 / 206
- * 호림부대의 이북 탈출기 / 209
- * 금풍리 돌발사건 / 210
- * 625 며칠 전 : 우차(牛車) 동원 / 211
- *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 212
- * 인공 때의 축구선수 / 213
- * 먹판을 아십니까? / 214
- * 아! 어머니 / 215
- * 연광정의 팔선녀 / 217
- * 1949 수리 동사 습격사건 / 218
- * 영덕리 벼 베어간 사건 / 219
- * 신서면 김남원 면장 선정비 / 219
- * 징(徵)자 달은 군속 / 221
- * 말라리아 때문에 / 222
- * 북암리 마을이 없어진 사연 / 222
- * 기리는 피난골 / 224
- * 벌꿀이 튀기에 / 225
- * 토박이는 안 데려가고 / 227
- * 소를 잡다 / 228
- * 감 때문에 생이별을 하다 / 229
- * 동무 반갑소 / 231
- * 당목과 불 멀미 / 231
- * 손자를 살린 할아버지의 강단 / 232

- * 말뚝을 걸러서 먹다 / 233
- * 국군이 남자들은 다 쏘 죽인대 / 234
- * 사천리가 불에 타지 않은 이유 / 235
- * 왜 살려주었을까 / 236
- * 고급중 스트라이크 사건 / 238
- * 졸업생 없는 고급중학교 / 238
- * 강현중 스트라이크 사건 / 240
- * 양양의 학도호국단 / 241
- * 양양보통학교 데모 사건 / 242
- * 삼촌과 조카 / 242
- * 쿠폰 뺏기 / 242
- * 원수가 된 사돈 / 243
- * 배로 월남을 하는 방법 / 244
- * 소련군과 명태 / 245
- * 소련군과 여학생 / 245
- * 밥에 취하다니 / 246
- * 함포 사격을 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 247
- * 금풍리·적은리의 인민재판 / 248
- * 강선리 건국미 사건 / 250
- * 낙산사의 종소리 / 250
- * 낙산사 군사동원부 / 252
- * 위장한 국군 / 252
- * 강제노동 / 253
- * 낙산은 사단 창설지 / 253
- * 윌리의 탱크부대 / 256

[참고문헌]

[후기]



제1부



문헌에 전하는 양양관련 기록



新西面長金南元善政碑

在政七年 民戶安堵

夙夜殫誠 終始一德



제1부

문헌에 전하는 양양관련 기록

문헌에 전하는 양양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와중에 일부 문헌의 자료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찾아내었다. 이런 것들을 필자는 밝힐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 자료들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그 기록을 아래에 게재하여 둔다. 실상 필자가 아래의 여러 항목들을 필자 나름대로 소화하여 정리하지 않고 원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정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 양양군에서 발간한 문헌과 시중의 여러 학자들이 발간한 문헌과는 사건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채었다. 시중의 학자들이 양양을 언급하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였다면, 양양의 문헌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사건 자체를 상세하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 자료를 섞어 하나의 항목으로 소개하기에는 두 종류 자료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문헌자료를 소개하는 항목을 두 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기로 했다.

1) 1945년-1954년간의 양양군 관련 전쟁기록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양양군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북이 되었다. 38선이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 이로부터 많은 사건들이 빈번했다. 민간인들의 월경사건부터 시작하여 1948년 남북에 민간정부가 수립된 다음부터는 군경들 간의 총격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이런 총격전은 1949년에 특히 심했다. 이런 점에서 38선은 북위 몇 도(°)라는 지리적인 표시 이상의 의미를 한국에선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양양군의 경우 38선이 지나는 곳이기에 그 강도는 더욱 심했다.

이 항목에서는 군사운용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의 증강, 그리고 충돌과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위주로 문헌에서 찾아낸 자료들로 꾸며보았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양양군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거나 혹은 양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수색대에 관한 여러 정보들은 제보자들로부터 술하게 들었다. 그런데 수색대대와 관련한 지문을 찾을 수 있었다. 정황상, 이 수색대대가 양양의 주민들이 술하게 언급했던 그 수색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호국군은 38선 이남의 양양에서 관련자를 몇 분 찾은 적이 있다. 호국군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향토예비군이다. 이 호국군에 관한 정보도 주민들로부터 획득한 것은 거의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문헌 속에서나마 일부 실체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호림부대와 관련한 기록은 여타 자료와 비교하여 사실상 꽤 많은 편이지만, 그러나 그 자세한 기록은 잘 알 수 없었다. 필자는 과거에 호림부대에 근무했던 역전의 용사 한 분(1924년생)을 실제 만날 수 있었다. 이분 말로는 당시 제5대대의 생존자는 이제 나 혼자 뿐일 것이

라 했다. 그렇지만 고통으로 인한 기억력의 감퇴가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보를 찾아내기는 힘들게 했다. 그래서 호림부대에 관한 것도 기존의 문헌자료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38선 이북의 양양에서 필자는 이북의 양양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몇 번 던져보았다. 그랬더니 모두들 최용달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최용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어 갔지만, 주민들로부터는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문헌자료에서 최용달에 관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했다. 이북에서 유명했었던 인물을 왜 기록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최용달은 1945년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양군의 역사를 재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도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만들어내었던 비극적 인물일 따름이었다.

최용달이 비극적 인물의 한 전형이라면 김석원 장군은 희극적 인물의 전형처럼 다가왔다. 실제 김석원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양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석원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차라리 역사가 아니라 설화문학에 가까웠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루머의 일종이었겠지만, 그 내용에 스토리가 있으니 문학적 의장을 갖추어 입었다 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김석원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 사람의 고뇌라기보다는 희극적 웃음이 배어 나옴을 어찌할 수 없었다.

여러 항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필자 나름대로 문헌을 재구할까 아니면 문헌 그대로의 자료를 인용해줄까 하는 고민에 봉착하였다. 결론은 문헌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글은 발췌·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각주에 소개했으므로 더 자세한 사안을 알

고자 하는 이는 원문을 보기 바란다.

* 남·북한 연표(1945년-1954년)¹⁾

〈남한의 연표〉

- 45.9.7 □□ 맥아더 : 남한 군정 실시 발표
- 45.9.8 □□ 미군 인천 상륙. 서울 입성
- 45.9.23 □□ 아놀드 군정장관 對정당 중립 천명
- 45.10.24 □□ 국제연합 탄생
- 46.1.15 □□ 국군 국방경비대 창설(제1연대 창설)
- 46.3.20 □□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5.8 결렬
- 47.5.21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10.21 결렬
- 48.4.3 □□ 제주 43사건
- 48.5.10 □□ 남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
- 48.5.15 □□ 통위부(오늘날의 국방부) 항공부대 창설
- 48.5.31 □□ 제헌국회 개원 (이승만 초대 의장)
- 48.7.17 □□ 헌법 및 정부조직법 : 법률 제1호 공포
- 48.8.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 48.8.16 □□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 국군 개명
- 48.10.19 □□ 여순반란사건
- 48.11.2 □□ 대구반란사건
- 49.5.5 □□ 국군 8연대 2개 대대(강태무·표무원) 월북
- 49.6.29 □□ 김구 암살. 호림부대 38선 돌파

1) 국방군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전쟁(상)』, 『한국전쟁(중)』, 『한국전쟁(하)』. 각권 부록의 연표를 참조하여 연표를 작성했고 다음 책도 참조했다. 최종태 편, 『한국전쟁일지』, 군사문제연구소, 1991.

- 49.6.29 □□ 주한미군 철수 완료
- 49.10.1 □□ 국군 육해공군으로 정립
- 50.1.12 □□ 에치슨 태평양 방위선 관련 연설
- 50.1.26 □□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 50.3.15 □□ 건국기(T6) 10대 도입
- 50.4.27 □□ 비상계엄 돌입
- 50.5.30 □□ 국회의원 선거
- 50.6.23 □□ 비상계엄 해제
- 50.6.27 □□ 정부 대전으로 천도
- 50.6.28 □□ 유엔 안보리 한국군사지원 결의안 채택 / 서울 실험 / 한강교 폭파
- 50.6.30 □□ 정일권 소장 : 3군총사령관 및 육군총참모장 임명
- 50.7.15 □□ 국군제2군단 함창에서 창설
- 50.8.20 □□ 국군 10개 사단화 추진. 7사단 재창설
- 50.8.22 □□ 국민병 소집 개시
- 50.9.15 □□ 인천상륙작전
- 50.9.27 □□ 서울 수복
- 50.10.16 □□ 이북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 51.1.5 □□ 국군 원주-삼척 선으로 철수
- 51.3.27 □□ 국군제1군단 양양 점령
- 52.5.29 □□ 간성 점령
- 52.6.1 □□ 유엔사무총장 : 38선에서 휴전성명 발표
- 52.6.8 □□ 이대통령 38선에서 휴전반대성명
- 52.6.23 □□ 이종찬 소장 : 육군 총참모장 취임
- 52.6.30 □□ 리지웨이 : 공산군 총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
- 53.7.27 □□ 휴전
- 54.8 □□ 미군으로부터 양양지역 행정권 이양 받음
- 54.11.15 □□ 양양지역 행정권에 대하여 국군1군단이 대한민국에 민정이양

〈북한의 연표〉

- 45.8.13 □□ 소련군 청진 상륙
- 45.8.14 □□ 소련군 평양 진주
- 45.10.10 □□ 김일성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 45.10.21 □□ 북한보안대(후에 인민군) 창설
- 45.11.3 □□ 평양에서 조선민주당 창당
- 45.11.18 □□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제1서기 취임
- 45.12.27 □□ 모스크바 삼상회의 : 한반도 5개년 신탁통치안
- 46.1.11 □□ 북한 철도보안대 창설
- 46.2.8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 47.2.17 □□ 북조선 인민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 48.2.8 □□ 조선인민군 창설
- 48.9.9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 48.11.14 □□ 제1차 인민유격대 남파
- 48.12.26 □□ 소련군 북한에서 철군 완료. 고문단은 잔류
- 49.3.17 □□ 조소(북조선-소련) 군사/경제/문화협정
- 49.4.28 □□ 김일성/모택동 회담
- 49.10.1 □□ 중국인민공화국(중공) 설립
- 50.3.28 □□ 제10차 인민유격대 남파
- 50.5.13 □□ 김일성/스탈린 회담
- 50.6.12 □□ 인민군 전투부대 38선으로 이동
- 50.6.18 □□ 김일성 : 남침 정찰명령 하달
- 50.6.22 □□ 김일성 : 전투명령 하달
- 50.8.3 □□ 인민군 낙동강 도하. 8월공세
- 50.9.18 □□ 김일성 : 단계적 철수 명령 하달
- 50.9.23 □□ 김일성 : 인민군 총후퇴 명령
- 50.10.25 □□ 장진호 온정리 중공군과 충돌

* 38선 통행금지과 군사경계선화²⁾

진주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은 38선 이북여행은 자유지만 이 지역으로의 여행은 절대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미소 양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38선 통행에 제약을 가했고 소련군은 월경자들에게 약탈과 총격을 서슴지 않았다. 소련은 이미 9월초부터 38선에 대한 엄중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남쪽으로 향하는 짐을 실은 모든 교통수단들을 차단했다. 미군의 경비초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소련군에 의해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는 운행이 중단되었다. 법령으로 38선 통행을 금한다고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미소 양군에 의해 38선 월경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미소 양군에게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 한국인들의 38선 이동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논의는 1946년 초 제1차 미소공동위원 개막에 앞서 열린 미소공위 예비회담(1946.1.16-2.5)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한국인의 자유로운 왕래문제는 이렇게 규정되었다.

남북 양측 한국인의 왕래, 이 항목은 일반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상업 활동으로 하는 여행, 시민들의 과거 거주지로의 귀환, 학생과 개인이 가정의 일이나 급박한 일로 하는 여행도 포함, 모든 사람은 특정 허가과 세부적 규제를 받는다.

그나마 이러한 왕래규정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38선 월경에 필수적인 요건이 북조선 소련군사령부에서 허가한 통행증명서라는 사실이었다. 월남자, 월북자를 막론하고 소련군의 통행허가증이 없으면 월경이 허가되지 않았다.

2)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158-163쪽 요약.



대치리 38표지석

* 38표지석의 문제3)

한편 강릉지역 명지리, 서림리, 대치리4) 등의 마을에는 현재 38도선 표지가 38도선 남쪽 600야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38도선 표지지점과 38도선 사이의 농지의 추수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다. 소군이 북한경비대와 함께 이 지역으로 넘어와 농부를 납치하고 곡식을 수확해 간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농부들에게 미군 초소의 상황을 심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을 정찰한 미제7사단 기병정찰부대는 즉시 동해안지역의 38도선을 재설정할 것과 38도선 표지를 600야드 북상시킬 것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38도선 분계선 설정의 혼선은 소련군의 비협조로 계속되고 있었다.

* 사범국장 최용달



유진오(좌)와 최용달(우)

인공시절 양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천리 최용달이었다. 최용달은 인공시절 사범국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필자가 38선 양양지역을 답사하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용달을 적시하

3)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370쪽.
 4) 이들 마을은 오늘날 양양군 현북면과 서면 지역에 속한다. 현북면과 서면 지역의 일부는 38선이 그어질 무렵 이남에 속해 한때 행정구역이 강릉에 속했던 적이 있었다.

였다. 어떤 이는 유진오와 최용달을 비교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유진오는 남한에서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대표적인 법학자였다. 이와 비견될 만한 인물이 최용달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허풍처럼 여겨졌지만, 문헌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정말로 대단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진오가 남한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최용달은 북한 헌법의 기초를 만든 이였다. 이 둘을 비교하여 잘 정리한 자료가 있었다. 이수일이 쓴 「유진오와 최용달」⁵⁾이란 글이었다.(상기 사진은 이 책 118쪽⁶⁾에서 따왔다.)

다음은 이 글 중에서 최용달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유진오(1906-1987)를 남한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장으로서 초기북한의 법제를 체계화하고 북한 인민헌법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최용달(1904-1953?)은 북한 헌법의 아버지라 할 것이다.

유진오와 최용달은 1920년대 중반 경성제국대학 재학 시절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면서 민족적 자의식을 키워갔고, 졸업 후에는 보성전문학교 법과교수로 같이 근무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유진오는 김성수 그룹의 인맥으로 우익을 대표하는 헌법학자로서, 성대그룹⁷⁾의 중심인물인 최용달은 박헌영 그룹의 이론진으로 좌익을 대

5) 이수일, 「유진오와 최용달」,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 편집위 편, 역사비평사, 2008, 111-155쪽 요약.

6)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1933년 보성전문학교 졸업앨범에 실린 사진이라고 한다.

7) 성대그룹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에 활동한 경성세대 출신 사회주의 지식인을 가리킨다. 해방 이후 성대그룹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핵심세력으로 활동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최용달, 이상국, 박문규, 김태준 등을 들 수 있다.

표하는 법학자로서 이후 완전히 엇갈린 정치적 삶을 살았다.

유진오는 1924년 봄 경성제대 제1회 예과생으로 수석 입학하였고, 마르크스주의 연구서클인 경제연구회를 조직했다. 미야케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경제연구회는 경성제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양성소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제2회 입학생인 최용달을 위시해 이강국, 박문규는 성대그룹의 중심인물이었다.

본격적인 학술과학운동의 모습은 경제연구회 출신을 주축으로 1931년 9월 조직된 조선사회사정연구소에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조선사회사정연구소는 1933년 무렵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산당 재건운동 혐의를 받고 일제 관헌에 의해 사무실이 습격당한 후 문을 닫고 말았다. 유진오의 사회운동은 거기까지였다.

법문학부 졸업 후 경성제대 내 연구소 조수로 근무하면서 교수직을 마음에 두었지만, 조선인을 교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당국과 일본인 교수들의 처사로 기껏해야 예과 강사 아니면 만년조수가 현실이었다. 이후 유진오는 갈 곳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내적 고뇌를 문학으로 담아내었다. 후일 유진오는 앙드레 지드의 소련비판을 읽으면서 사상에 있어 전향을 하게 된다.

1925년 함흥고보를 졸업한 최용달은 가족과 고향사람들의 기대 속에 경성제대 제2회생으로 입학했다. 1927년 법문학부에 진학한 최용달은 삶의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미야케 교수의 사회주의 강론과 경제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도덕적 계몽주의는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경성의 도시정서에 익숙해져 있던 유진오와는 달리, 최용달은 고향의 안온함과 인간적 정리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 삶과 역사의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실천적 세계관으로 최용달은 마르

크스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1930년 법문학부 졸업과 동시에 최용달은 경성제대사법연구실 조수로 근무했다. 유진오의 알선으로 보성전문대학 강사가 되었다.

1932년 김성수는 재정난에 허덕이던 보성전문학교를 천도교로부터 인수하면서 인적, 물적 쇄신을 꾀하게 된다. 이때 경성제대의 강좌연구실 조교로 근무하던 유진오, 최용달, 김광진을 교수로 임명한다.

최용달이 쓴 글 몇 편이 일본법학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사법협회잡지와 법률학연구에 실릴 정도로 최용달의 학문의 깊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 일제과시즘이 극으로 치달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사상전향 정책에 걸려들어 실천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친일로 돌아서던 무렵, 최용달은 이강국, 이주하와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나섰다. 1938년 10월 적색노동조합 원산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큰 고초를 당했다. 1944년 8월에는 이강국, 박문규와 함께 여운형이 비밀리에 조직한 건국동맹과 연계를 맺었다.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유진오와 최용달의 인생행로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다. 평양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런 사정은 서울에서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 측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어쨌든 1945년 10월 9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문제로 박헌영과 김일성이 회동한 후 최용달, 이순근 등 박헌영의 측근인 물들이 월북해 북조선분국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북조선분국 5도행정국 사법부 차장,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법적 기초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 1946년 3월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토지개혁법을 작성하고 집행한 최용달은 봉건적 자본주의 수탈체제를 일소하고 인민민주주의 근대화의 기반을 창출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사법국은 법제와 감찰, 사법행정의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당시 김일성 그룹엔 최용달 만한 사회주의 법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전국적인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 해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제3차 인민회의에서 북조선 임시헌법의 제정을 결정했고, 최용달은 조선법전초안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장 최용달은 북조선 임시헌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조선을 통일의 민주기지로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민주기지론’의 내용은 이렇다.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통해 식민지적 착취수단과 독점자본의 착취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니 이러한 인민의 승리를 헌법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개혁은 고사하고 미군정의 방조 아래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자본가들이 설치고 다니는 남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북조선만이 통일 민주조선의 기지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용달은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성공은 두 가지 역사적 조건이 결합되어서 가능했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소련군의 점령이며, 또 하나는 인민위원회의 존재였다. 그에게 있어 소련군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정의로운 중심이었다.

최용달은 사법기관의 책임자로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급투쟁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였고 동시에 박헌영-남로당 계열의 핵심인물이기도 하였다. 인민정권의 기초가 거의 확립되어 가는 시점에 최용달, 이순근 등 박헌영 계열의 국내파 간부들은 김일성 그룹으로부터 종파분자로 몰려 자아비판을 당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원산지역을 종파분자의 온상으로 지목했는데, 이곳은 이주하가 최용달, 이강

국과 연계하여 1930년대 후반 적색노동조합 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이었다. 최용달은 박헌영 계열의 핵심인물이었기에 한국전쟁 후 숙청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용달의 약력〉 8)

- 1904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출생
- 1925 함흥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 1925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 1926 경제연구회 조직 및 활동
- 1927 경성제대 법문학부 진학
- 1930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사법연구실 조수로 일함
- 1931 조선사회사정연구소 설립
- 1932 보성전문학교 강사
- 1933 보성전문학교 전임강사
- 1934 1월 미야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1936 7월 원산공산주의 그룹의 지도자 이주하를 만남
- 1937 보성전문학교 교수. 서울에서 이강국, 이주하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 협의
- 1938 10월 적색노동조합 원산좌익 위원회 사건으로 체포
- 1942 집행유예로 석방됨
- 1944 8월 이강국, 박문규와 함께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참가
- 1945 8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11인 준비모임
- 9월 조선인민공화국 정강과 사정방침 작성
- 10월 북행하여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참가, 5도행정국 사법부 차관
- 194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장, 북조선로동당 당중앙지도기관 검열위원

8) 이수일, 『유진오와 최용달』,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 편집위 편, 역사비평사, 2008, 108쪽.

- 1947 북조선중앙선거위원회 부위원장,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장,
 북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 위원
- 194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임시헌법 초안 제정
- 194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
- 1953 3월 종파사건(=박헌영사건)으로 숙청된 것으로 추정

* 전쟁 전 북한의 토지개혁⁹⁾

북한당국의 선전과 달리, 토지개혁 후 현물세는 규정상 소출량의 30%만 내는 3:7제이었지만 실제로 농작물 판정과정에서 50%-60%으로 결정되었고, 농약대, 비료대 찬조금 등이 공제되어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가구당 세금 비중이 4%에 불과하였고, 사회조직회비 1.7%를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실재는 각종 잡세가 농민에게 부담이 되었다. 시나 면 유지세 외에 각종분담금이 부과되었다. 학교부담금, 남한동포구제비, 애국투사후원회비, 조소문화협회비, 농민동맹비, 탱크나 비행기 헌납비 등이 강제부담이 되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피난민을 통한 정보에서 북한사람들이 북한정권에 불만을 품는 이유가 개인별 연40일간의 강제노동과 높은 세금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 북침설의 내막¹⁰⁾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북진 주장은 일부 군부에서 나타나기 시작

9)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40쪽.
 10)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62-67쪽 요약.

하였다. 예컨대 1여단장 김석원은 이승만에게 소총 2만 정만 준다면 북한을 처치하겠다 장담하였으며, 전 참모장 채병덕도 1948년 말 실질적인 행동으로 未회복지를 회복하여 조국강토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무력통일 의지를 시사하였다. 이것은 군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표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북진발언은 소련군 철수 보도 직후인 1949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승만 정부는 1월부터 미군철수설이 보도된 4월까지 확실한 자신감 속에서 북진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소련군 철수가 곧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인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1949년 3월 이승만은 조병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국무장관에 지스에게 군원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조병옥에게 보낸 편지에 무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제한된 자체방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 무기로 전 한국의 열망을 쫓아 남북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같은 해 9월말 외국기자와의 회견에서 이승만은 남한은 북한의 실지를 회복할 수 있으며 북한동포들이 남한이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조치는 늦으면 늦을수록 곤란하다고 피력하였다.

* 1948년의 주한외국군 철수문제¹¹⁾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자 이후 주한 외국군 철수문제는

11)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118, 71-72쪽 요약.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소련은 1948년 9월 북한정권의 외국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소련군이 12월말까지 철군완료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10월 19일부터 스스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 국방 문서에 의하면 군사고문단과 별도로 북한에 머물면서 전쟁준비를 지원한 소련의 군사전문가나 군무원 숫자는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 군사전문가 잔류 상황은 소련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1949년 2월 18일자 ‘군철수 이후 잔류인원’에 총4298명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들 중 4020명은 군인이고 나머지 273명은 군무원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같은 시점에 남한에 잔류한 미군병력이 1개 연대 전투단임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서북청년회¹²⁾

1948년 8월부터 38이북에서 남하한 이북 각도별 단체들은 통합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추진해가고 있었다. 출신은 비록 각도별로 다르지만, 이들은 서울에 같이 모여 있고, 더구나 보다 효율적인 대공투쟁을 위해서는 우선 크게 뭉치는 일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대한혁신청년회, 함북청년회, 황해청년회, 북조청년회, 양호단, 평안청년회 등 각 대표간에 통합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통합작업이 급속화 되었다. 가칭 서북청년결성준비위원회의 형태로 진행된 통합작업은 명칭에 관해서는 서북청년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간부진의 구성에 있어 다소 논란이 있었다. 결국 모든 준비가

12)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1993, 159-161쪽 요약.

완료되어 1946년 11월 30일 서울 YMCA대강당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정했다.

〈강령〉

- 一. 조국의 완전자주독립 전취(戰取)
- 一. 균등사회의 건설
- 一. 세계평화에 공헌

선우기설을 위원장으로 뽑은 서북청년회가 그 이름을 세인에게 알려진 것은 이른바 1947년 3·1절 시위사건으로 인해서이다. 이 날의 경축행사는 민족진영이 서울운동장에서, 공산진영은 남산공원에서 각각 개최했는데, 이 날 경축식을 끝내고 민족진영의 각 단체와 시민들이 서울운동장을 출발, 종로를 거쳐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좌익들이 좌우의 건물에서 돌연 사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20만에 이르는 행렬이 산산이 흩어졌는데 500여 명의 서북청년회원들만은 행진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훗날 다음과 같이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해방 후 불가피한 좌우의 대립이 신탁통치안을 계기로 절정에 달한 때이니 만큼 이 날 벌어진 좌우의 충돌이야말로 양진영의 승패를 가르는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당시 만행을 일삼던 공산당의 행동세력도 서북청년의 세력 앞에서는 움찔했고 ‘서청’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다.

* 인민유격대의 남파와 빨치산¹³⁾ 활동¹⁴⁾

북한은 소위 ‘민주기지론’¹⁵⁾의 차원에서 남한의 적화를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유격대를 계획적으로 양성 남파하고 있었다.¹⁶⁾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한 직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월북자들을 공작요원으로 훈련·남파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1946년 평양학원이 설립되자 대남반을 설치하고 월북한 남로당원을 공산주의 정치교육과 대남공작요원으로 훈련하여 남한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주로 좌파세력 또는 남로당원과 연계하여 대남공작을 전개하였는데 일부는 정부기관과 군 내부에까지 침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하활동도 병행하였으나 유격요원으로 양성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1월에 강동정치학원이 설치되고 난 후 인민유격대라 불린 유격대원들이 양성되었다. 강동정치학원에서 양성된 유격대원들은 남파되기 직전 양양 인민유격대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았는데 전쟁 발발 전까지 양성된 유격대원은 약 3천 명¹⁷⁾이었다. 북한은 강동정치학원 폐쇄 직전인 1949년 4월 회령에 제3군관학교를 설치하여 남침 시 투입할 비정규전부대(766부대)를 양성하였다.

인민유격대는 여순사건 발생으로 토벌부대가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후방경비가 허술해지고 남한의 사회가 혼란해지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 유격대는 제1차로 약180명이 1948년 11

13) 중국은 빨치산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빨치산과 유격대를 동일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8·15 이후에 등장한 빨치산의 원조는 러시아 볼셰비키 빨치산이다.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 도서출판 다나, 1992, 21쪽.

14)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166-169쪽 요약.

15) 민주기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용달> 항목 참조.

16) 인민유격대가 남한으로 남파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최종 훈련을 한 곳이 지금 양양군 향교가 있는 곳이었다. 이 곳이 인민유격대(즉 빨치산)의 훈련장소였다.

17) 남파된 유격대 숫자에 대해서는 책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를 감안할 것.

월 14일 양양 오대산지구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산맥을 따라 태기산 부근까지 남하하였으나 한국군 토벌대에 의해 대부분 소탕되고 잔여 병력은 충북제천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제1차 침투에서 실패하자 그 원인을 분석한 후 1949년 6월 1일 약400명의 유격대를 재차 오대산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1차 침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섬멸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세 번째로 약200명의 유격대가 또 한 번 오대산까지 침투하였으나 토벌대에 쫓겨 사살되고 나머지 30여 명만이 주봉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3차에 걸친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4차로 유격부대 중 정예인 김달삼부대(제주) 약300명을 1949년 8월 4일 일월산으로 침투시켰다가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영일군 지경리로 재침투시켰다. 이들은 경북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후 동해연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토벌되었다. 이렇게 계속 비정규군의 침투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7차로 1949년 8월 17일 당시 강동정치학원 원장인 이호제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약360명을 태백산으로 남파시켰다. 이들 병력의 대부분은 토벌되었으나 100여 명이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여 경북 일원에서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1949년 9월 28일 약50명의 유격대를 양양군 면옥치리로 침투시켰으나 한국군에 의해 저지되어 북상도주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유격대가 영일군 지경리로 해상침투하여 보현산의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였다. 이후 유격대의 침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차로 1950년 3월 28일 양양인제·양구에서 대기 중이던 김상호·김무현부대 약700명이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정예부대였으나 역시 토벌작전으로 소탕되었다.

남침 시 후방에서의 대대적인 교란작전 수행을 목표로 한 북한유격

대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400명 가량이 침투하였으나 한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2천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 호국군¹⁸⁾

국군조직법과 대통령령(1948.11.20)에 근거, 예비군의 편성에도 착수하여 1949년 육군본부에 호국군 사령부(송호성 준장)를 두고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별로 모두 7개 여단 18개 연대를 편성하였다. 호국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지에 주둔한 연대에 소속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1949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남자는 만20세에서 만40세까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한 병역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원병제에서 의무병제로 전환하면서 8월 31일 호국군체도를 폐지하였다. 그대신 육군본부에 청년방위국을 신설하면서 대한청년단 조직을 중심으로 청년방위대를 도시·군·면·동리 단위로 조직하였으나 훈련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 남북교역장¹⁹⁾²⁰⁾

38선 설정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미군정 시기에 남북간의 물물

18)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140-141쪽.

19)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20) <남북교역장>, <명태사건>, <김석원 장군> 등 이하 몇 개의 항목을 편집한 이유는 양양군에서 김석원 장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쟁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인 즉 이렇다. 1945년 38선이 그어져 공식적으로는 38선을 넘나드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암암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경을 했다. 이북에서 갖고 이남으로 가는 것은 명태였는데, 그것이 이윤이 상당했다. 김석원은 이에 착안하여 명태장사를 했다. 월경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커미션을 뜯었는데, 이로써 재산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런 설화는 금번에 언급한 <남북교역장>, <명태사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석원은 양양과는 관련이 적다.

교환 무역이 허용되었던 장소를 가리킨다. 1947년 5월 미소 군정 당국간의 협의로 군 관리 하에서 남북간의 물물교환 무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시초로, 당시 제 7사단 방어지역 내의 도감포, 꽃봉마을, 추동리 및 영평천 백사장(만세교 북방 4km)의 4개소에 교역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매월 2-3회씩 비정기적으로 교역이 실시되었다. 당시 대단히 어려웠던 한국군 재정을 구제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 1949년 1월 김석원 1사단장에 의해 교역이 일시 중지된 일이 있으며(이른바 '명태 사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중순,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교역을 중단시킴으로서 남북교역장은 폐쇄되었다.

* 명태사건

1949년 1월, 제 1사단장에 취임한 김석원 대령이 남북 교역장에서 이루어지던 교역을 중단시켰던 일로 인해 육군본부와 알력을 빚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남북 교역장에서는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남한측에서는 군수물자들이 매물로 나오는 반면, 북한측의 매물은 명태나 염장 고등어 등이었다는 데 분노한 김석원 사단장이 남북 교역장에서의 교역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육군본부와 김석원 대령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여 대통령에게 출두하게 되었는데, 김석원 대령이 면전에서 항의한 일로 인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격노하여 그를 제 1사단장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채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 사임하였다.²¹⁾

채병덕 소장은 남북교역사건으로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충돌한

21)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결과 49년 10월 김장군과 함께 예비역에 편입되었었다. 그러나 자신 만은 2개월 후 12월 14일자로 현역에 복귀하면서 병기행정본부장에 취임하였다.22)

* 김석원 장군23)

김일성 역시 김석원이 간삼봉 전투 시 자신들을 토벌하러 출동했던 함흥연대장이라고 믿고서, 일제의 앞잡이가 이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38분계선 이남에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격앙되어 있었다. ‘지난날 백두밀림에서 그 놈과 싸우던 우리 동무들이 오늘은 38분계선에서 또 그 놈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당시 남한군 지휘부를 바라보는 북한측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한 빨치산 출신의 임춘추, 최현, 김일성 등은 모두 김석원이 1937년 6월 (함흥) 간삼봉 전투에서 자신들을 토벌하러 온 김소좌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간삼봉 전투에 출전했던 것은 김석원이 아니라 김석원과 일본육사 27기 동기생인 김인옥이었다.

김소좌를 김석원으로 지목한 것은 1960년대 임춘추였으며, 그 후부터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조선전사』(19권340쪽) 역시 19사단 함흥 제74연대장 김석원이 간삼봉전투에서 토벌군으로 참가했다가 심한 다리부상을 입었다고 썼다. 이미 1974년 이명영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북한군 지도부는 친일파 김석원이 이제는 친미파로 변신해 일제시대의 항일유격대 토벌에 이어 대북공

22)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110쪽.

23)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2006, 249-255쪽 요약.

격을 시도한다고 생각했다.

일제시기의 원한과 잔인한 기억, 증오는 해방 후 남북한에 만연한 소문의 진원이 되었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김일성이 한국전쟁 당일인 6월 25일 ‘김석원, 내가 너를 잡으러 간다. 이제 너는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라디오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일본육사27기 출신인 김석원은 중일전쟁의 산서성 동원전투에서 일본군 2개중대로 중국군 1개 사단을 격파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중일전 출전 당시 소좌였으며, 화북에 출전한 20사단 예하 40여단의 침병대대장으로 출전해 북경 남하촌 전투에서 분전하였고 2차대전 말기에는 대좌로 진급하여 평양병사구 사령부 제1과장을 담당했다.

1939년 김석원이 귀국했을 당시 김석원 부대장을 찬양하는 노래가 제작되었고, 이후 그는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무용담을 선전했다. 그에게는 훈3등·공3급·육3등의 금사훈장이 주어졌다. 김석원은 1940년 대초 일제의 학병 동원에도 적극 관여했을 뿐 아니라 삼부자가 모두 일본군에 복무한 황군가족이었다.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은 개성지구 1여단(곧 1사단으로 승격)장이 된 김석원의 자질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주한미군군사고문단이 비꼬듯이, 그의 유일한 전술은 반자이(萬歲)전술, 즉 ‘돌격 앞으로!’였다. 주한미대사 무초는 이렇게 썼다.

국방부장관, 한국의 참모들, 미고문관 등 모두 김석원을 반대했다. 그들은 그를 훌륭한 군인이 아니라 허풍쟁이로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구역에 있는 전선에서 북한군을 자극하고 일본식 반자이 공격을 좋아하고 적절한 예비병력을 남겨놓지 않고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전선에 그의 병력을 배치시키는 등의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나의 주의를 환기시켰

다. 그들은 특히 그가 사령부를 무시하고 곧장 이대통령에게 달려가는 것에 반대하였다.

제임스 하우스만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이 채병덕을 참모총장에서 해임하고 김석원을 임명하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나서 로버츠 군사고문단장, 무초 대사를 통해 무산시켰다고 증언했다. 무초 역시 김석원을 총장에 임명하면 한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김석원이 1사단을 임진강 서쪽으로 너무 많이 팽창시킨 탓에 북한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대를 위험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49년 5월 월북한 강태무·표무원 부대원들은 김석원을 일제에 충실한 가네야마 대좌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심지어 1949년 10월 그가 현역에서 면직되었을 때 주한미군사고문단은 그의 해임이 한국군에게 이로운 조치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한국군 장성들의 김석원 평가도 엇갈리는데, 채명신은 김석원을 구식이지만 자상한 지휘관으로 평가한 반면, 유원식은 직접 제거를 생각했을 정도로 부하들에게 잔인했던 지휘관으로 기억했다.

* 1949년대 38선 충돌사건²⁴⁾

1949년 1월초 일부지역의 한국군경이 월경함으로써 총격전이 수행되었다고 하였다. 주북한 소련대사 스타코프 보고는 38선 부근에 남한군경이 근접하여 1월 15일~25일 사이 월경사건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경찰소대병력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2월 4일 동부지역 기

24)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178-189쪽.

사문리 침입의 경우 북한이 보병부대까지 투입하여 반격전을 수행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38선 접경지의 북한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동요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부락단위별로 자위대를 강화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쌍방의 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의 충돌은 서로에게 발화의 책임이 있다고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돌원인은 남한군경이 전술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38선 너머의 고지 일부를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발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대체적인 충돌양상은 남한 군경이 주요고지를 점령할 경우 북한이 경비대와 인민군을 투입하여 이를 격퇴하거나 월남하여 보복전을 수행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

전투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가 빈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경우 38선에 2개 경비여단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주로 소총으로 무장되었으며 그나마 개인당 3발~10발의 탄환이 지급되는 정도였다. 한국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전투의 최초 발화는 1949년 5월 4일 한국군 제11연대 2개 중대가 개성북방 292고지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성전투는 5월 4~5일 이루어진 한국군 제8연대 강태무/표무원 대대의 집단월북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이들은 숙군의 위기상황에서 훈련을 위장하여 38선으로 접근한 뒤 부대를 이끌고 월북한 것이었다.

이 무렵 38선 접경지역은 미군 철수 직후 전선에 배치된 한국군이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으나 양양 공수전리 사건 등 몇몇 사소한 충돌 외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 제1차 기사문리 고산봉 전투²⁵⁾

1949년 초반의 무장충돌을 대표하는 것은 2월초 기사문리 포격사건이었는데, 이는 이후 1949년 38선 무장충돌의 기본뼈대를 형성했다. 한국측 사건 명은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리 사건이며, 북한측 명명은 고산봉 사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194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산봉을 강조해왔으나, 한국에서 간행된 전쟁사에는 고산봉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사1:해방관건군』은 기사문리·양양은 거론했지만 고산봉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군 원로들의 증언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각별한 교시와 지도를 받아 쓴 일본방위청의 군사가 사사키의 『한국전비사』도 북한이 주장하는 고산봉이 존재하지 않는 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고산봉은 분명 존재하는 산이다. 고산봉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샘골 뒷산 38선 이북 500m지점에 위치한 고지다.

『한국전쟁사1』과 『한국전비사』가 전하는 기사문리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2월 하순 38경비대 1개 중대 서림방면 침공.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천교리로 침공하자 제10연대(백남권 중령)가 격퇴. 10연대는 포병대장 노재현 대위로 하여금 105mm M3 곡사포 2문을 가지고 기사문의 적 해군과견대를 목표로 포격, 포경이 없어서 직접 조준 5발 발사해 건물 파괴. 105mm포로서는 38이북에 대한 최초의 발사. 미군사고문단은 이를 중대시하여 직접 조사하고 육군본부 참모회의에 회부. 포병단장 장은산 중령 정당위를 주장.

25)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277-279쪽 요약.

그런데 한국측 전사료에는 2월 2~3일 발생한 사건을 2월 하순으로, 찬교리를 천교리로 잘못 표기하는 등 발생일, 지명 등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또 이 사건이 북한군의 침공에 대해 105mm곡사포로 38이북의 기사문리를 포격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편 8사단장이던 이형근은 기사문 지역에 인민군 유격대 훈련소가 있어서 1949년 2월 포병대장 노재현 대위가 연대장 백남권 중령의 명령으로 기사문을 포격했다고 썼다.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의 보고에 따르면 2월 3일 한국군경이 트럭 6대의 병력으로 38선 침입을 시도하다 격퇴된 후, 군경병력을 실은 한국해군함정이 38선 이북 15km지점(기사문리)까지 침범했다. 같은 날 한국해군함정이 38선 이북 15km의 해안을 포격했으며, 2월 4일 한국경찰은 다시 38선 이북 500m지점인 1985고지를 점령했다. 즉 남한은 1300명 이상의 병력, 그리고 105mm포와 소해정 등을 동원해, 군경합동 및 육해군 협동작전을 구사했다.

한편 북한측 기록은 2월 2일부터 한국의 해안경비정이 38선 이북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해안에서 현북현 하광정리를 포격했고, 같은 날 한국경찰이 기사문리에 침입했으며, 2월 3일 강릉10연대와 강릉주문진경찰 1300명이 고산봉을 점령한 것을 2월 4일 북한경비대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한 선전매체는 2월 4일 제1차고산봉전투에서 내무성경비대 1개 소대가 한국군 3개 대대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과장했다.

한국정부는 정부수립 후 해군이 처음으로 동원된 이 사건을 해군의 주문진 작전이라 부르며 함정 포사격으로 인하여 기사문 적 진지 일부 파괴, 인원 손상미상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의 정보보고는 2월 3일 해군의 기사문리 포격이 북한의 38선 이남 침공에 대한

조치였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현대까지 한국측 전사가 주장하는 북한 38경비대 1개 중대의 침범여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슈티코프의 비밀보고에 따르면 북한경비대는 170명의 병력에 중경기관총 각1정, 자동화기소총20정의 무장을 갖춘 경량급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 군경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보병대대를 투입해야 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큰 여파를 미쳤는데, 먼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105mm포경을 회수해 더 이상의 대북공격을 억제하려 했던 반면에, 소련측은 북한에 대해 방어용무기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호림부대²⁶⁾

호림부대는 반공청년단체, 특히 서북청년회의 반공활동의 산물이다. 이미 서북청년회에서는 이범석 국방부장관에게 국군도 북한의 게릴라남파에 대응하여 강동정치학원과 맞먹는 비밀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수차 건의했다. 1947년 7월 서북청년회 강원도 횡성지부 위원장 박만하와 기린지부 위원장 박동학이 힘을 합해 영동지부에 계림공작대를 조직했다. 대원들은 백의곤의 지휘아래 대북첩보수집활동, 북한내 지하조직 구축 등을 수행했다. 정부수립 후, 계림공작대는 국방부 제4국과 연계된 동해특별유격대로서 동부지역에서 대북첩보활동을 전개했다. 1949년 2월 25일 국방부 제4국이 해체된 후, 육본정보국의 지원을 받아 호림부대로 확대개편되었다.

대원의 규모는 불분명하다. 2월 26일 거제도과 경북 일대로 좌익빨치산을 토벌하러 나갈 때는 557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367명이라

26)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71-79쪽 요약.

는 기록도 있다. 총지휘관은 정보국 특무과장 육군소령 한왕룡이었고, 부대장은 강종철이었다. 제5대장에 백의곤 대위, 제6대장에 김현주 대위가 임명되었다. 당시 제5대대와 6대대로 칭한 것은 북한군에게 대부대로 오인시키기 위해 위장한 것이었다. 대대는 본부와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1개 소대는 12명 등으로 편성되었다. 제5대대와 제6대대의 병력은 각각 120명씩 편성되었다.

전쟁 전 대북작전은 일시적인 반격작전을 제외하고 호림부대의 작전이 처음이었다. 1949년 5월 국군 제8연대 예하 제1대대(표무원 소령)와 제2대대(강태무 소령)의 집단월북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6사단 제1연대가 사단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1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북한군 후방까지 침투하여 북한군 다수를 살상하였으나 아군 3명도 전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7월 4일에도 제6사단 10연대 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육군본부나美工문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개털라 남파를 봉쇄하기 위해 제1대대(대대장 소령 고백규)를 출동시켜 양양에 있는 인민유격대 재훈련소와 기타시설을 파괴한 양양돌입사건이 있었다.

호림부대원들은 거제도 좌익빨치산 토벌에 참가하여 경험을 쌓은 후 1949년 6월 23일 수색학교를 떠나 북한으로 침투하기 전 채병덕 총창모장의 훈시를 들었다고 한다. 침투목적은 설악산을 거점으로 동부산악지대를 북상하여 적의 경계가 약한 읍면의 행정기관 기습, 교량 및 주요도로 파괴, 창고 방화, 정당사회단체의 간부 암살에 의한 민심교란, 군사기밀 탐지 등이었다.

제5,6대대는 6월 27일 양양군 서림에 도착한 후 행군으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이동한 후 적정파악을 위해 이틀간 주둔했다. 가랑비가 내리면서 짙은 안개가 내린 6월 29일, 북한군 복장으로 99식 장

총과 수류탄, TNT로 무장한 채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제5대대가 선봉이 되어 38선을 돌파하여 태백산맥의 점봉산을 넘어 박달령을 거쳐 양양지구 오색촌으로 침투했다. 계속 북상하여 설악산 대청봉 1708고지로부터 동북쪽 6km지점에 위치한 봉정암에 집결했다. 이곳으로부터 제5대대는 영동지구로 진출하고 제6대대는 영서중부 고원지구로 북상하여 7월말에는 양덕맹산지구에서 합류할 계획이었다.

제5대대는 7월 2일 목적지인 설악산 북쪽 2km 떨어진 화채봉으로 이동하여 최초의 근거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북한 보안대원이 남한에서 국군이 설악산으로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요소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현지첩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화채봉을 떠나 상북리로 이동했다. 상북리에서 대대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박해를 가해온 상북리 노동당위원장과 당원 한 명을 처치했다. 7월 8일 새벽에 대대가 상북2구의 피골이란 마을을 통과할 때, 보안대원 6명이 마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입수하여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했다.

10일부터 약 1개 소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추격을 받았다.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대원들이 반격하여 6명을 사살하자, 나머지 적들은 퇴각했다. 대대는 적의 재차공격을 예상하고 근거지 이동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령을 향해 이동했다. 이튿날 낮 대대 주력이 큰령 마루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원 3명을 생포하고 마을을 기습하여 식량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 소대병력이 후속하고 있어서, 대대는 산 위의 유리한 지형으로부터 사격을 가해 적을 물리쳤다. 대원들은 마을로 진입하여 식량을 구한 후 마산(馬山)²⁷⁾으로 이동했다.

27) 마산은 양양군 서면 오색1리의 마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마산은 간성읍 홀2리의 마산을 의미한다.

7월 12일 마산 근처의 산에서 숙영을 하고 있을 때, 적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추격해왔다. 대대는 유리한 지형에 위치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다. 2시간의 교전 끝에 8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장총 6정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대장은 퇴각한 적이 재차 공격을 위해 많은 인원을 동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중예 고립될 것을 우려하여 즉각 향로봉으로 이동했다. 행군 도중 대대는 인제에서 간성에 이르는 도로상에 교량 2개소를 폭파하고 7~8명의 병력을 태운 목탄트럭을 기습하여 차량을 파괴하고 병력을 모두 사살하기도 했다. 대대는 향로봉을 거쳐 7월 15일 삼치령으로 진출했다.

이때 적은 유격대가 향로봉-금강산 선으로 침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강-삼치령-노루메기-대방골을 연하는 선을 봉쇄하고 있었다. 대대는 삼치령 마루터 약100미터 지점에서 적의 봉쇄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백의곤 대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작전을 간부들과 숙의하고 있을 때 계곡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대대장은 이때를 이용하여 적의 봉쇄선을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적진 30미터 지점까지 접근시킨 다음 일제사격을 가하며 적진으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대는 적 48명을 사살하고 소련제 장총38정, 다발총6정, 경기관총2정, 수십 발의 수류탄과 수천 발의 실탄, 식량 등을 노획했으나, 임석순, 김정덕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을 입었다.

적의 봉쇄선을 돌파한 대대는 금강산을 따라 북상하여 7월 16일 내금강의 국사봉에 도달하여 삼각고지를 점령한 후 병력을 배치했다. 이 날 19시 30분경 대대를 추격해온 북한군이 삼각고지를 동남북으로 포위하여 공격해왔다. 국사봉 부근에서 적에게 포위를 당해 대대장이하 많은 대원들이 희생되었다. 탈출에 성공한 대원들은 각자 분산

된 상태에서 남쪽을 향해서 남하했다. 이들 중 많은 대원들이 적의 차단선에서 체포당하고 일부는 화전민들의 도움을 받아 적의 경계선을 뚫고 원대로 복귀했으나 생환대원의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이 작전에서 김종호, 추병한 등 현지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현지주민을 통해서 지형의 안내는 물론 인민위원회의 동태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식량을 조달받았다. 이러한 협조를 했던 상복리 주민 가운데 김영옥, 김몽수 등은 남한으로 탈출했으나, 김중우, 조만순, 양영길 등은 강현면 내무서원에 의해 체포되어 원산 감옥으로 이관되었다. 그 곳에서 모진 고문과 혹독한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는 처형당했다고 한다.

제5,6대대 귀환대원들과 제2,3대대 대원들은 1949년 7월 12일 육군 호국군에 편입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대원은 제대하고 나머지는 같은 해 11월 13일 현역에 편입되었다. 그 후 육군영등포학원으로 개칭되었다. 부대장 한왕룡 중령 후임으로 홍성준 소령이 부임했다. 부대원들은 삼각지 소재 수도경비사령부 내 병사에 수용되었다. 1949년 9월 15일 공비토벌작전을 위하여 지리산으로 출동했다. 그후 육군 영등포학원은 제3사단으로 배속되어 보현산, 팔공산 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전쟁이 일어난 후인 1950년 8월 18일 영등포학원이 해체되자, 대원들은 제3사단에서 팔공산지구, 영덕-강구 방어작전 등에 참가했다. 이때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도사단으로 전속되고, 대대본부 요원들은 제3사단 수색중대로 배치되었으며 중대원들은 제23연대 제1,5,9,11중대에 배치되었다.

* 호림부대의 대북침투²⁸⁾

한국군이 38선의 서쪽끝인 웅진반도에서 은파산을 점령하고 까치산을 탈환한 시점에 38선의 동쪽 끝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호림부대라는 남한특수유격부대의 북한 침투였고, 다른 하나는 정규군의 양양공격, 즉 제2차 고산봉 전투의 발발이었다. 38선의 양극단인 웅진과 양양은 남북한 모두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 지역이었고, 서로 정규군과 유격부대로 상대방을 공격했던 지점이었다.

1949년 6월 28일 북한에 침투한 호림부대는 지금까지 그 실상이 감추어져 있다. 사사키는 북한으로 침투한 호림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지만, 비운의 이 부대는 실재했다. □□개정판 한국전쟁사□□는 이들이 북한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제외한 채 1949년 2월 25일 이북출신 367명을 기간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으로 창설되었고, 특무과장 한왕룡 소령이 부대장을 맡았다고 기록했다.

이들은 남한의 특수부대 양성소인 경기도 수원 수색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훈련종료 후 1949년 2월 26일부터 부대장 한왕룡의 지휘 하에 거제도와 경상북도에서 반군토벌에 참가해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실전훈련을 쌓았다. 5월 25일 이들은 서울로 귀환해 이범석 국무총리와 사회·법무·농림부 장관 등이 임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사열을 받았다. 이범석은 호림부대를 찬양했으며, 신문은 이들이 국방부 제2국 소속 호림부대이며 단원은 5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채병덕 - 정보국장 백선엽 - 정보국 5과장 한왕룡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에 놓여 있었다.

미군사고문단과 미대사관 역시 호림부대의 존재 및 활동을 알고 있

28)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370-375쪽 요약.

었다. 이들 역시 정기적으로 호림부대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호림 부대가 원산까지 침투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호림부대가 설립된 가장 큰 목적은 적의 일선배치 병력을 분산케 하기 위하여 아측도 무장유격대를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시켜 적의 병력을 분산배치시키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1949년 1월 19일 해주의거가 소수의 특수공작원을 동원한 공작계획이었다고 한다면, 6월의 호림부대는 당시 북한이 남파하던 게릴라들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게릴라였다. 또한 보급장비 면에서 정규군에 버금갔다. 북한이 강동학원 등 빨치산 양성소를 세워놓고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유격대를 남파한 사실에 비춰본다면 한국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군 투입에 대한 미군사고문단의 반대와, 지원병제에 따른 국군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반공단체로 특수공작을 하던 게릴공작대와 다른 반공단체를 중심으로 호림부대가 편성되었다.

호림부대는 1949년 6월 20일부터 강원도 횡성에서 대대 편성을 해, 백의곤과 김현주를 각기 5대대장, 6대대장으로 하는 총원 150명의 2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6대대는 현역군인 여럿과 여순사건, 제주사건에 참전했던 경찰관출신 20여 명이 핵심을 이루었다.

부대 대호가 5대대, 6대대로 명명된 것은 북한군에게 대규모 부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대원들에게는 일본제99식장총, 탄환120발, 미제수류탄3개씩이 지급되었고 북한 보안대 복장으로 위장하게 했다. 이외에 경기관총, 지뢰폭탄 수십 개, 다이너마이트, 독약, 전선 절단기, 북조선은행권 50만 원, 사진기 등의 장비가 보급되었다.

이들은 1949년 6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진동리 오색리지구로

침투했다. 5대대는 양양군 강현면과 속초면으로, 6대대는 인제군 북면 서화면으로 침입했다. 북한측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요공장기업 소·교통선의 파괴, 정권기관·정당·사회단체 중요간부 암살, 방화, 살인, 산독(散毒), 민심 교란, 군사비밀 탐지 등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북한은 호림부대의 활동이 “마치 공화국 인민군대 내부에서 군인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킨 듯이 대내외적으로 허위선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호림부대 관련자인 이흥렬이 밝힌 호림부대의 목적 역시 이와 같았다.

1. 설악산을 거점으로 하고 동부산악지대를 복상하여 인근 소읍부락을 기습하고 내무서 습격, 교량 및 교통도로 절단, 보급창고 등의 파괴를 감행한다.
2. 적 부대와는 가급적 전투를 피하고 각처에 출몰함으로써 적의 치안상태를 극도로 마비할 것
3. 적 대부대를 산악으로 유인하여 적의 주력을 마비시켜 전투력을 상실케 하고 我부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 적의 방어가 약한 소읍면을 기습한다.
4. 현지 반공애국청년을 가급적 포섭하여 부대원으로 편입시킨다.
5. 투항한 북괴군 및 내무서원 및 악질적인 당원은 포로로 하고 보급품을 운반케 한다. 본 유격대가 철수 시 같이 철수 후송한다.
6. 무기 및 식량 기타 필수품은 현지조달하고 주민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대금을 지급한다.

아마도 북한은 한국군 특수부대의 월북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 북한 내무상의 지시로 각 시군 내무서장에게 보내진 긴급지시는 “이남 춘천주둔 괴뢰국방군 192부대에서 과건하는 특별공작대 130명”이 북한에 침입해 폭탄, 독약 등으로 과

괴, 암살, 인명살해를 목적으로 복장은 사복으로 가장한다는 ‘이남정보’를 이첩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경고한 바 있다. 호림부대의 침투에 따라 1949년 7월 북한지역 강원도 인제군은 당·정·군 모두 초비상상태였다. 북한 내부분서에 따르면, 해당지역 북한 당·정·군기관들은 전투, 자위, 반간첩사업, 전투사업협조 등 완전한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인제군당은 38선 경비를 위해 밤낮으로 주민들을 500m거리로 경비를 서게 할 정도였다. 북한 내무성은 7월 29일 호림부대를 완전히 소탕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9월에 가서야 이들의 자취가 사라졌다.

북한측 집계에 따르면 피해상황은 38선 연변 전답1만1859평 토지에 파종을 못했으며, 4800평이 未제초, 주민11명 납치, 피살29명, 가옥11채 소각 및 파괴, 축우15두 손실 등이었다. 북한측 자료에 따르면, 호림부대원 106명이 사살되었고, 44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8월 28일 열렸고, 9월 11일 전월성·이한기·조석풍 등에 대한 공판은 모란봉극장에서 공개재판으로 열렸는데, 이들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 북과 호림유격대²⁹⁾

한국전사에 잊혀진 전설이 있다. 한국 최초의 북과유격대인 호림부대.

예비역 대령으로 육군 정보국 출신의 김근화(80·육사5기) 씨 역시

29) 김태완, 「북과 호림유격대」,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386-401쪽 발췌요약. 호림부대에 관한 인용은 앞에서 몇 편을 하였으므로 앞의 몇 편에서 빠진 내용들만 발췌 게재함.

호림부대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대한민국 군사상 가장 환상적인 부대였습니다. 저는 1948년 12월 국방부 제4국 창설에 참여, 군사교관으로 임명됐어요. 제4국에는 강원도 주문진에 거점을 둔 동해특별대(대장 백의곤)와 태백산에서 활동하던 오대산 유격부대(대장 김현주)가 소속돼 대북첩보공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방부 제4국 소속이던 호림부대는 1949년 육군정보국 직속 특수부대로 개편, 육군 호림부대로 명명됐다. 작전을 하달하는 주체가 국방부에서 육군으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국가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장병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를 편성했다.



호림유격전적비(사진제공 : 전쟁기념관)

이승만 정권 당시 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문봉제(1915-2004) 씨의 생전 회고다. 그는 호림부대 창설 당시 국방부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한다.

“저는 육군 수색학교에 서북청년단원 300여 명을 입교시켰습니다. 이는 정책적 차원이었으며 조만식 선생 비서를 거쳐 먼저 월남한 백선엽을 정보담당으로 하는 육군본부 정보국장 취임도 건의했어요. 부대명은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는 평안도 기상의 표어에서 虎자와 林자를 따서 호림부대로 칭하게 됐습니다.”

군번 없는 군인들의 전사는 이후 호림유격전우회가 결성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2,3대대 대원들이 중심이 돼, 흩어졌던 5,6대대 대원들을 불러모았다.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정부지원을 받아 1986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안보 공원 내 호림유격전적비³⁰⁾가 세워졌다.

전적비를 세울 당시 외무부는 6.25북침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고, 내무부와 국방부 역시 북괴가 악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건립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북괴 악용의 실보다 안보의식 고취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해 그 뜻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사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기까지는 다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3년 지난한 병적 확인 작업을 거쳐 전사자 174명(장교 2명, 사병 172명)이 국립 현충원에 봉안된 것이다. 숨진 지 54년 만에 겨우 신원을 회복한 셈이다.

하지만 몇 해 전 결성된 호림유격전우회(회장 황희성)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육군첩보부대(HID) 창설 이

30) 사진제공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양양돌입사건(제2차 고산봉 전투)³¹⁾

호림부대가 양양군에서 대북침투를 단행한 직후인 7월초 양양의 한국군이 대북공격을 단행했다. 이 전투의 명칭은 양양군 고산봉전투(북한)³²⁾ 혹은 양양돌입사건(한국)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 모두 7월초 양양에서 한국군의 대북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먼저 한국측 자료로 이 전투를 구성해보면 10연대장 송요찬이 양양의 북한유격대 훈련소를 파괴하기 위해 상부와는 무관하게 제3대대에 게 구두 공격명령을 내렸고, 7월 4일 미명에 제1대대의 3개 중대가 공격을 개시했다. 이들은 처음 보급된 M1소총으로 무장하고 양양을 목표로 산간소로를 이용해 진격했다. 이들은 남대천 대안의 80고지를 점령했으나 북한군의 반격으로 1개 중대가 피해를 입었고 송요찬은 문책 해임되었다. 8사단장이던 이형근은 자신의 부제 시 제10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침투한 적을 추격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에 포위되었다고 회고했다. 이형근은 송요찬의 행동이 정당한 점도 있었으나 지휘계통을 무시해 해임했지만, 군법회의에는 회부하지 않았다고 썼다.

북한측 주장도 이와 비슷한데, 7월초 8사단10연대 제1·2·3대대와 게림특무부대가 38선 이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고산봉 점령 및 양양군 공격명령을 받았다. 10연대는 7월 3일 양양군 서면 영덕리 공수전리를 공격했고, 7월 5일에는 같은 지점과 영덕리 825고지를, 7월 6일

31)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375-376쪽 요약.

32) 필자(이한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지 양양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사문리 돌발사건’이라 불렀다.

에는 서면 중암리와 고산봉을 전면공격했다. 북한은 7월 8일 공수전리, 고산봉에 침입한 남한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한 선전매체는 7월 6일부터 한국군이 만여 발의 포를 쏜 뒤 3개 대대가 진격해왔지만, 고산봉을 지키던 2개 소대병력에게 격퇴되었다고 선전했다. 고산봉 전투에 참가했던 병사에게는 국기훈장3급이 수여되었다.

* 북한의 창군과정³³⁾

소군정은 45년 10월 21일 무장단체 해산령을 발표하고 새로이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보안대는 1945년 11월에 소련군정을 추종하여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자 중에서 선발된 2천 명 규모로 진남포에서 창설되었으며 1946년 초까지는 각 도에도 보안대를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치안과 시설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1946년 1월에 본부를 평양에 둔 철도보안대를 창설하였다.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1946년 7월에 북조선 철도경비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철도경비대는 13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철도경비를 담당하면서 정규군 편성에 대비하였다.

1946년 2월 8일 진남포 도학리에 군간부와 정치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평양학원을 설치하였다. 이 학원의 교육기간은 4개월의 단기과정부터 시작하여 1946년 6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15개월 과정을 신설하여 전쟁 직전까지 모두 2500명이 배출되었다.

1946년 7월 평남 강서군에 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중앙보안간부학

33)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345-348쪽 요약.

교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후일 인민군의 소대장, 중대장, 교관요원 등이 되었다.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평양에 군지휘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설치하였다. 철도경비대의 13개 중대를 기간으로 하여 3개 대대를 편성하고 훈련소를 3개소로 통합하였다.

대부분의 병력은 18세 이상 25세까지의 청년으로 모병하였으나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강제징집을 시행하여 민청대원과 장정을 집단적으로 입소시켰다. 장비는 초기에는 일제38식소총으로 무장하였으나 소련제소총과 탄약을 확보하고 소련군 장교를 고문관으로 두어 조직적인 체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47년 5월에 이르러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인민집단군(최용건 사령관)으로 재편, 2개 사단+제3독립혼성여단으로 편성하였다. 사단은 10,400명이고, 여단은 2,400명이었다.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설선언과 함께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고 인민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공산정권 수립 7개월 전의 일이다.

* 남한의 창군과정³⁴⁾

해방 직후에 사설 무력단체가 난립했다. 1945년말 조병옥 경무부장이 국방부의 설치를 건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은 그러면 창군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공포된 군정법령제 28호에 따라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에 군무국과 경무국을 두고 군무국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치하였다.

34)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350-355쪽, 130- 141쪽 요약.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였다. 약 4개월 간 축차적으로 110명을 임관시킨 후 폐교하였다. 최초 미군정은 학생의 정원을 60명으로 하여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에게 각각 20명씩으로 하고 입교자격을 소장경력자들에게 한정함으로써 파벌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광복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은 장차 국군이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우며 응모를 기피하여 소수만이 입교하였고, 좌익계는 처음부터 외면하였으므로 입교한 학생의 대다수를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자들이 차지하였다.(입관 110명 중 광복군 출신이 2명,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이 108명이었다.)

1946년 5월 1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새로이 창설하고 군사영어학교에서 졸업치 못한 인원들을 입교시켰다. 후에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 창설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점령군의 경비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을 미군무기로 장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예비대 창설안(뱀부 계획)은 1개 도에 1개 연대 총 2만5천 명 규모의 8개 연대를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뱀부계획이라고 불렀다. 이후 조선경찰예비대 또는 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으로 군 창설이 이루어지게 되자, 대부분의 사설군사단체는 해체하였고, 그 요원들은 경비대로 흡수되었다. 조선국방경비대는 군정법령(46.1.14)에 기초하여 경찰예비대 2만5천 명과 해안경비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창설 시 간부는 주로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배치하였다. ‘불편부당’이란 구호를 내걸고 사상문제를 거론치 않음으로써 좌익사상을 지닌 이도 다수 입대하였다.

1947년 3월 도로 승격된 제주도의 제9연대를 포함하여 9개 연대를

완전 편성하였으나 대구의 제6연대는 구성원 중 좌익세력이 물의를 일으켜 편성이 늦어졌다. 이때 연대 편제는 3개 대대, 대대는 3개 중대의 편성이었다. 일본군의 38식 및 99식 소총으로 장비하였다. 1946년 9월 이후 점차 미제 병기와 미국식 피복으로 전환해갔다.

1946년 3월 29일 군정청의 각국이 부로 승격되자,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승격, 이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대표가 문제삼자, 다시 국내경비부로 개칭하였다. 이를 한국 측에서는 통위부(統衛部)로 호칭하였다. 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도에서 통위부장을 광복군계 인사로 천거하여 9월 12일에는 한국인으로서 초대 통위부장에는 유동렬 장군이 취임하였다. 통위부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군의 지휘권이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미군은 고문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비대 총사령부를 비롯한 각 연대의 지휘권도 한국인이 행사하였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에서 점령군 철수문제가 제기되자, 미군 측에서 경비대를 5만 명으로 증원하되 필요시 포병화기 및 장갑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내치안 유지능력의 개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에 대비키 위한 것이었다. 통위부에서는 장차 정부 수립 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1947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9개 연대를 3개 연대씩 묶어 3개 여단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모병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4월~5월에 추가로 연대와 여단을 증편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조선경비대는 국군이 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담당하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은 기능에 따라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되 통수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역종에 따라 정규군과 호국군(예비군)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 상 지원불가 원칙에 따라 공군은 창설되지 못하고 육군에 항공부대로 두었다가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육군은 5개 여단에 15개 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2개월 후에는 1949년 1월까지 6개 여단 20개 연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때 주한 미군으로부터 38선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국군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당시 한미잠정행정협정에 의거 철수하는 미군으로부터 5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5만 명분의 소총과 탄환, 2천 문의 로켓포, 각종차량 4만대, 다수의 경포와 박격포, 포탄 70만 발 등 무기와 장비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수한 장비들은 대부분 낡고 성능이 좋지 못한 것들이었다.

1949년 5월 12일에 6개 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6월 10일에 다시 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총 8개 사단을 확보하였다.

다음 표와 같이 최초의 사단은 3개 연대를 주축으로 본부 및 본부중대, 포병대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병기중대, 병참중대, 의무연대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당시 4개 사단만이 3개 연대를 갖추고 나머지는 2개 연대로써 편성되었다. 이중 1,7,6,8사단과 17연대가 38선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밖에 사단은 후방지역 방어, 특히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밖에 육군은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들과 귀순장병들로 수색학교(독립제1대대), 호림부대(영등포학원), 보국대대(제803독립대대) 등 특수부대도 창설하여 남파시킨 유격대와 빨치산의 소탕작전에 동원하는 한편 일부는 대북공작에 참여시켰다.

표1. 한국군 사단 창설과정표

| 사단 명 | 창설일자 | 사단장 | 연대 명 | 위치 | 비고 |
|------|---------|--------|----------|-----|----------|
| 1사단 | 49.5.12 | 김석원 대령 | 11,12,13 | 수색 | 제1여단의 승격 |
| 2 | 49.5.12 | 유승렬 대령 | 5,16,25 | 대전 | 제2여단의 승격 |
| 3 | 49.5.12 | 이용준 소장 | 22,23 | 대구 | 제3여단의 승격 |
| 5 | 49.5.12 | 송호성 준장 | 15,20 | 광주 | 제5여단의 승격 |
| 6 | 49.5.12 | 유재홍 대령 | 2,7,9 | 원주 | 제6여단의 승격 |
| 7 | 49.5.12 | 이준식 대령 | 1,19 | 의정부 | 수도사단을 개칭 |
| 8 | 49.6.20 | 이형근 준장 | 10,21 | 강릉 | |
| 수경사 | 49.6.20 | 권준 준장 | 3,8기갑연대 | 서울 | |

*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³⁵⁾

1948년 5·10선거의 실시로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가 당선됐다. 그가 귀국하여 조직한 독립촉성국민회가 그의 유일한 세력이었으나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한국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 이승만이 믿을 수 있는 조직세력이란 순수하고 직선적인 청년들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승만은 전국에 산재한 청년단체들을 한 데로 통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청년단이다.

1948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 결성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수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된다. 총재로 추대를 받은 이승만은 국가의 수호를 위해 청년들은 자기의 직분을 다할 것이며, 국가가 위급할 경우에는 최후까지 몸을 바칠 줄 아는 장부가 되라는 요지의 취임사를 했다. 이 날 채택된 선언 및 강령은 다음과 같다.

35)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1993 166-171쪽 요약.

〈선언문〉

- 一. 우리는 총재 이승만 박사의 명령을 절대복종한다.
- 一. 우리는 피와 열과 힘을 뭉쳐 남북통일을 시급히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천하에 선양하기를 맹세한다.
- 一.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공산도배를 남김없이 말살할 것을 맹세한다.
- 一. 우호적인 세계청년들과 제휴하여 세계평화 수립에 공헌할 것을 맹세한다.

〈강령〉

- 一. 우리는 청년이다. 심신을 연마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자.
- 一. 우리는 청년이다. 이북동포와 합심하여 통일을 완성하자.
- 一. 우리는 청년이다. 파괴분자를 숙청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자.

〈대한청년단가〉

강필주 작사 / 김성태 작곡

1. 백두산 정기 받은 배달민족의 / 정예를 다시 뽑아 한데 뭉치니 /
대해와 태산인들 두려울소냐 / 나라의 부름 받은 보람 있는 몸 /
새벽은 밝아온다 어서야 가자
(후렴) 찬란하다 조국의 반만년 전통 / 억만년 더욱 빛낼 대한청년단
2. 지축을 뒤흔드는 발굽소리도 / 우렁차다 붉은 피 뛰는 팔다리 /
세계에 선양하자 정의와 용기 / 3천만 꽃으로 이 한 몸 바쳐 /
이 땅에 평화의 종을 울리자
(후렴) 찬란하다 조국의 반만년 전통 / 억만년 더욱 빛낼 대한청년단
3. 동지여 기계 도는 일터로 가세 / 흙내 나는 농촌은 내가 맡음세 /
앞치마 닦음하게 누이도 가자 / 기름진 넓은 이 땅 푸른 3천리 /
우리 힘닿는 곳에 건설이 있네
(후렴) 찬란하다 조국의 반만년 전통 / 억만년 더욱 빛낼 대한청년단

그 후 이범석이 이끌던 민족청년단도 이승만의 강압에 못 이겨 대한청년단에 합류함으로써 대한청년단은 명실공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청년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단체에는 역전의 노장들이 다수 결집되어 있었고, 반공정신에 불타는 300만 단원을 과시하며 그 위세를 더해갔다. 그러나 대한청년단은 결성된 동기나 초창기의 운항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대한청년단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조직된 것이면서 영도자인 이승만 자신이 당시의 청년운동이나 간부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고, 그가 임명한 단장 신성모도 청년운동과는 무관한 해외에서 갓 귀국한 사람으로 이승만이 다만 자신이 믿을 만하다는 이유 하나로 중책을 떠맡게 되어 대한청년단은 출발부터 관제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만다. 그 결과 갖가지 병폐가 드러나는데, 이대통령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단체의 요직에 앉을 수 없었고 반면 백해무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줄만 잘 타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였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청년단은 이청천의 대동청년단 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었고 주동인물은 이성주, 김윤근, 윤익헌 등인데, 이성주가 치안국 사찰과장으로 옮겨 앉은 뒤 김윤근이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터라 민족청년단 계열이 제2대 단장(안호상)으로 들어앉았다는 사실은 기존 주도세력에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안호상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6·25가 터졌고 김윤근은 대한청년단 단장 겸 청년방위대 사령관직을 맡았다. 청년방위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직된 것이다. 이승만은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청년의 조직체인 대한청년단을 군대화하려는 구상 하에 그 명칭을 청년방위대로 하고 한청 간부들을 보병

학교에 넣어 단기훈련을 시킨 후에 향토방위와 아울러 접적전에서의 활용을 도모한 것이다. 그리하여 청년방위대는 형식상 군대식 편성과 직명을 부여받아 반군대식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결국 대한청년단의 별칭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청년방위대의 간부는 대한청년단의 간부가 그대로 맡아보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은 북진 시 서북청년회의 재건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남과 북의 지역적 대립으로써 민족분열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 대한청년단 북한총단부라는 명칭으로 대공투쟁에 헌신,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민들의 피난과 물자이송 등 긴급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사전대책을 취하게 된다. 그 가운데 14후퇴 15일 전에 국민방위군 설치령을 공포하는데, 이것은 당시 제2국민병 해당자인 만17세에서 40세까지의 장정 약50만 명을 집단적으로 남하시켜 방위군에 편입 훈련하여 적과 맞서 싸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청년단에 부여되었는데, 안호상의 후임으로 단장이 된 김윤근이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겸하는 한편 윤익현이 부사령관이 되고, 박경구가 참모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대한청년단은 부사령관인 윤익현에 의해 이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김윤근의 성격이 큰일을 도모하거나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상황 때문이었다.

어찌되었든 국민방위군은 수십만의 제2국민병을 인솔·후퇴시키는 한편 온양에 방위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간부를 교육하고 각처에 교육대를 설치하여 제2국민병의 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이들에게 있어 과중한 짐이었다. 교육대에 수용된 수많은 청년들이

혈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마당에 사령부의 몇몇 간부들은 나태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결국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고 단체가 해산되는데 이어 김윤근, 윤익환 등 간부 5명이 처형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한청년단을 재수습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에 들어 안호상을 다시 대한청년단장으로 임명했다. 안호상은 무너진 대한청년단 조직을 재건하고 전투조직을 편성하여 지리산 토벌작전에 협력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이 견제를 받자 민족청년단 계열이었던 안호상도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유지원이 5대 단장으로 피선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한청년단은 4분5월 되고 간부들은 자유당으로 몰려가 정치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1953년초 이승만 대통령은 민병대를 창설, 이들을 향토방위에 임하게 했다. 민병대 사령관에 신태영이 임명되어 전국 청년들을 여기에 규합시켰다. 이승만은 드디어 9월 10일 대한청년단의 해산을 선포하고 청년단원들은 민병대에 편입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 국민방위군³⁶⁾

1950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현역군인, 경찰, 학생을 제외한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장정들(대상인원 60만 명)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될 계획이었으며, 즉

36)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운동 연구」, 『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186-187쪽.

시 경상남북 일대에 51개 교육대가 창설되었다. 방위군은 1951년 14 후퇴를 당하는 위기상황에서 각 교육대에 입소하기 시작하였다.

방위군은 대한청년단을 모체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현역장교는 본부의 간부 몇 명과 교육대장 및 극소수의 기간요원들 뿐이었고, 대부분의 간부요원은 20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예비역 장교로 임관시켜 확보하였는데 대한청년단 요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위군 입소교육 시 관계간부들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장정들이 아사와 질병으로 희생당하게 되어 방위군은 불가불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육본에서 조달된 자금과 양곡이 도중에 방위군사령부에서 일부 횡령되었고 교육대에서도 일부 횡령되었다. 결국 1951년 2월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폭로되어 마침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육군 헌병대에서 조사하게 되자 동년 3월초 방위군은 실질적으로 해체되어 예비군단에 편입되고 있었다. 방위군은 3월말경에 대부분 해체되었고, 4월 30일에는 그 해산에 관한 법령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산되었다.

육본은 해체된 국민방위군을 대상으로 하여 제5군단(예비)을 창설하였다.

* 국민방위군²³⁷⁾

국민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철수한 유엔군의 후퇴가 계속되자 정부는 국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요병력을 조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기로 결

37)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334-336쪽 요약.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2월 21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고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 1) 국민으로서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 2) 국민방위군은 지역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편성할 수 있다.
- 3) 국민방위군은 육군총참모장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 정치운동이나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 4)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군 작전상 필요시에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 5)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두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등급은 육군의 편성과 직위에 준하게 한다.
- 6)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육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김윤근 준장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방위군 사령부를 편성하였으며, 그 병력은 50여 만 명에 달하였다.

이때 국민방위군은 대체로 군 현역에 준하여 편성되었고, 사령부 예하에는 교육연대가 전국 51개소에 설치되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을 수용했다. 사령부의 몇 간부와 일부 교육연대장, 그리고 극소수의 기간요원만 현역이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청년단 출신의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장병들의 대부분이 농촌 출

신이었고, 또 장교 중에는 정규군 기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하순에 서둘러 편성되었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14후퇴와 더불어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방위군 사령부는 대구로 이동하고 지역방위군은 지역별로 남하하여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재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동간 방위군사령부 고급간부들이 방위군의 이동과 수용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금, 양곡, 피복, 의료품, 기타 보급자원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수많은 방위군이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외병 또는 탈주자 심지어는 아사, 동사, 병사자까지 생기는 등 대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유명무실하게 된 국민방위군은 그 창설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 6.25 발발 직전 남한의 군 작전 상황³⁸⁾

5월-6월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1950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기용된 채병덕 소장은 4월에서 6월에 북한군의 동향과 국내정세를 고려하여 세 번에 걸친 경계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4월 21일에 인민군과 게릴라들이 노동절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각 사단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관찰지역 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5월 8일에 적이 5월 30일 선거의 혼란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후하여 각 부대로 하여금 비상소집 및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북한의 6월 7일

38)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223-4쪽.

남북한 선거제의, 6월 10일 요인교환 제의 등 강화되는 평화공세가 남침을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월 11일부터 군에 비상경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자 6월 23일 24시부터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더구나 한국군 총참모장 채병덕은 6월 10일 고위장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8개 사단장 중 5명이 경질되었으며, 전방에 배치된 4개 사단 중 3개 사단장이 교체되었다. 새로 임명된 사단장들은 그 에하부대의 책임지역 내 지형과 적정 등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간 45일이나 지속되던 오랫동안의 경계태세가 해제되자 다음날인 24일(토요일)에는 부대가 외출외박을 실시했고, 또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1/3에 해당하는 병력이 주말에 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 6.25 직전 북한군 상황³⁹⁾

전쟁 전 인민군은 10개 사단을 보유했다. 독립전차연대를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기존의 기갑연대와 더불어 T34 전차를 총240대 보유했다.

내무성 관장의 보안대도 증강하여 치안은 물론 38선의 국경경비도 강화하였다. 1947년 7월 보안대를 중심으로 사리원에 38경비대를 창설하여 38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1948년초 38보안여단으로 증편되었고, 1949년에 38선 경비부대를 3개 여단으로 증편하여 죽천(제3

39)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161-163쪽 요약.

여단, 48년 9월), 시변리⁴⁰⁾(제7여단, 49년 1월), 간성(제1여단, 49년 5월)에 배치하고 38도선 경비를 분담시켰다. 또한 철도보안대 후신으로 창설된 철도경비대대는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증편되어 철도경비를 담당하였고, 압록강두만강변의 국경경비를 전담하는 국경경비제5여단(평양, 49년1월)도 편성되었다.

그 외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회령에 제 766부대를 편성하여 유격대를 육성하고 1950년 4월 청진에서 기동정찰용 제12모터사이클연대를 창설하였다.

* 6.25 때 동해연안 조선인민군 작전⁴¹⁾

제1경비여단은 제5보병사단 예하 제10보병연대, 포병대대 및 자주포대대와 협동으로 동해연안의 도로 및 소로를 따라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근 임무는 원일전리, 동산리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후 양양 동남쪽의 482고지(원일전리 남방5km 고적치), 향동, 지경리 선까지 진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단의 임무는 퇴곡리, 동덕리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선두부대들은 강릉 서북방 지역에서 육전대와 합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해군은 동해연안의 강릉남방지역에 육전대를 상륙시키며, 상륙한 육전대는 적의 지원병력이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대들과 합동으로 강릉북방에서 적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40) 오늘날 양양군 두창시변리에 해당한다.

4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74- 177쪽 요약.

- 여단을 2개 제대로 편성한다. 제1제대는 7개 보병대대로, 그리고 제2제대는 제5보병사단 예하 제10보병연대로 편성한다.
- 제1, 제2 및 제3보병대대는 귀둔리(한계령 남방9km), 공수전리, 내현리 선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있는 도로 및 소로를 통하여 진격한다.
- 제6보병대대는 (인제군) 원대리 선으로부터 갑둔리(인제 남쪽16km)로 진격한다.
- 제4, 제5보병대대는 하추리, 귀둔리 선에서부터 진동리 지역의 현리에서 하남리 방향의 내린천 계곡을 따라 진출하여 제6보병대대와 합류한다.
- 여단의 제2제대인 제10연대는 동해연안을 따라 진격하여 제1, 제2보병대대의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5시 40분경부터 적 토치카에 대한 사격을 실시한 후에 여단 예하부대들이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적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아침 10시 무렵 주공 방면(해안방면)에서 여단 예하부대들이 3km내지 5km를 진격하여 시변리를 점령하였다.

제4,5,6보병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면서 느린 속도로 진격을 계속하여 아침 10시 무렵에는 1km 내지 1.5km 전진하였다.

오후6시 무렵 동해연안을 따라 진격하던 여단 예하부대들은 광진리, 향동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주문리 지역과 인접 고지의 적으로부터 조직적인 화력저항을 받았다.

6월 26일 아침부터 여단 제2제대가 동해연안에서 전투에 투입됨으로써 오전10시 무렵 동덕리에서의 적 저항이 제압되었고, 여단 예하부대들은 연곡천 남쪽천변으로 진출하였다.

여단은 6월 28일 새벽4시부터 강릉 공격을 재개, 저녁8시 무렵에

강릉을 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당시 제10보병연대는 상시동리를 점령한 후 육전대와 합류하였다. 6월 29일 제2보병사단 제10연대는 관할지역을 여단에 인계하고 자기 사단으로 복귀하였다. 1950년 7월 2일에는 삼척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 전선에 걸쳐 공격 구성군에 부여되었던 제1단계 임무는 5일을 지체하면서 1950년 7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 의용군⁴²⁾

1950년 7월 1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동원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1)전지역에 걸쳐 동원을 선포 2)동원대상은 1914년-1932년(18-36세) 사이의 전체공민 3) 동원령은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등이었다. 이에 따라 남한점령지역 내에서도 대규모 인력 및 물자 동원이 실시되었다.

북한의 인력동원은 보충병 및 신설사단에 필요한 의용군, 보급품 수송을 위한 노무단, 그리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치안여단에 필요한 인력, 이외에도 파괴된 시설, 도로, 철로, 교량 등의 복구를 위한 노무동원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군을 위한 식량, 옷감, 연료 등의 물자동원을 실시하였다.

남한점령지역 내에서의 의용군 동원은 3단계로 나누어져서 실시되었다. 7월 1일~6일 사이에 실시된 제1단계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좌익계 정치범과 자칭 공산주의자 그리고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원한 지원병들이었다.

42)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40-42쪽 요약.

그러나 제1단계에서 북한이 설정한 목표만큼 의용군의 지원숫자가 미치지 못했다. 이에 7월 10일경 북한은 보다 강제성을 띠게 되는 제2 단계 징집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인민위원회, 기업체, 학교 등에 징집대상 숫자를 할당하는 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징집해야 할 숫자를 할당받은 각 단체들은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인원을 파악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강제징집 하였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가 치열해지고 북한군의 보충병이 절실해지자 8월초부터 북한당국은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제3단계 징집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좌익계 단체(민청, 노동동맹 등)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거리의 요소에 배치시킨 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검문하게 한 반면, 철저한 가택수색도 실시하게 하였다. 장애자가 아닌 17세~45세의 모든 남녀들은 현장에서 징집되었다.

의용군에 강제로 입대된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 등에서 집체훈련과 화기작동법 그리고 공산주의 노래 등을 교육받았다. 초기 자원입대한 의용군들은 일부가 북한의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북한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의용군들은 약 3일~7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전선으로 이동하였는데, 통상 약 1천여 명으로 대대를 구성하여 이동하였다.

이동은 주로 야간에 도보행군으로 실시되었으며, 주간 동안에는 유엔항공기를 피해 숨어있었다. 이들은 모두 비무장이었으며 북한군 도망방지요원들이 항상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 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⁴³⁾

북한이 남한 점령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착수하고 정성을 쏟았던 정책은 토지개혁이었다.

1950년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총11개조의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정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에 발표한 총17개조의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었다. 다만 몰수대상이 북조선법령에서는 일본국가, 단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민족반역자(친일파)에 한한 반면, 정령에서는 남한정부 및 단체 소유의 토지, 미국인 소유의 토지, 친일파, 친미파, 그리고 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 무상몰수 무상분배 2) 남한정부, 기관, 지주(자작할 수 있는 토지 5정보~20정보 제외)의 토지 몰수 3) 분배량과 방법은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및 토지 적은 농민의 총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실시 4) 토지관련 부채, 세금, 부담금 및 공출제, 소작제 폐지 5) 농업현물세 북한과 동일하게 납부(1950년 조기작물 제외) 6) 5명~7명으로 농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촌위원회가 몰수토지 조사 및 분배안 작성 등으로 되어 있었다.

북한 법령에서는 토지소유 상한선을 5정보(15000평)로 제한한데 반하여 정령에서는 5정보~20정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자작농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령에서의 토지개혁의 주체는 인민위원회인데 반하여, 정령에서는 농촌위원회가

43)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30-39쪽 요약.

되었다. 이는 남한의 빈농들에게 토지개혁의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율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실행하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북한의 통제 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1950년 8월 18일 북한내각은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 농업현물세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조기작물(보리, 감자 등)에 대해서는 1950년도에 한하여 현물세를 면제하고, 만기작물(벼, 콩 등)에 한해서는 현물세를 징수 2) 논작물은 수확고의 27%, 밭작물은 25%, 화전 재배작물은 10%의 현물세를 징수 3)자력으로 개간한 3년 미만의 신규 개간지는 면세하고 전쟁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그 정도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4) 농작물 판정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리에는 농작물 관리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은 리의 농민대회에서 선출 5) 각도(서울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현물세 징세서를 제3기 작물(조, 피, 수수, 옥수수, 연초 등)에 한해서는 9월 15일까지, 제4기 작물(수도, 옥도, 대두, 소두, 기타 두류, 면화, 소채, 과일 등)은 10월 10일까지 농민들에게 발부하고, 제3기 작물은 10월 15일까지, 제4기 작물은 12월 5일까지 각각 징수 완료할 것 등이었다.

판정요원들이 지나치게 세밀히 수확고를 판정하고(보리, 밀, 메밀 등은 전부 낱개를 세었고, 과일도 낱개를 세어 현물세를 판정하였다.) 일부는 재배단계에서 예상 수확량을 산출하여 현물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내각 결정에 의하면 현물세는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고 전선에 대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현물세 조기납부운동 등을 전개하여 조기납부를 강요함으로써 많은 농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 대한청년단의 무장 시도⁴⁴⁾

이대통령은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장비제공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장면 주미대사는 12월 6일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무부는 미국이 유엔군에 대한 장비개선도 부담하고 있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무렵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이임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장면대사는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사실 이 무렵 유엔군의 추가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국 역시 추가 파견할 가용부대가 없어 유엔군의 전력보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 확장이 유엔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이 미 국무부에 의해 고려되기도 하였다.

무기지원의 필요성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미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미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이 계획에 찬성하였다. 무기의 가용재고를 조사한 후 그 위원회는 7만5천 명~10만 명의 한국인을 특수부대로 조직하여 병참선을 경계시키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로 운용토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기존부대의 임무수행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의 창설에는 이점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한청년단은 기존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였다.

결국 미국정부는 극동군사령관의 판단을 수용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대한청년단의 무장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44)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336-337쪽 요약.

* 수색대대(45)46)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하고 있던 국군 제8사단에서는 북한지역에 있는 반공치안대원 1300명을 수색대대로 편입시켰다. 이들은 전쟁 전부터 북한지역에서 반공투쟁을 했던 사람, 전쟁 후 인민군 징병거부자, 천도교 청우당이나 민주당원 등이었다. 이들은 기존병력과 함께 9개 중대로 편성하여 운용했다. 신입대원들은 지역별로 조직하여 계급을 임시로 부여받았다. 소대장급 이상은 장교 계급을 상실했으나 장교가 보병학교에서 임관하는 만큼 인사규정상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사 이하는 사단장의 특명으로 운용되었고 후에 일부는 현지임관으로 장교가 되었다. 이 대대는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수색대대를 운영했다. 이 수색대는 북한지역에서 활동했던 반공치안대원들을 주축으로 편성되어 정규군 사단편제와 달리 비정규군의 민병대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 38선 돌파에 대한 정부의 입장(47)

9월 30일 국군 제3사단이 울진·삼척·강릉을 거쳐 38선에 도달하고 수도사단이 영월·평창을 거쳐 38선에 도달하자 38선 돌파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45)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126-127쪽.

46) 박창암은 수색대대장으로 참전하게 된 경위를 밝힌 글에서 수색대대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각 사단에는 편제상 1개의 수색중대가 있다. 그러나 보병8사단에는 전시에 유일하게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이른바 증강된 수색대대로 공칭하여 운영되었다. 이는 정규군 사단편제와 전연 다른 것이었으며 편성 경위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비정규군의 민병대 성격이 강했다고 토로했다. 박창암, 「보병 제8사단 수색대대의 6·25 실전비화」, 『월간 자유』, 성우회 안보연구소, 2002.9, 62쪽.

47)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용,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70-80쪽 요약.

감행할 경우, 북한 정권을 비호하던 소련이나 중공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의 여부와 개입할 경우,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38선 돌파문제는 세계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통일촉진국민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3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유엔군이 한만 국경까지 전격돌진하여 완전통일을 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승만은 9월20일 부산에서 거행된 인천상륙경축대회 석상에서 38선을 넘어 북한 주민을 공산치하에서 해방시켜, 통일한국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여 발표하였다.

38선이 분단의 선이 될 수 없고 전통적인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한 국경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1947년 11월 14일자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결의에 따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38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38선을 돌파하여 북한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총사령관에게 유임되어 있었으므로, 유엔사령관의 명령 없이 국군 단독으로 38선 돌파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육해공군 총사령관인 정일권 소장을 불러 국군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 제1군단만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7월 중순 트루먼 대통령은 남한에서 북한군을 괴멸시킨 후의 정책에 관해 연구하라고 국가안보회의(NSC)에 지시하였고, NSC는 9월 1일 NSC81(각서제81호)을 완성하였다. 이 NSC81은 6월과 7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공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군사작전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들어있었고, 궁극적으로는 38도선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구도로 되어 있었다. 이에 합참은 9월 7일 NSC에 NSC81이 비현실적이라는 합참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합참의 주장인 북한에서의 군사작전 실시에 대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는 NSC81-1이 9월 11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정책에 의해 9월 15일 합참은 맥아더 장군에게 예비훈령을 하달하고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극동사령부는 9월 27일 훈령을 받은 후, 9월 28일 북한 북진계획을 합참에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합참이 보고한 이 맥아더 장군의 북진계획을 9월 29일 승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과정을 살펴보자.

동부지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38선 돌파명령을 정일권 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을 목표로 10월 1일 양양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 사령부도 미 합참본부의 9·27훈령에 따라 북진작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일 미제8군사령부에 북진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작전명령을 하달받은 미제8군사령부는 다음날인 10월 3일 예하부대에 제8군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비록 국군이 우리 정부의 단독돌파결정에 따라 10월 1일에 이미 38선 돌파를 시작하고 있었으나, 이는 9·27훈령에 의해 38선 돌파명령이 유엔군에게도 하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과 국군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 없이 양해가 이루어

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동부지역에서는 국군제1군단이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7일 함흥을 탈환하였다. 미제10군단의 원산상륙은 10월 26일에서야 시작되었으나 미제10군단장은 10월 20일 헬기로 원산비행장에 도착한 후 그 곳에 군단지휘소를 설치하고 한반도 동부지역 작전책임구역과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미제10군단의 예하 부대인 국군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 미제1해병사단, 미제7사단, 미제3사단 등은 각각 책임지역을 할당받아 후방경계임무와 북진작전을 계속하여 11월말경 장진호-해산진-부령, 부거에 이르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 국군의 38선 돌파결정(1950년 10월 1일)⁴⁸⁾

유엔군측은 9월말 9·27훈령에 따라 은밀하게 38도선 돌파작전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결의안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정부는 9·28훈령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북진명령이 하달되지 않자 대단히 초조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무초 대사는 중공과 소련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38도선 돌파를 조용히 수행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중앙청에서 거행된 환도식이 끝난 다음 맥아더 장군과의 대화에서 심각한 얼굴로 “지체 없이 북진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 자신의 주장에 맥아더 장군이 “유엔이 38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휘하부대를 데리고 기다릴 수 있지만 국군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니오? 여기

48)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1995, 493-496쪽.

는 그들 국군의 나라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국군은 북진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런데 이 날 워커장군이 “제8군은 재편성을 위하여, 그리고 돌과 명령을 대기하기 위하여 38선에서 정지할 예정이다”라고 기자들에게 통지하였다는 보도가 나돌았다. 이는 이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상하게 하고도 남았다.

이와 같이 38선 돌파사안을 두고 피아간의 대립은 물론 한미간에도 정략상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전선에서는 국군의 추격전이 맹렬하게 전개되어 9월 29일에 국군제3사단이 강릉으로 치닫고 수도사단이 대화까지 진출하는가 하면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충주와 단양을 점령하여 38선을 하루 진격거리에 두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지체 없이 북진을 하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단안을 내리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독자적인 주권과 통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심 하에 이 날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육본에 들러 육군 수뇌부를 긴급소집 하였다. 대통령 앞에 정일권 육해공 총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자는 맥아더 원수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고 질문한 다음, “유엔은 우리가 38선을 넘어가서 국토를 통일시킬 우리의 권리를 막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국군에게 북진을 시킬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정일권 총사령관은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이미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문서에 의해 유엔군총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으므로 지금 또 다시 이중으로 명령을 하시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북진에 관해서는 유엔에

서도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관의 의견은 단지 군사지휘계통과 관련시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대계로 보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희들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참모들도 총사령관의 의견에 동의하자 대통령은 품안에서 명령서를 꺼내어 정일권 총사령관에게 주면서 “북진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는 ‘내가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고 쓰여 있고 끝에는 ‘晩’자의 서명이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정일권 총사령관은 단독으로 북진하기를 결심하고 우선 제8군사령관을 만나 일단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38선 돌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그는 이미 강릉에 전진하고 있는 국군 제1사단 김백일 준장에게 연락하여 “38선 북쪽에 어느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아군이 진격하는데 큰 손실을 입게 될 만한 고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얼마 후 제3사단 정면 38선 북쪽(하조대)에 그런 곳이 있다고 회전이 왔다.

이 보고를 받고 정일권 총사령관은 즉각 제8군사령관을 방문하여 “제3사단이 38선 바로 북방에서 적의 치열한 사격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득이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겠다”고 말한 다음,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38선에 기하학적으로 뚜렷한 선이나 어떤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를 공격하게 하여 달라”고 역설하자 위커장군도 쾌히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9월 30일 정일권 총사령관은 강릉의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38선에 도달한 제3사단 제23연대의 진지에 나가 전선을 둘러본 뒤 38선 돌파를 군단장에게 구두로 명령하였다. 북진명령은 최초

구두명령에서 성문화된 작명으로 작성되어 제1군단 작명 제103호와 제3사단 작명 제44호로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은 195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역사적인 38선 돌파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0월 1일의 38선 돌파결정은 이대통령의 결단과 북진명령, 정일권 총사령관의 적절한 조치에 의해 한미간에 큰 마찰 없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38선 돌파의 선봉을 국군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날 하달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2호에 의해 뒷받침이 이루어졌고 유엔군은 10·7유엔결의 후 북진작전에 돌입하였다.

* 양양-간성 진격전(1950년 10월)⁴⁹⁾

① 양양-간성 진격전의 개요

양양-간성 진격전에 있어서 아군 제 3사단(사단장 준장 이종찬)은 적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38도 분계선을 넘어 양양으로 돌입, 후방에서 교란전을 펼치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면서 간성으로 진격하였다. 38도 분계선을 넘어 북진한 아군은 전방으로부터의 저항과 설악산 등지로 은거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원산을 향해 계속적으로 진격하였다.

② 양양-간성 진격전의 주요 지휘관

- 아군 :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 제3사단장 준장 이종찬, 제22연대장 중령 김응조,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 제26연대장 대령 이치업

49)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 적군 : 제2군단장 중장 김무정, 제5사단장 소장 마상철

③ 작전계획

본 양양-간성 진격전의 작전 계획은 1군단 작명 제109호에 의거 수립되었다.

〈1군단 작명 제109호〉

1. 군단은 차기 작전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북진하려 한다.
2. 수도사단장은 즉시 예하부대 병력을 집결시켜 평창-광원리-서림가도를 전진하여 차기 작전을 준비하라.
3. 제 3사단은 현재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도 분계선 이북 진출을 용이케 하라. 진출 후 양양-인북천의 도로망을 급속히 조사, 보고하라.

이에 따라 제 3사단장은 적을 급속히 추격하여 38도 분계선 개설지에서 지연됨이 없이 일거 양양을 점령하고 적이 최종적인 결전을 기도하리라고 판단되는 원산을 목표로 북진할 결심을 하였다.

④ 양양-간성의 진격전(1950년 10월)

• 10월 1일

이 날은 일요일이자 쾌청한 날씨였다. 사단 작명에 따라 사단 선견연대인 제23연대(연대장 대령 김종순)는 제3대대(대대장 소령 허형정)를 선두로 05:00에 양양을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10:00에 제3대대의 선두가 상구면 영고리(50)에 이르렀을 때, 우측방의 적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서 대대는 1시간여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적 25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한 외에 기관포 3문, 수냉식 기관총 2정, 체코식 경기관총 2정, 장총 12정, 및 다발총 2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둔 다음 양양에 육박하고 있었다.

• 10월 2일

이 날도 쾌청한 날씨였다. 공격 제대인 제23연대의 주력 부대는 10:30에 숙영지를 출발하여 14:00에 목표인 양양에 저항 없이 돌입하였으나, 그 곳 뒷산으로부터 적의 경미한 반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서림-양양 가도를 진격하는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대령 임충식)도 양양의 서측으로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양양을 탈환한 연대의 주력부대는 북으로 진군을 계속하여 17:00에는 강선리에 진출하였고, 춘양 방면으로 출동하였던 제1대대(대대장 소령 김심영)는 9월 29일 양양으로 이동해 왔으며, 연대 본부는 전날 20:00 묵호항을 출항하여 이 날 미명, 주문진에 도착하였다.

제26연대(연대장 대령 이치업)는 전날 밤 23:00, 주문진을 출발하여 이 날 18:30에 38도 분계선을 넘어 양양에 돌입한 다음, 제23연대와 함께 17:00에 강선리로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강릉 경비의 임무를 끝내고 전진 부대의 뒤를 이어 양양에 이동, 집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강릉에 주류하였던 사단 공병대대도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양양 선에서 저항을 기도하였던 적의 주력 부대는 간성으로 퇴각하였고, 그 일부는 양양 서북쪽에 솟아 있는 설악산으로 진입하였다.

50) 오늘날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오타로 보인다.

• 10월 3일

사단은 전방 지휘소를 양양으로 이동시켰고, 주력 부대는 계속 원산을 지향, 북진을 감행하였다.

전날 제23연대의 후속 부대로 전진한 제26연대는 이 날 강선리에서 제23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12:50 무난히 간성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는 제26연대의 뒤를 이어 진격하였는데, 간성에서 동 연대를 초월한 다음, 패퇴하는 적을 추격한 끝에 12명을 사살하고 10명을 포로로 하였고, 소련식 장총 3정, 수냉식 경기관총 14정, 체코식 경기관총 11정 등을 노획하였으며, 18:00 거진리(간성 북쪽 10km)에 집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 본부도 이 날 06:00에 주문진을 해로로 출항하여 속초항에 상륙하였다.

사단의 공병대대는 이 날 양양을 출발하여 간성으로 이동하였으며, 포병대대는 변동 없이 각 연대를 지원하면서 일면 약진과 일면 포진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 날 양양의 사단 사령부는 03:00에 일반 명령 제3호에 의거하여 사단 수송중대를 편성하였고, 그 초대 중대장에는 홍두호 소령을 임명하여 명실 공히 수송 임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군단 사령부에서도 아군의 급속한 진격으로 산악지대에 잠입하였던 적병들이 수시로 아군의 후방에 출몰하여 군용차량을 비롯하여 지서와 주요시설 등을 습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섬멸할 목적으로 제3, 제5유격대를 편성하여 군단 직할로 두었으며,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이 날 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치 소장 등과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작전 전반에 관한 토의를 했다.

⑤ 양양-간성 진격전의 결과

10월 1일 38도 분계선상에서 북진을 개시한 사단은 1일 평균 24km의 진격속도로 총 연장 168km에 달하는 고저선에까지 진출하였다.

기간 중 사단은 후방에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정면으로 충격하지 않고 그대로 분단하면서 상호간의 연락이 중절되는 가운데 주야로 도보, 또는 차량에 의해 북진을 계속하였거니와 그 중 대다수의 병력이 군화마저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피가 흐르는 맨발로 강행군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실지 회복으로 사단의 사기는 날이 갈수록 양양되 기만 하였다. 사단의 정면에서 패퇴한 적 제5사단은 2400명 규모의 병력으로 박격포와 76mm직사포로 계속 저항하였고, 도로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선두 차량은 심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적은 상호 연결된 참호나 동굴, 또는 병커에 의지하여 사단의 진격을 저지, 또는 방해하려고 끝까지 완강한 저항을 되풀이하였으나, 사단의 돌풍 같은 북진 위세를 능히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 무지개 부대 동해안 파견대⁵¹⁾

제1군단에 배속되어 활동하던 제5유격대는 군단의 북진경로인 영월, 진부, 강릉, 양양으로 북상하면서 잔적들을 소탕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적의 근거지를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원의 규모가 950명이었으나 대원 절반이 일제99식 소총으로 무장했을 만큼 장비는 취약했다.

1950년 11월초 대대장은 미리 수색대원을 설악산 지역으로 파견하여 적정을 파악한 후 부대원 가운데 김병호 중위, 오정길 상사 등 70

51)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87-91쪽 요약.

명을 선발하여 양양을 출발했다. 설악산 방면의 화일리와 양지말을 각각 기습하여 적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현지 자위대원은 길안내를 지원했다.

육군본부 작전국 신경전과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피난 나온 무장대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담당하는 을지제1병단과 서해안을 담당하는 을지제2병단을 조직했으나, 곧 미군에게 인계했다. 제1병단의 경우 관련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육본에서 보다 체계적인 특수부대 혹은 유격대가 창설된 것은 1952년 초에 이르러서였다. 육본 작전교육국장 이용문 준장이 특수부대 창설을 계획하여 9172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의 주역은 무지개부대로 편성되어 서남지구와 제주도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일부는 동해안지역에서 대북작전을 수행했다.

동해안 파견대의 책임자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양치호 대위였고, 보급관은 김이남 대위였다. 파견대는 4개 소대로 편성되어, 1개 소대 규모는 10명 규모였다. 동해안 파견대는 당시 속초에 주둔하고 있는 커크랜드 부대와 갈등을 일으키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로 이동했다. 1955년 5월초 경기도 소사에서 해산되었다.

* 양양-서림지구 전투(1950년 12월)⁵²⁾

① 양양-서림지구 전투의 개요

아군 및 우군은 중공의 침략으로 전 전선에서 축차적인 철수를 단행하여 38도 분계선 부근인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선

52)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에서 전재.

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동부전선에서도 춘천 북방-양양을 잇는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양양-서림지구 전투는 이 지역의 전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한 아군 1군단이 남침하는 적과 오대산 등지에 은거하며 출몰하는 유격부대를 격멸한 전투로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이후 전 전선의 상황에 따라 전선 정리를 위한 준비에 임하게 되었다.

② 양양-서림지구 전투의 주요 지휘관

- 아군 :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 제1연대장 대령 한신, 제1기갑연대장 대령 김동수,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
- 적군 : 북한군 제2군단 소속 제 2전선부대, 제10사단, 제12사단, 제69여단, 길원팔유격부대

③ 양양-서림지구 전투의 진행과정

제 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예하 각 부대를 12월 10일~18일 사이에 흥남에서 부산 및 목호 등지를 목표로 각각 해상전진케 한 다음 강릉에 개설된 군단지휘소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전황추이의 검토와 이에 대한 작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작전참모를 위시한 여러 참모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

즉 전진작전을 끝마친 다음 군단 임무는 육본작명 제251호의 수정 명령인 훈령 제5호의 요지와 같이 동부 38도 분계선 부근의 공세방어 진지의 점령과 이에 따른 적 제2전선의 유격부대를 격멸하고 이어 중공군을 포함한 적 주력부대의 남침을 현 진지에서 격퇴하는 임무가 그 주제이었다.

- 12월 21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이 날 강릉에 있는 사단지휘소를 주문진으로 약진개설하고 이미 전날 하달된 사단 작명 제116호에 의하여 예하 제1연대(연대장 대령 한신)를 주문진 점령부대로, 제1기갑연대(연대장 대령 김동수)를 주문진의 예비진지 점령부대로, 그리고 제26연대(연대장 대령 서정철)를 사단 예비대로 각 담당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 12월 22일

사단 전면의 적은 산악지대에서 유격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중복 및 산간암석지대 등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보급로 주변에 출몰하여 아군의 보급운송을 방해하려고 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사단장은 사단 북쪽 전선에 진출하여 있는 제1연대가 장차 예상되는 적 주력부대의 남침에 계속 대응토록 하고 나머지 제1기갑연대 및 제26연대는 군단의 후측방 지대인 하진부리~대화 부근을 경비하는 동시에 주로 사단 서측방 작전지역인 오대산 부근의 적 유격거점에 대하여 위력수색전을 펴게 하였다.

- 12월 23일

제1연대장 한신 대령은 양양 북쪽 일대에서 수색정찰대가 적정 정찰 결과 어떠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제보를 연대 작전주임으로부터 받은 결과, 연대 주력을 양양 북쪽 진지로 진출시켜 더욱 유리한 주문진을 점령코자 기도하였다.

- 12월 24일

양양 서쪽 4~5km 일대까지 전술적 전개를 완료한 제1연대는 그 주

력인 제1 및 제2대대가 금풍리-장승리선에서 진지를 강화하며 수색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는 양양 남쪽 2km지점인 하왕도리 부근에서 약 2km 서진하여 우암리 부근으로 진지를 이전점령한 다음, 연대 후측방 경계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1기갑연대도 전날의 진지에서 점차 서쪽으로 진지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즉 연대 주력이 상광정리에서 3km 서쪽인 326고지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제26연대는 주문진-송천선에서 對유격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 예하 3개 연대는 각각 더욱 유리한 주진지 및 예비진지를 점령함과 아울러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면서 수색활동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날도 사단 주저항선 일대인 양양 북쪽 수여리-금풍리선에서는 적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단 우인접 제9사단 29연대 지대였던 서림리 부근에서는 이 날 일몰을 기하여 적의 야습이 있었는데 이는 수도사단과 제9사단이 진지를 교대할 때에 일시로 생긴 부대간의 공백을 틈타 적 유격대가 오대산 일대로 잠입하려는 계획의 하나였는데 이때 제29연대는 일시 형세가 좋지 못하여 창촌으로 후퇴하고 있었던 때였다.

• 12월 25일

적 제2군단 소속으로 보여지는 수 미상의 제2전선부대가 이 날부터 급격히 침투공격을 기도하자 사단 인접 제9사단(사단장 준장 오덕준)은 38도 분계선 부근에서 이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즉 제28연대(연대장 대령 이창정)가 현리 남쪽을, 제29연대(연대장 고백규)가 현리-서림 부근을 각각 공격하게 되었는데 특히 전날 제28연대의 제2대대의 현리 철수에 따른 적의 침투를 동 연대의 제1대대가 막기 위하여 고사리에서 원대리로 진격하고 제3대대는 진목정에

서 하남리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리-서림 부근의 전황이 좋지 못하자 수도사단장은 예하 전 부대에게 진지를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반면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1기갑연대(연대장 대령 김동수)로 하여금 방어력이 결여된 서림지구를 담당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김동수 대령은 제2대대(대대장 소령 박익균)를 서림에 진출토록 하고 제3대대(대대장 소령 임권묵)를 서림리 북동쪽 정족산 일대로 진출토록 조치하였다.

• 12월 26일

군단 전면의 적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사단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가 서림지구로 급거 진출하게 되었는데 동 연대 제2대대가 이 날 먼저 약진하여 하서림리-조침령-상황피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3대대도 전날의 진지를 출발하여 서림동쪽인 면옥치-정족산(943, 933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사주경계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 연대 제1대대(대대장 소령 박경호)는 상광정리 부근 진지에서 다시 서진하여 어성전리로 이동하고 장차 서림지구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1연대(연대장 대령 한신)는 제1기갑연대의 서림리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양양 북쪽 금풍리-장승리선에서 서측 제1기갑연대의 진지와 연결하기 위한 전선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즉 제1대대(대대장 대위 함용익)가 장승리 진지에서 서림방향의 중간인 영덕리 부근으로 진지를 전환시켰다. 그리고 제2대대(대대장 소령 신언국)도 금풍리 진지에서 양양 남쪽의 하왕도리로 이동하고 남대천 남안에서 서측 우암리의 제3대대(대대장 대위 이성봉)와 평행을 이룬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전날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시도한 적 제2군단 소속 약 3,000

명 규모의 병력은 현리 부근에서 상남리를 향해 피상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9사단 28연대의 전황이 좋지 못하였다. 당시 제9사단은 창촌-청원리선을 확보하면서 제30연대는 다시 상남리 동측으로 우회하는 적을 공격하였고 제28연대도 현리 동쪽 1km지점인 321고지 부근에서 무명천을 사이에 두고 적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 사단은 제9사단 우익을 연결하는 서림리 부근에서부터 양양까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는데 수도사단이 제9사단 정면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그간 허점을 보여왔던 공간지대에 대한 병역배치를 완료한 셈이 되었다.

• 12월 27일

현리 부근에서 적 제2군단 소속 제12사단의 공세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고 있던 군단 좌익의 제9사단은 일시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면서 재공격을 수행하였다. 즉 동 사단 제28연대장 이창정 대령은 현리에서 일시 분산된 제2대대를 취합하여 1091고지에 진격시켜 군단 좌측방을 방어키로 하면서 연대 주력으로서는 현리를 직접 압박하였다. 그리고 제29연대장 고백규 대령도 하치전 북쪽에서 대치 중인 적을 반격하여 847고지 부근으로 격퇴하고 귀둔리 북쪽으로 주공을 지향하면서 추격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 현리 부근의 적은 오대산 부근의 적과 서로 연결하려는 저의로 보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단의 중앙전선이 돌파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황 아래 현리-오대산의 중간지점인 서림리 부근에서 차단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는 연대 주력을 서림리 부근으로 급히 집결시키고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적의 기도를 조기에 저지한

다음 즉시 격퇴하기 위한 활동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양양 남쪽 하왕도리-우암리선에서, 제26연대는 주문진과 송천동 부근에서 각각 전날과 다름없이 진지보강 및 수색전을 계속 펴고 있었다.

• 12월 28일

사단 좌인접인 제9사단이 현리 부근에서의 전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에게 예하 일개 연대를 현리 동쪽인 하치전 부근을 공격토록 명령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라 수도사단장은 서림리 부근에 진출하여 있는 제1기갑연대장에게 다음날 04:00부터 하치전 공격임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1기갑연대장 김동수 대령은 이미 서림리 부근과 정족산 일대에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2대대 및 제3대대 외에 연대후방 대대로서 어성리 북쪽 당산리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제1대대마저도 서림리 부근으로 급히 진출케 하여 연대 주력과 합세토록 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위한 모든 대책을 미리 강구하였다.

한편 사단 우일선전방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는 이 날 연대지휘소를 상운리에서 인구리로 옮기는 동시에 연대 주력은 전날과 다름없이 진지공사에 전념하였고 제26연대도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 12월 29일

제1기갑연대(연대장 대령 김동수)는 이 날 04:00부터 현리 동쪽 도채동 부근의 계곡에서 오대산으로 지향하려는 적의 주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가 서림리-진혹리-용덕리를 차례로 진격하고 제

3대대는 하서림리에서 출발한 다음 제1대대 진지를 초월하여 제1대대 서측을 연결한 진흥리-도채동에 진출하는 즉시로 진지를 점령하고 북쪽 및 서쪽을 경계하면서 위력수색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편 오대산 부근에서 對유격전을 펴고 있는 제26연대 3대대는 그간 송천동 일대에서 수색전을 전개하다가 이 날 06:00에 인접 제9사단 30연대의 작전지역인 창촌-광원리를 연하는 선과 연결하기 위하여 갈전곡 남쪽을 목표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날 적 증원부대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 전면인 한계리(원통 동쪽 적 예상퇴거지)에서 원통리-인제를 경유하여 그 길로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12월 30일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군단 좌익의 제9사단의 전황을 감안하여 강릉 부근에서 군단지휘소를 경계하고 있던 제1경비대대를 오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제30연대의 작전 지역으로 증원시키고 지난 28일 이래 현리-하치전 부근에 출몰하던 적이 제9사단과 수도사단의 접촉점에 생긴 간격을 뚫고 오대산에 잠입한 것을 격멸키로 하였다.

이러한 현리-오대산 사이에 생긴 적의 침습로를 중간에서 차단하면서 적을 분단하여 고립시켜 이를 각개로 격파하기 위한 전투가 제1기갑연대에 의하여 서림-현리 부근에서 전개되었는데 동 연대 제1대대는 이 날 진흥리-대동리간 및 점봉산 남쪽 기슭인 연덕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2대대(대대장 소령 박익균)는 광원리에서 서림으로 다시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는 연대 최선두 서측방 진격부대로서 현리 동쪽 5km지점인 도채동-방동리까지 진격하여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특히 제3대대 9중대(중대장 대위 이원훈)가 도채동에서 방동

리로 진격하다가 현리 부근에서 동향하려는 적 유격부대 50여 명을 발견하자 우선 기도를 비익하면서 산개하는 동시에 적을 유효 사정거리 내로 유도하고 난 다음 기선을 제압한 연속사격으로 이 적을 거의 격멸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은 불시의 공격을 받게 된 적은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로 그 잔여병력이 분산하여 도주하였는데 약 40분 뒤에 확인된 전과는 적 사살 18명을 비롯하여 소련식 소총 12정, 구구식 소총 5정 등을 노획하였고 이 근접전투에서 아군도 1명의 전사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한편 제1연대는 양양 남쪽에서 별다른 접적 없이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으며, 송천동에서 서진 중인 제26연대 3대대(대대장 소령 구태익)는 이 날 20:00에 대사리에서 적 유격대 1,000여 명을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뒤따라 치게 되자 적은 오대산 깊숙한 곳과 그 남쪽 평창 방면의 구릉지대를 향하여 도주에 도주를 거듭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 12월 31일

사단 좌일선 최전방에 진출하여 있던 제1기갑연대의 3대대는 전날에 이어 도채동에서 현리에 이르는 계곡을 수색 전진하다가 전날 흩어진 적의 재편성 부대로 추측되는 약 80여 명을 발견하고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선제공격을 가하였는데 이때 적은 그 공격을 늦추지 않고 저항하므로 이에 대대에서도 급속사격의 집중발휘로서 적의 기세를 꺾어버린 다음 돌진으로서 적을 분산시켰다. 이때 적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의 공격에 실패하자 8구의 시체를 버려 둔 채 황망하게 퇴거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아군도 1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이와 같이 현리-동측에서 제1기갑연대가 적과 대전하고 있는 동안 사단 우일선

의 제1연대는 양양 부근에서 특별한 걱정이 없는 가운데 계속 대기하고 있었으며 제26연대는 주문진 부근에서 사단 예비대 임무를 대행함과 아울러 동 연대 제3대대로서 오대산 남쪽 기슭에서 계속 정찰 및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의 전방 진출선은 동으로부터 금강리-영덕리-하서림리-진흑리-도채동을 연하는 선이었으며 제9사단은 창촌리-상남리-현리 부근에서 중심 깊은 진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④ 양양-서림지구 전투의 결과

아군 및 우군은 중공의 침략으로 전 전선에서 축차적인 철수를 단행하여 38도 분계선 부근인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는데 이 무렵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한국전쟁의 국지화와 중공군 격퇴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고 12월 30일에 미 제8군사령관 릿지웨이(Ridgway) 중장에게 명령하기를 “우군은 최소한의 손실로써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면서 현 진지를 방어하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작전개념은 한국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동부전선을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던 제1 및 3군단은 춘천 동쪽에 있는 미 제10군단 우측으로부터 동해와 접한 양양 부근까지 38도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다음 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특히 제1군단은 군단지휘소를 강릉에 개설하였고 예하 수도사단이 군단 우익으로 양양-서림-도채동을 이은 선에서 진지를 강화하면서 적 제2군단 주력의 남침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오대산 부근의 적 제2전선의 유격대를 격멸하여 그들의 남북연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춘천과 홍천 동북쪽에서 제12, 2, 10사단의 주력이 계속적으

로 남침하고 현리 부근의 전황이 악화되자 육본작명 제257호에 따라 동부전선 일대를 점령 방어하기 위하여 수도사단도 전선 정리를 위한 준비에 임하게 되었다.

* 대관령 확보 : 51년 1월의 상황⁵³⁾

국군 제1군단은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에서 중공군의 신정 공세를 받았으나 비교적 접적이 경미하여 38선 북쪽 진지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군의 전반적인 전선조정에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여 1월 10일경에는 송계리-삼척 선으로 철수하였다.

군단에 배속된 수도사단은 제1기갑연대(연대장 김동수 대령)를 좌전방 송계리 부근에, 제26연대(연대장 서정철 대령)를 우전방 목호부근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제1연대(연대장 한신 대령)는 사단에 비로 삼척부근에서 부대정비를 주력하였다. 전방연대들은 차후 공격에 대비하여 전후방지역에 대한 대대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으로 접적을 유지하였다.

적은 인민군69여단 및 길원팔 유격대 6천여 명이 강릉 부근까지 남하하여 강릉-구산리 선에서 방어와 유격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2월 3일 육군본부 작명262호(1951.2.2)에 의거 송계리-목호 선에서 주공인 제26연대가 강릉을, 조공인 제1기갑연대는 대관령-구산리를 공격하였다. 제26연대는 목호 부근에서 옥계로 진출하여 공격하였다.

제1연대 제3대대가 신속히 남대천을 도하한 후 강릉을 우회하여 북쪽의 죽현동으로 진출하면서, 후방퇴로차단을 우려한 인민군 69여단

53)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394-395쪽 요약.

은 강릉 사수 의지를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26연대는 7일 10시에 강릉을 점령하였다.

* 양양 진격작전(1951년 3월)⁵⁴⁾

제1군단장은 양양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에 3월 18일부터 연곡천 북쪽지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단 정면의 인민군 제69여단도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를 증원받아 양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악으로 연결된 하월천리-만월산-명지리 축선에 축차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위력수색에 나선 제1연대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화력 엄호하에 적의 축차진지를 격파하고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명지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적은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극력 저항하였으나 미 함정의 집중적인 함포사격에 의한 병력손실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중인 경강국도 변의 유천리-차항리 진지를 제9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주문진을 경유 양양 남쪽의 인구리로,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로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제1군단과 좌인첩의 제3군단이 위력수색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3월 25일 8시에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동부 전선의 국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카이로선으로 진출하게 하자는 요청을 받은 육군본부는 작전지

54)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452-454쪽 요약.

시 제10호로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3월 25일~26일 양일 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책임지역 내 카이로선을 점령·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카이로선의 양양을 점령하고 제9사단은 수도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축차적으로 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3월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쪽의 우암리-노고봉 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단은 전 화력을 집중한 후 돌격으로 적의 최후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적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도하 양양 북쪽의 고지군과 한계리-인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고,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도하 양양으로 진출하여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초 간의 적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고 저항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수도사단의 좌인접에서 사단의 공격을 엄호 중인 제9사단의 전선을 시찰하고 L-5기로 14:40분 하진부리를 출발 강릉의 군단지휘소로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수시간이 지난 후에도 강릉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군단사령부에서는 난기류로 인하여 조난을 우려하고 제9사단에 대관령 일대와 경강국도변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군단장 이준식 준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하였다.

양양에서 철수한 적은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 고지는 적 제2군단의 철수로인 양양-한계령-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지형이므로 일진을 준비하는 듯하였다. 사단이 387고지에 집중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 제1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하여 30일 공격을 재개했다.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 후방으로 연신되자 적은 1개 중대 규모의 잔류부대만 두고 주력은 오색리를 경유하여 설악산으로 퇴각하였다.

* 중공군의 4월 공세(1951년 4월)⁵⁵⁾

유엔군은 3월중순 14후퇴로 상실한 서울을 재수복하고 4월초에 주력부대들이 38선 북쪽의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이른바 캔사스(Kansas)선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전쟁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된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동부전선은 국군3군단(3사단과 7사단)과 국군1군단(수도사단, 9사단)이 전담했다. 3군단은 태백산맥 서쪽 내륙을 맡았고 1군단은 태백산맥 동쪽 해안지대를 맡았다.

* 중공군의 5월 공세(1951년 5월)⁵⁶⁾

1951년 4월-5월에 접어들어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 후방에서는 이보다 앞서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의 조사 처리문제로 정국의

55)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496쪽 요약.

56)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547, 577, 596쪽 요약.

갈등이 심화되던 중, 5월 7일 신성모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이기붕 장관이 임명되어 군의 기강확립과 전력증강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제1군단은 중공군의 5월공세를 맞아 설악산-속초 선에서 분전하였으나 19일 육본명령에 의거 제3군단과 전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대산-두로봉-남애리를 연하는 와코(Waco)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중공군은 공세작전을 펼친 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병 및 항공폭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새로운 예비대의 투입도 가능하였지만, 공격제대들이 입은 인원 손실이 주로 유엔군의 포병화력과 밤낮으로 계속된 항공폭격에 의한 것임을 상기할 때 증원부대의 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지원군사령관 팽덕회는 5월 21일 공격중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후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화천저수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선이 그들의 철수한계선이었다.

* 양양-간성 진격전(1951년 5월)⁵⁷⁾

동해안의 국군제1군단은 중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의 미군단들이 캔사스선 진출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인 5월 25일까지 하진부리로 진출한 중공군의 일부와 대관령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군단도 캔사스선을 목표로 반격작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

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지난 5월 공세의 결과로 국군 제3군단과 육군 전방지휘소가 해체되고 군단마저 미제10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은 일이 있어 국군의 위상이 실추되었음을 통감하고 이번 반격작전에서

57)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1996, 614-617쪽 요약.

기필코 국군의 위상을 만회하기로 결심하였다.

군단은 1단계로 매복산-가잔리-인구리를 연하는 선을 목표로 좌전방 산악지대에 수도사단, 우전방 동해안에 제11사단으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국군 제3군단에서 배속이 전환된 제3사단은 아직 부대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송계리에서 군단예비로 신속히 부대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제11사단은 26일 주문진 남쪽의 연곡천 변의 도로에서 1단계 선인 가잔리-인구리를 목표로 3개 연대 병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9연대, 제20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캔사스 선을 지난 남대천을 도하 27일 오후에 캔사스 선상의 동쪽 끝 지점인 동해안의 양양을 무혈점령하였다. 그러나 작전지역 중앙으로 공격한 제13연대는 주문진 서쪽 하월천리 부근에서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28일 02:00까지 치열한 격전을 펼쳐 격퇴하였다.

이 무렵 항공관측과 수색정찰 보고에 의하면 적은 인민군 제2군단 13사단을 한계리-원통 선에, 군단 직할의 1개 연대 규모를 군단 정면인 마동령-미시령 선에 긴급히 투입하여 방어거점을 편성한 후 철수하는 중공군과 인민군을 엄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설악산 일대에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선을 조정하였다. 제11사단(이 무렵 최덕신 준장의 후임으로 오덕준 준장이 부임)은 설악산 일대를, 수도사단은 간성을, 제3사단18연대는 설악산 남쪽의 가라피-마산리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28일 속초 남쪽의 하도문으로 진출한 제11사단9연대의 엄호 하에 수도사단1연대는 속초 북쪽의 용포리, 교리로 이동하였다. 제18연대로 송천리 일대의 20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였다. 작전지

역을 인계한 제11사단은 설악산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9연대를 설악산 입구의 신흥사 부근에, 제20연대를 둔전리에, 제13연대를 강선리에 집결시켰다. 부대이동을 완료한 공격제대들은 서둘러 공격준비에 주력하였다.

29일 동이 틀 무렵 작전을 개시하였는데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여 4시간도 안 되어 간성을 점령하였다. 제11사단도 목적인 곳을 점령하였다.

* 1951년 6월 이후의 한국전쟁⁵⁸⁾

북한군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남하하였다가 유엔군의 반격에 의해 압록강·두만강까지 북상하였으며, 이때 중공군의 침략으로 다시 평택-삼척 선으로 남하하였다. 이와 같이 격돌하던 전선은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이 끝난 1951년 6월 전쟁 한 돌을 즈음해 38도선 부근으로 회귀하였고, 그 후 교착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51년 7월의 유엔군 전투편성을 보면 동해안은 국군 제1군단이 담당하였다. 군단장은 백선엽 소장이었고, 예하에 수도사단, 3사단, 11사단이 있었다. 당시 한국군의 총참모장은 이종찬이었다. 1952년에는 국군 제1군단이 예하에 11사단과 5사단 등 2개 사단으로 동해안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 반공포로 석방사건⁵⁹⁾

1951년 7월10일 드디어 휴전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유

58) 『한국전쟁(하)』, 국방군사연구소, 1997, 2쪽, 338쪽.

59)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475-515쪽 요약.

엔군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한국대표로 임명된 백선엽장군도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알려주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있었다. 한국대표는 이형근, 유재홍, 이한립, 최덕신 등 당대 일류의 장군들이 순서대로 역임하였으나 모두 이대통령과 유엔군 측의 사이에 끼여서 쓰라린 맛을 보았다.

휴전회담이 결렬된 지 6개월 만인 1953년 4월 26일 양측 대표단이 판문점 회담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동안 소련수상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자유공산 양진영의 지도자가 바뀐 사실과 함께 회담장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분위기를 띠었다.

이대통령은 6월 10일 손원일 국방부장관과 백선엽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육본 참모진과 군 주요지휘관을 경무대로 불러 훈시를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수일 후의 반공포로 석방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보여졌다. 이대통령이 육군 지휘관들을 모두 부른 것은 미군들 모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극비작전에서 과거 부산정치과동 때와 같이 군이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드디어 6월 18일 새벽 이대통령은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였다. 포로수용소는 미군의 후방지원사령관의 관할이었으나, 그 경비는 미군지휘를 받는 국군경비부대 및 헌병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원용덕 장군 휘하의 국군헌병총사령부는 수용소 경비를 장악, 사전에 계획한 대로 수용소 울타리의 철조망을 끊고, 전선을 잘라서 전깃불이 커지지 않게 함으로써 포로들의 탈출을 적극 도와주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군관리요원들로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꺼번에 2만5천 명의 포로가 심야에 탈출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밤 동안에 2천여 명이 더 탈출함으로써 2만7천 명의 반공포로가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였다. 포로들은 한국당국의 도움을 받아 현지주민들에게 흡수되었으므로, 이미 탈출한 포로를 다시 포획하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그리하여 6월말에는 8600명의 송환 불원 북한포로만이 유엔군이 관리하는 수용소에 남게 되었다.

이대통령은 한국의 국토를 양단하는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없으나, 그 협정을 지지할 수는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휴전협정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략적으로 작성된 명단에 의하면 유엔군측에서도 크게 놀랄 정도로 13만2천 명 중 불과 7만 명만이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로로부터 재분류한 민간인 억류자 3만7천 명,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한 반공포로 2만7천 명, 본국송환 거부포로 2만2천 명, 등 총 8만6천 명의 포로를 자유진영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념전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각 포로수용소별 반공포로 석방 현황이다. 석방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도 있다.

표2.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현황⁶⁰⁾

| 수용소 | : 총인원 / 석방인원 | 사망 |
|------------|-----------------|----|
| 부산 거제리2수용소 | : 3065 / 392 | 1 |
| 부산 가야리9수용소 | : 4027 / 3930 | |
| 광주5수용소 | : 10610 / 10432 | 5 |
| 논산6수용소 | : 11038 / 8024 | 2 |
| 마산7수용소 | : 3825 / 2936 | 3 |
| 영천3수용소 | : 1171 / 904 | 1 |
| 부평10수용소 | : 1486 / 538 | 47 |
| 대구4수용소 | : 476 / 232 | 2 |

* 국군의 날 제정과 양양군의 관련성⁶¹⁾

1950년 10월 1일 한국군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했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38선 이북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해도 된다는 명령이 내려가기 일주일 전의 상황이었다. 다음 사진은 국군 제3사단과 미군 장병들이 ‘38선 돌파’ 표지판 앞에서 촬영한 것이다. 뒤쪽에 정래혁 중령(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도 보인다. 한국군의 38선 돌파는 보름 전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급격하게 무너진 북한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동부전선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956년 9월 4일 대통령령 제1117호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했고, 3사단에는 38선 돌파 기념비를 세웠다.

60) 『한국전쟁(하)』, 국방군사연구소, 1997, 2쪽, 468쪽.

61) 박태균, <한국군 3사단 38선 돌파, 국군의 날 기원 만들다>, 중앙일보, 2009년10월1일자 신문기사.



한·미 장병들이 '당신은 지금 3사단에 의해 돌파된 38선을 통과하고 있다'고 영어로 적힌 표지판을 둘러싸고 기뻐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상기 중앙일보에서 재인용

2) 양양군 지역 내 문헌에 전하는 반공사건들

양양군 지역 내에서 6.25 혹은 인공시절의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지』(1976년), 『양주지』(1990년) 등에서 몇 편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두 책자를 비교해보면, 『향토지』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구절을 나뉘대로 수정하여 문안을 작성한 것이 『양주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 인용한 자료들은 『양주지』를 저본으로 하고 『향토지』를 참조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일부 맞춤법이 틀린 것은 필자가 임의로 바로잡았다.

* 서북청년단62)

- ① 1946년 7월 21일 주문진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월남 반공청년들이 친목회를 조직하니 처음 24명이 참가하였다. 회장 유영춘.
- ② 이 날 서북청년회를 조직하고 총본부를 서울에 두기로 하고 본부장에 문봉석, 초대단장에 유영춘이 되다. 2대 단장은 최병용, 3대 단장은 백의곤이었다.
- ③ 주문진에 본거지를 두고 다시 6개 분단을 두고, 주문진2구, 3구, 7구, 서림, 인구, 연곡에 두었다.
- ④ 임무 및 활동 :
 - 영동지방의 공산분자를 색출하여 응징하는 것이 첫 임무였다.
 - 38선 이북으로부터 간첩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을 하려 내려오는 공산분자를 일망타진하였다.
 - 이북에 있는 반공청년의 조종 하에 동해안 일대에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 공산당 전복을 기도하였다.
 - 서북청년은 군사경찰의 권리까지 행사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⑤ 참고사항
 - 유영춘은 낙동강 전투에서 산화하였다.
 - 친목회 초기 회원은 다음과 같다. 유영춘, 유동훈, 장기수, 김장운, 고연재, 김영수, 김인영, 한범구, 함효근, 최방출, 박병선, 김종호, 김종우, 김태권, 최창갑, 김옥기, 김원각, 김종익, 홍해운, 전운영, 김현재, 김영록, 고광학, 김철수
 - 김세환은 경제혼란을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62) 『양주지』, 『향토지』에는 <반공진원지>란 항목 명이 붙어 있는 것을 필자가 내용에 맞게 바꾸었다.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2쪽; 『향토지』, 양양문화원, 1976(증보판), 110쪽.

* 민일당 사건⁶³⁾

① 1946년 6월 13일에 서문리 천도교회당에서 조직

② 지하조직책

- 김석진(만주군 출신), 김문수, 박희순, 정종명, 김형렬, 염의용, 윤정균, 이상협, 윤석갑

③ 내용

- 민주사상이 투철하고 결사적 투쟁력을 가진 청년을 포섭
- 공산당 타도
- 무기탈취 및 반공투쟁
- 당세 확장 : 목적으로 속초 부월리 노장파와 협조
- 8사단과 연결하여 지원을 얻고 반공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④ 일제검거

- 1947년 5월 18일 비밀이 누설되어 전원 검거되었다.
- 윤석갑은 보안군 부대원과 싸워 임천다리에 떨어진 후 월남하였다.

⑤ 결과

- 교화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맹서한다는 혈서를 써보냈다.
- 1947년 10월 22일 소련검열관의 취조를 받고 북조선 정치에 적극 협력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 혈서 쓴 것이 주효하여 인민재판에서 집행유예 4년-5년의 언도를 받고 전원 석방되었다.
- 1947년 12월까지 전원 월남하여 교원, 경찰관, 경비대에 입대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하였다.

63)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2-133쪽.

* 반공의거 사건⁶⁴⁾

1947년에서 1949년에 걸쳐 혹독한 괴뢰치하에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반공의식은 나날이 높아가고 기회를 노리고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지하공작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각종기밀을 탐지하여 남한 서북청년회와 기타 군정보당국에 제공하고 그 배후조종으로 반공의거를 계획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징역3년에서 무기까지 받은 자가 50여 명에 달하였다. 무서운 고문을 받으며 취조 중 사망 혹은 감방옥사자가 수명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양양면 군행리 김양진과 서면 최병주가 주모자가 되고, 김동근, 김문학, 이영운, 서면 범부리 신동만, 이상복, 이귀룡, 이형우, 우암리 장진팔, 김여영, 김운건, 김을성, 김현주 등은 자기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고 다만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자유를 위하여 괴뢰정권의 파괴공작을 암암리에 계획하고 서북청년회와 정보를 교환하며 지하운동을 전개하다가 불행하게도 발각된 후 원산형무소에서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다.

신동만, 윤규백은 억울하게도 원산형무소에서 옥사하고 대개는 복역 중 6·25 국군 진격시 방공호 속에서 총살당하였다고 전한다. 김문학, 천봉득은 이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귀향하였다. 이영운은 피체 시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월남하여 현재 살고 있다.

* 양양 건건장 방화사건⁶⁵⁾

손양면 최지선은 인공치하의 경제혼란을 목적으로 양양 건건장에 방화하였는데, 발각되어 피체되어 복역 중 사망했다.

64)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3-134쪽.

65)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4쪽.

* 학생의거 사건⁶⁶⁾

1947년 12월에 악독한 공산당의 만행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양양고급중학교 학생 고재철, 안재승, 임세삼, 이창규, 백윤하, 손양면, 상왕도리 이상소, 남○○을 선두로 하여 재학 중 월남하여 서북청년회에 활동하고 있던 김주철과 무기탈취방법을 모의하고 소련군 창고에서 권총 5자루와 화약3상자를 탈취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와 소련군 정보부 간부를 살해할 계획을 김기복 학생 집에서 의거 모의하다가 탄로되어 당시 양양고급중학교 김운봉 교사 집에서 잠복하였다가 1947년 12월 31일 의거 3일만에 전원 피체되어 원산형무소에 끌려 갔다.

일자 미상으로 당시 강원도 인민재판소 부소장 윤두병(해방 당시 양양군 내무과 촉탁, 손양면 하양혈리 거주)의 판결로 고재철20년형, 안재승18년형, 그 외 학생은 15년형을 언도받았는데, 이들은 정치범이라 노역도 시키지 않아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 함흥 형무소로 이감하였다.

안재승은 1950년 8월 20일 옥사하였다는 통지가 가족에게 전해졌다. 임세삼, 김창규는 1950년 4월 13일에 청진형무소에 복역하고 고재철은 함흥형무소에서 1950년 4월 13일 부친 고광익과 마지막 면회를 하였으나 국군 진격 시에 피살되어 한 많은 이 세상을 등지고 반공전선에서 산화하였다.

- 당시 고급중학교장은 김종성이다.
- 김주철은 18세의 학생으로 신의주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 노복현, 김복기, 박을병, 백윤하도 원산형무소에서 복역하니 모두 한 클럽이다.

66)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4-135쪽.

- 교사 김운봉은 학생은늑불고지죄로 처형되었다.

* 김일성 초상 소각사건⁶⁷⁾

소련군이 양양국민학교에 주둔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교실이 사방에 산재하였다. 시내 분교실에도 김일성의 초상화가 역시 걸려 있었다. 평소부터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당시 고급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상중은 1948년 7월경 마침 빈틈을 타서 김일성의 초상화를 뜯어 소각하여 버리고는 그 길로 월남하였다.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정보 활동을 하다가 잡히고 말았다. 얼마동안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학생의 몸이고 또 평소 온후하였다 하여 석방되었으나 학생의용군으로 끌려간 후 행방을 알 수 없다.

- 남상중은 중학교 교장 남라석의 아들이다.

* 비밀문서 발견사건⁶⁸⁾

반공청년들은 암암리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지하공작을 결행하였다. 그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반공투쟁을 계속하던 중 이중간첩 윤모의 고발로 전원 생포되어 투옥되었으니 개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자도 있었다. 또 언동이 반공산당이라 하여 몰린 자도 있고 또는 협조하였다는 반동죄목으로 몰린 자도 있었다.

다음은 투옥된 자들의 명단과 언도 받은 형량이다.

67)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5쪽.

68)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6쪽.

- 손양면 : 이기호(15년형), 최인규(12년형), 윤재승(15년형), 윤옥중(20년형), 이찬규(15년형), 이상소(15년형), 윤학중(15년형), 김영철(19년형), 김형규(15년형), 엄주현(15년형), 김병철(?), 이강영(무기), 김병주(15년형), 김용주(15년형), 김규영(취조 중 사망), 김홍준(15년형), 김문학(?), 이상철(?), 김동주(15년형)
- 강현면 : 장달환(12년형), 김남문(9년형), 양응모(8년형), 이필규(7년형), 천봉득(?), 공원근(7년형)
- 현북면 : 송학봉(3년형), 김풍화(김민하의 처)(15년형), 이상권(1년형)

김문학, 송학봉, 천봉득, 이상권은 국군 진격 시 운 좋게 탈출하여 귀향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거반 총살되었다.

남양리 이강영과 김영철은 함흥형무소에서 복역 중 반공극렬악질이란 죄명으로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말려 죽이려 하였으나 사는 그날까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옷을 모두 뜯어먹었다. 형 집행 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혈서를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조용히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강영은 양양군 지하조직부장이었고 윤찬희는 서북청년 연락을 맡고 또 수사대원으로 활약하다 사경을 넘어 피산하여 현재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다.

군행리 이종렬은 우편국의 배달부로서 반공비밀연락과 호림부대의 연락책으로서 활약하였으나, 피체되어 투옥 후 생사가 불명하다.

* 호림유격대 제5대대, 제6대대 사건⁶⁹⁾

① 편성

1949년 12월에 강원도 주문진에 본거지를 두고 대북 유격전 및 첩

69)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6-139쪽.

보공작을 해오던 백의곤 대대와 오대산 유격대 김현주 대대가 육군 호림부대로 명명되어 제5대대장 백의곤, 제6대대장 김현주 각 대대 120명으로 특수편성되어 작전임무를 수행코자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고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멸공유격전을 감행하였다.

② 작전의 개요

제5대대 및 제6대대는 1949년 6월 23일 장도에 올라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태백산맥의 정봉산을 정복, 능선을 타고 박달재를 통과 오색리 일대에 침투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호림부대는 설악산을 정복하여 대청봉 1708m 고지로부터 동북방 약6km지점인 봉정암을 점거하였다.

1949년 7월 1일 봉정암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제6대대는 영서중부지구로, 제5대대는 영동지구로 북상작전하면서 7월말 양덕맹산지구에서 합류기로 맹약하고 결사적 행동을 개시하였다.

③ 작전의 실제

1949년 7월 1일 봉정암을 철수하여 대청봉에서 화채봉을 본거지로 하여 양양지구의 반공청년과 연락을 맺고 게릴라 공작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이계화는 병력배치상황을 정보탐색차 금풍리에서 연락원을 양양읍에 파견, 위조군표로 물품을 매수한 것이 탄로되어 인민군이 금풍리를 급습하여 체포되었다. 화채봉 본거지의 반공청년들은 후방 교란목적으로 게릴라 활동을 하였으나 이계화가 전사하므로 정보가 두절되었다. 군량 등은 현지에서 반공청년들이 자진제공하였다. 양양출신의 부대원 김종익, 이종억, 김재수 등이 지리에 밝으므로 상북리에 침투작전을 직접 지휘하였다.

④ 상복리의 모의 탄로

김종모와 김정배의 집에 4일간 나누어 거주하면서 작전모의한 것이 김정배의 조카딸이 자기 남편인 극열분자 이범구에게 비밀을 전하므로 사전에 게릴라 활동이 발각되어 공산분자들은 도피하고 인민군은 잠복 비상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상복리 반공청년은 식량, 우유 등 주부식 제공과 정보를 연락하여 호림부대를 적극 협조하였다. 공산당 연락원 김홍수는 야밤에 연락도중 호림부대에 발각되어 사살당하였다. 쌍방간 교전하다가 형세가 불리하여 상복리 피곡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피곡 전투에서 보안대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고 천진 남북방의 신선봉을 점거하고 큰령을 거쳐 북진하여 국사봉에서 전멸상태로 분산하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반공청년들이 산화하여 이북땅에서 한 많은 원한을 품고 호국의 신이 되었다. 7월 7일과 8일의 전투로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 양민의 피해가 자못 컸다.

⑤ 반공청년의 말로

호림부대 습격시 기밀연락 식량제공 등을 반동죄로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6·25 국군진격시 전원 사살되었다.

투옥자 명단과 형기는 다음과 같다.

상복리 김종립(사형), 김근수(10년형), 김종우(17년형), 김학배(10년형), 김성훈(10년형), 김성룡(5년형), 조만순(7년형), 김성태(7년형), 김종모(17년형), 김종학(17년형), 양영길(10년형), 김우배(10년형), 김옥배(7년형), 김종탁(7년형), 이몽순(10년형), 이몽춘(7년형), 김종찬(7년형), 김종호(3년형), 최동수(3년형), 박용준(13년형), 박용선(13년형), 권오룡(13년형), 추병식(13년형), 최서구(13년형), 김환기(8년형).

- 김종학은 18세 소년으로 정보연락의 책임을 졌다.

⑥ 호림부대의 전과

생존자 : 김종익(현 강릉시 거주), 이종억(현 속초시), 김하섭(현 고성군), 김재수(현 서면), 이상은(현 속초시), 김종성(현 속초시)

전사자 : 김남홍(금풍리), 박춘근(남문리), 이계화(서문리), 최복길(속초시 영랑동), 박용학(용추리), 김명중(도리), 윤정병(영덕리), 이상옥(영덕리), 이상만(상복리), 이효충(영덕리), 이광우(속초시 중앙동), 김사열(영덕리), 김정수(영덕리), 김혁배(상복리)

⑦ 후문

김환기 노인은 원산 형무소에서 폐렴 중태 시에 이상권에게 호림부대의 양양공격 시 실패는 위조군표 사실이 탄로되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였다.

6·25 직후 귀순한 당시 인민군 보위부 중좌였던 강동호의 증언에 의하면 1949년 7월경 호림부대 2개 대대 병력이 중부지구에 침투하므로 일대소동을 일으켜 공산당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한다.

1949년 7월 일자 미상 호림부대 포로 40여 명을 귀순용사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현수막을 달고 포로를 탑승시키고 각 주요도시 및 각군 부대를 순회 선전하였다.

40여 명의 호림부대원은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 5-6명씩 분산 수용되었고 중상자를 치료한 한편 세뇌공작을 시작했다.

1949년 9월 일자 미상 호림부대 40여 명에 대한 심판을 평양최고재판소에서 개정하고 최고간부급 및 각처 지도계층 언론계 등을 동시참여케 하였다. 이때 재판정에는 호림부대 강모 중위의 고향과 육설로

일대혼란이 일어났다.

그 후 강중위를 비롯해 6명의 호림부대의 간부급을 모란봉에서 김일성이 참관하는 가운데 총살형으로 집행하였다고 한다.

1949년 6월 호림부대 침투 직후 비상령을 선포하고 10월말경 해제한 것이며 호림부대 토벌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3개 사단병력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

- 이계화는 서문리 이문화의 동생이다.

* 반공유격대 및 특공대의 활동과 전과⁷⁰⁾

김여수는 1946년에 월남하여 반공청년들과 계림유격대를 조직하고 동해지구 38선의 파견대장으로 게릴라 작전과 곤우골 기습공격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 6.25 당시에는 육군 3사단 정보수색대장으로 복진 시에는 양양을 선두로 진격하여 현산공원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당시 양양에는 노약자만 남고 애국청년들은 행방을 감추었다. 탐색한 결과 북괴군은 군민을 후퇴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애국청년들은 산중에 피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김여수는 애국청년 전원을 구출할 것을 결심하고 강릉 주문진의 반공청년들이 다수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현지로 달려가 100여 명의 청년을 인솔하고 익일 양양에 도착하여 산중에 피신한 청년들을 찾아내어 군청 소재지인 남문리에 집결시켜 놓고 육군 제1군단 헌병부장의 승인을 얻어 양양자치방위특공대를 조직하였다.

김여수가 대장, 부대장은 대포리 이홍석, 작전참모는 김현학이 맡아 북괴군 패잔병 소탕작전에 그 공적이 컸다. 특히 북괴군 패잔병 1개

70)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39-141쪽.

여단이 북상 시 속초전투에서 교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고 우리 특공대원도 5명이 전사하였다. 그 유골은 보광사 뒷산에 안장하고 지금은 위령탑에 그 이름을 새겨 그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 도리 민주당 사건⁷¹⁾

도리는 38선 이남인 장리로부터 200미터의 지점인 까담에 서북청년회의 반공파장이 밀려와서 반공의식을 고취시켰다. 반공정신에 불타는 청년들은 손양면 민주당 총책인 이기호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비밀결사망을 조직하고 공산당을 타도하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행동대를 결성하였다. 이기호는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투지만만하여 반공정착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는 기개의 남아로서 행동대 선봉에서서 활약하였다. 이 조직의 총책은 이기호이고 행동대원은 이종운, 이종명, 이종현, 노재봉, 이종운, 김정수, 양인석, 이종천, 이종선, 양재일, 이종원, 이종성, 이종렬, 양재진, 이종복, 이봉래, 안봉도 등이었다.

그리고 연락책임은 이종천과 노재봉이었다. 이들은 이쪽 정보를 장리지서를 통하여 이남의 8사단과 서북청년회와 호림부대공작대에 통보하고 또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무기를 공급받아 공산당을 전복하려는 비밀까지 공작하였다. 또 남북간의 물물을 교류하여 공작자금을 마련코자 공작하였다.

그들 공산당 마수는 이 곳이 38이남과 접경임을 중시하였고 정보원을 배치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 정보원과 흥금을 털어놓고 공작을 진행하였다. 이 정보원이 바로 도리 인민학교장 안봉도였다. 이들은 1947년 7월 7일 공산당 총회 개최 시에 회의장을 폭파하고 적색분자

71)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0-141쪽.

들을 피살하려고 계획한 것을 사전에 정보원 안봉도의 고발로 1947년 10월 17일에 전원이 양양내무서원에게 체포되었다. 도리 청년들은 거개가 체포되니 도리는 썩밭이 되고 울음바다로 화하였다. 이들은 양양재판소에서 즉결판결을 받아 다음과 같이 언도받고 원산형무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였다.

이기호(무기) 이종운(15년형), 이종명(7년형), 노재봉(7년형), 이종운(13년형), 김정수(7년형), 양인석(8년형), 이종천(12년형), 이종선(7년형), 양재일(7년형)

- 이종현은 체포 전에 월남하였다가 부모처자를 인솔하여 월남하려 다시 입북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았다.
- 이기호는 복역 중 중노동에 영양실조로 가련하게도 옥사하였다. 기타 죄인은 1949년 2월 6일에 잔인하게도 배에 실려 바다에 쓸려 넣어 수감하여 버렸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며 통곡하여도 남음이 있다.
- 이 사건 이후 도리 주민은 모두 소개 이주시켰다.
- 대원 중 사전에 월남하여 국군에 편입 6.25 때 북진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종원(현 주리) : 장리 대한청년단장

이종성(현 도리) : 계림부대 공작대원

이종렬(현 서울) : "

심상진(현 강릉) : "

- 도리 인민학교장 안봉도는 사건 공로자로서 김일성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 민주당 양양지부 : 지부장 이근화, 총무부장 이기호, 조직선전부장 김태영

- 서북청년 호림부대 : 윤석기(수리), 김병렬(서림), 김지봉(수리), 김선배(수리), 김종순(수리), 김인환(수리), 김한배(수리), 이대우(서림), 김세환(서림)

* 장리 지서원 납치사건⁷²⁾

현북면 장리는 강을 경계로 이남인 까닭에 장리에 지서가 설치되어 38선상의 국토방위의 전초기지이며 도리는 강남산정까지가 38선인 연고로 이북의 치안대와 소련군이 주둔하여 38선상에서 서로 충돌하는 분위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또 빈번히 납치사건이 일어나 사상자가 많았다.

부소치는 월남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소위 루트가 되었기에 이북의 감시망의 초점이 되었다. 도리는 지형상 양협 사이에 끼여 있어 경계가 삼엄하였다. 그러나 부소치 사람과 장리 사람들은 같은 강물에서 서로 목욕도 같이 하며 답소하기도 하였다. 밤이 되면 월남자가 많았다. 양쪽 경비원이 38선의 시비로 남은 강 중심이라 하고, 북은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당신네는 강 중심이라 하나 우리 지도를 보고 38선을 확실하게 정하자고 제의하기에, 우리 이남에서는 응답하고 경찰관 2명과 한청대원 3명이 도리에 갔다. 그것이 이북의 유도책인 줄 모르고 도리에 도착하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북 내무서원과 소련군이 포위하고 “손들어” 하고 모두 납치하여 양양에 끌고 갔다. 이것이 1949년 11월 20일이라고 한다.

끌려갈 때 소피를 보겠다고 야음에 도망친 자도 있었다. 끌려간 자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들의 처리관계도 알지 못하여 답답하다. 그들

72)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1쪽.

의 간계는 항상 비열하고 비인도적 행위였다. 이상열 순경은 1949년 11월 20일자로 전사로 처리되고, 그 가족은 원호를 받고 있다. 또 부인 장씨는 평생 수절과부로 장리에서 살고 있다.

- 경찰관은 지서주임 박문수와 이상열 순경이다.
- 끌려간 한청대원은 2명이며, 그 중 신현복은 도망쳐왔다. 그 유족은 경북 예천에서 살고 있다.

* 김창수, 이선영의 죽음⁷³⁾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강현면 하북리에서는 좌익분자 청년들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종상은 왜정에 반대하고 소련에 망명하여 고아원장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 귀향하니 그 문중청년들은 민청, 부녀동맹의 중견인 과격공산분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작은 모스크바’라 불렀다. 그리하여 반공청년들과 서로 대립되어 사사건건 암투하고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비판시키고 심하면 매질까지 하여 못 살게 굴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반동으로 낙인을 찍어 공산주의 사상으로 몰아넣으려고 갖은 악랄한 수법을 다하였다.

반공청년들의 반발심은 더욱 가중하여 반공에 열을 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창수, 이선영은 그네들의 눈에 가시였다. 1950년 10월 국군진격으로 반공청년들은 6년간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공산분자들을洞舍에 모아놓고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매질도 하였다. 그러나 14후퇴로 김창수와 이선영은 월남코자 38선까지 갔으나 벌써 막혀 더 이상 피난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14후퇴로 도피하였던 과격분자들도 돌아와 김창수가 한 사실을

73)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2쪽.

듣고 격분하여 김창수와 이선영을 동사에다 철사로 손발을 묶어놓고 죽도록 매질하여 빈사상태로 만들었다. 그뿐인가 전세가 다시금 불리하게 되자 다시 두 사람을 김창수의 옆집에 몰아넣고 수십 명의 극렬분자들이 혹독하게 매질을 하여 유혈이 낭자하고 피바다가 되었다.

김창수의 부친은 “이 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외쳤으나 아랑곳없이 인정사정없이 두 사람을 계속 때려 인사불성이 되었다. 참으로 악독한 만행이었다. 수일 후 국군 반격으로 북진을 하게 되자 운신부동의 두 사람을 방공호 속에 쳐 넣고 총살하였다. 그 후 김종환(김창수의 부친)은 아들이 매질 당하던 충격으로 마음에 병이 생겨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다.

* 이근우의 죽음⁷⁴⁾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한 북괴군은 총퇴각을 개시하고 동해를 끼고 북괴군 김무정은 북상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다. 1950년 10월 2일 북괴군이 후퇴하면서 강선리 인민위원회에 와서 전 주민을 간성읍까지 피난할 것을 명령하였다. 주민들은 거의가 북으로 피난하였으나 반공청년들은 산중에 피신하였다.

10월 3일 국군이 남대천을 건너 북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3일 오후 5시에 하산하여 귀가하였다. 이 날 이근우는 주동자 김장연, 김흥기, 이상호, 손동린, 신귀남 외 3명의 동지들과 동사에 집합하여 국군 입성을 환영하고자 태극기를 만들고 마을 자치를 논의하던 중 불의에 북괴군 패잔병 4명이 8시경에 출현하여 마을주민들의 후퇴를 강요하였다. 여기 모인 동지들은 태극기 제작 등의 모의사실을 숨기고

74)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3-144쪽.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반면 이상호로 하여금 패잔병 출현사실을 국군백골부대에 신고케 하고 이어 이상호는 백골부대 1개 분대와 작전계획을 하고 반공청년들과 패잔병이 모인 자리를 포위하고 공격한 바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반공청년 이근우는 총탄에 맞아 즉사하고 신귀남은 부상하였으며 신원미상의 30세 가량의 청년도 사망하였다. 야간전투이기에 반공청년만 희생되었으니 참으로 분한 일이다.

그 다음날 이근우는 마을장으로 장례하였다. 5년간의 원한은 수포로 돌아가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만세를 불러보지도 못한 것과 대한민국 품안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이 애국영혼들의 천추의 유한일 것이다.

* 김남형·김학래의 죽음⁷⁵⁾

김학래는 김남형의 장남으로서 해방 이후 반동분자로 지목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으며 6·25사변 후 국군이 진격하자 마을 이장과 강현면 한청단장으로 활약하다가 14후퇴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은신 중 인근마을 극렬분자들의 밀고로 적은리 주둔 인민군에 체포되어 부친 김남형과 함께 마을창고에서 인민군 중령 주재 하에 인근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민재판을 하는데, 부친은 즉석에서 극렬분자들의 못매를 맞아 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은 속초로 끌려가서 동명동 방공호 속에 감금당하고 음력 2월 7일부터 18일까지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여 사경에 이른바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속초시 논산에 있는 외가에서 달려가 면회를 청하니 집으로 데려가라 하여 거적으로 들것을 만들어 신고 집에 돌아와 2일 만에 1951년 음력 2월 20일에 사망하였다.

75)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3쪽.

* 영덕리 공비토벌 개황⁷⁶⁾

1953년 11월 15일 강원지구 연락총책공비 2명이 서림지서에 자수하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받기 위해 38선에서 정족산까지의 연락조원이 지금 영덕리 외딴집 빈집에 잠입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왔다.

서림지서장 권영렬 경사는 순경 한병열, 김호규 두 사람에게 명하여 토벌작전에 임하였다. 두 순경은 한창 대원 7명(김연수, 김성기, 정연식, 경로군, 이경수, 윤봉래, 이대영)과 자수공비 1명을 인솔 현지에 도착하여 빈집을 포위하고 상황을 살펴본 즉, 마침 백설이 깔린 우물 길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갔다.

마침 방안에서는 공비 2명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대영 단원이 생포하려고 공포를 쏘면서 “손들어” 하고 소리쳤더니 공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소지하였던 M1소총과 M2칼빈총으로 응사하여 왔다. 그리하여 “완전포위 되었으니 자수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끝내 반항함으로 그 중 1명을 사살하고 다른 1명은 부엌 쪽으로 도주하면서 김연수 단원에게 사격을 가해 김연수는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추적에 나선 우리측 단원들은 논둑 밑에서 최후발악을 하는 나머지 1명을 사살하였다. 그들 공비의 주머니에서는 암호연락문이 나와 아군의 공비토벌작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태백산지구 남침공비소탕⁷⁷⁾

경북 보현산지구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의 포위망에 발이 묶여 섬멸

76)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4-145쪽.

77)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6쪽.

직전에 놓인 김달삼부대를 구출하고자 복귀는 전에 없던 강력한 정예 부대 700명을 월남 침투시켰다. 김상호 및 김무현이 각각 반을 맡아 인솔한 이들 극렬분자로만 편성된 소위 인민유격대는 선발대로 김상호가 약 300명을 이끌고 1950년 3월 24일 새벽5시를 기하여 주문진경찰서 관내인 잔교, 대치, 명지, 장리, 서림리 등 38선 경비대가 주축인 우리측 전초진지에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고 38선 이남 각 고지로 불법 남침하므로 우리측 국군병력이 각 고지에 집결한 틈을 이용하여 정족산, 벽실령을 넘어 오대산맥의 산줄기를 타고 남하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검토한 제8사단은 주문진 주둔 1개 대대의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의 협조 하에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아군은 공비들을 노인봉으로부터 청계동 계곡으로 유인하여 일제히 공격함으로써 공비침투 23일 만인 1950년 4월 17일, 두목 김상호 이하 176명을 사살하고 36명을 생포, 12명의 귀순포로를 잡은 외에 박격포5문, 중기관총3정, 경기관총9정, 기관단총17정, 권총7정, 각종소화기96정, 실탄23000여 발, 수류탄116발, 기타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둠으로써 공비의 만행을 재빨리 봉쇄하였다.

그런데 또 한 명의 공비두목 김무현은 나머지 350명의 무장공비를 이끌고 인제로부터 홍천군 치전동으로 월경하여 방대산을 거쳐 남하하였다.(대공안보지침자료 대공안보총서 426쪽에서 전재)

* 행정수북78)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면에는 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고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치

78) 『양주지』, 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148쪽.

안대와 각면치안대를 두었다. 당시 자치대장으로는 김영제 씨를 추대하고 특공대장인 김민하는 동년 11월 22일에 치안대장으로 취임하였고, 치안대원은 국군과 함께 속초 논산리 앞 들판에서 패잔병 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교육기관은 그 해 10월 10일을 기하여 군내 일제히 개교하였다. 당시 민정관으로는 김진호 씨가 들어왔다. 1950년 11월 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상 후퇴로 인하여 자치행정 불과 3개월 만인 1950년 12월말에 모두 피난하였으나 재북진으로 수복되어 1951년 4월부터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정관에 박종승, 치안대장에 김민하로 자치행정을 실시하여 오다가 동년 7월 4일 군정행정법령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7월 5일 재차 군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내전반에 행정을 실시하였다.

1952년 8월 10일에 군관하 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고 군정 불과 1년여에 민주정치的基础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각 리·구장 및 각 읍·면장 선거를 실시한 연후 군(郡)민정관(군수)으로 박종승 씨를 추천하였고 동년 9월 19일에는 각 읍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선출하였다. 동년 8월 13일 군정 하 치안대 잠정규정에 의하여 치안대를 설치하였고, 초대 대장에 김민하 씨가 임명되었으며 치안유지 및 대공사찰활동에 공적이 컸다.

이리하여 군관민은 일치단결하여 철의 장막에서 온갖 고생하던 과거를 상기하며 戰災 복구에 일로매진하여 민주정치的基础를 수립하였으며 군정4년 간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일진일보의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시설은 물론 명승고적의 재건(낙산사, 향교, 청간정, 하조대)과 6·25동란 이후의 군민에 대한 구호대책 그리고 9·13수해복구 사업에 실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복지구교육을 위하여 군단에서는 미8군의 지원을 얻어 OACK 및 AFAK원조로 전군에 학교를 신축하고 또 빈 탄약 상자를 각 학교에 배당하여 책걸상을 만들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 교원단기양성소를 설치하여 수복지구 교육을 양성하였다. 역대 군단장이형근, 김백일, 백선엽, 김종오 장군의 이러한 선정과 군관민이 일치 단결하여 복구재건에 노력한 그 결정으로 우리 양양군은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발전을 가져왔다.

군정 4년 2개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 중에 역사적인 1954년 11월 17일⁷⁹⁾ 드디어 행정권이 이양되어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부의 품에 들었다. 초대군수로 김주혁, 경찰서장에 이현규 경장이 임명되었다. 당시 강원도지사는 최현길, 초대군수 김주혁은 제3군단장 송효찬 장군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이어 제4대 민의원 총선거가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어 양양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동근을 헌정 단상에 보냈다.

*** 반공투사 이야기⁸⁰⁾⁸¹⁾**

1948년 6월 현북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석진, 윤석빈, 박상진, 박용호, 윤석근, 장원식 등 6명은 공산주의 사상일변도 교육에 염증을

79) 『한국전쟁(하)』에는 15일로 되어있다. 본고 앞의 〈간략한 연표〉 항목 참조.

80) 김순기, 『말곡의 땅과 택호 이야기』, 2005, 80쪽.

81) 이 이야기는 〈중학생 집단 월남 사건〉으로 『향토지』 및 『양주지』 등에 전한다. 그러나 그들 문헌에 실린 내용은 잘못 기재되었다. 윤석진은 말곡리 출신으로 현재 생존해 있기에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 문헌에 잘못 전해진 이야기를 수정할 수 있었다. 『향토지』 및 『양주지』 등에 전하는 〈중학생 집단 월남 사건〉은 잘못된 것이 여럿 있기에 이 책에서는 삭제하고 신지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필자의 답사자료인 〈윤석진 월남사건의 진실〉 항목에 실려 있다.

느끼고 그들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학대가 점점 심해져 집단 월남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배움에 열중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월남하였으므로 이들을 인솔하여 38선에서 북한군에 인계하였다.

북한에서는 반동분자의 죄명을 씌워 검거하였고, 윤석빈의 형 윤석승과 윤석근의 형 윤석규는 이들을 교사 방조하였다고 함께 체포되어 1949년 3월 12일 박용호, 장원식을 제외한 윤석진, 윤석빈, 윤석근, 박상집은 4년, 윤석승, 윤석규는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원산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함흥, 청진, 형무소에 이감복역 중 6·25전쟁 발발로 윤석승, 윤석규, 박상진은 아오지탄광에 채광노역에 종사하였다. 전세가 북한군에 불리하여 후퇴를 거듭하게 되자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정치범은 총살하고 4년 이하의 정치범은 만주로 이송 중 유엔군의 비행기 폭격이 심하므로 개마고원 사수국민학교에 은신 중 탈출한 윤석빈은 행방이 묘연하고, 윤석진은 이십여 일 간 감자저장고에 숨어 생감자로 연명하다 다행히 유엔군에 발견되어 함남 신흥군 하기천면 치안대장 이정명의 호의적 주선으로 1·4후퇴 당시 함흥 염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구사일생으로 귀향하게 되었고 나머지 5명의 생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윤석진은 현북면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현북중학교 폭격사건⁸²⁾

1948년도 하광정리 205번지 부근에 설립된 현북중학교는 38선 이북 지역인 기사문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손양면(여운포리, 상운리, 동호리)를 학구로 15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82) 김순기, 『말곡의 땅과 택호 이야기』, 2005, 81-83쪽.



인공 때의 현복중(사진제공 : 현북면 하광정리 한경석)

6.25전쟁이 나고 북한군이 대구 외각까지 남진하였다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를 시작하는 시기일 것이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비행기 폭격이 날로 심해져 1950년 8월 15일(음력)부터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비행기 폭격이 오후에 집중하고 있으니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귀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8월 14일(음력) 오후 3시 쯤에 문제가 생겼다.

학교 뒷산(하광정리 산66번지) 정상에 대공화기(기관총)를 설치한 북한군인들이 그 날 처음 나타난 쌍가달 전투기에 총격을 가하게 되었다. 비행기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양양 남대천 교량에 폭탄을 투하하고 되돌아 갈 땐 고도를 높여서 비행했기에 또 다른 총격은 없었지만 북한군의 대공화기 진지임을 노출시킨 셈이 되었다.

추석날(음력 8월 15일)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북한군인 몇 명과 마을청년들이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기 한 대가 나타나 하광정리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굉음을 내며 나타난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루고 학교를 목표물로 급강하와 비상을 반복하면서 폭격자세를 취하는 것 같았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비행기에 노출될까봐 염려에서인지 책상 밑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라고 명령만 할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겁 많은 1학년 여학생 교실에서 우당탕거리며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학생들도 뛰어 나갔으나 평소 항공대 피 훈련 때 지정된 대피호는 가까운 거리부터 먼저 나온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대피소에 엎드린 지 몇 초나 지났을까? 가슴이 터지는 듯 고막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소이탄(폭탄이 폭발하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비산되어 불이 붙는 폭탄) 여러 발이 투하되어 삼시간에 불바다가 된 것이다. 온 몸에 불티 붙은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학생의 몸에 불이 붙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학생에게 불길이 번지는 정말 무서운 폭탄이었다.

불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사, 마당, 시멘트바닥에서 훑훑 타고 있었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화상을 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폭격이 끝났어도 의료시설이 전무했으니 불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을 가마니 들 것으로 소달구지에 싣고 양양병원까지 후송했다고 했으니 도중에 사망한 학생이 부지기수라 했다. 말곡리에서도 2학년이던 윤인희 학생이 사망하고 윤여봉은 화상을 당했는데 흉측한 흉터를 그대로 안고 살아오다 이제 고인이 되고 말았다.

사상도 이념도 생각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공부에만 열중하던 학생들에게 오인폭격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 아닌가? 약 한 알 먹어보지도 못하고 험한 상처 소독 한 번 못 받았

음에도 누구 하나 어디에 하소연 한 번 못 해보고 그렇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이 구천에 누워 있는 어린 학생들의 영혼이 가엾게 느껴질 뿐이다.

* 다시 빼앗긴 성당⁸³⁾

8·15는 양양주민과 교우들에게 일제로부터 빼앗긴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수탈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양양성당 건물은 다시 교회 수중으로 돌아왔다. 일본인에게 빼앗긴 성당 대신 조그만 방에서 겨우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해방과 함께 성당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뿐이었다. 양양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이광재 신부를 계속 감시하면서 양양에서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던 성당 건물을 자신들의 무전실로 사용하려고 이신부가 공소를 순방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을 적에 성당을 강제로 접수하였다. 남아 있던 성당식구들은 줄지에 당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던 이신부의 지시대로 성당에 머무르던 이신부의 모친과 식복사 그리고 당시 이신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던 김경태(젤마나) 등은 이신부에게 급전을 보내 이신부를 급히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신부가 돌아왔다고 해서 빼앗긴 성당을 즉시 돌려 받을 수는 없었다.

성당을 강제로 접수한 소련군들은 성당을 뺨 둘러싼 채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무 데에나 드러누워 잤다. 소련군 장교들은 성당에 물건을 쌓아놓고 성당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빨간 칠을 하였다. 성당을 빼

83) 『양양본당 80년사』, 천주교 춘천교구 양양교회 편, 2001, 123-150쪽, 여기저기.

앗겼지만, 이신부는 성당 안에 있던 비밀 다락에 성체를 모셔놓고 지내면서 몰래 미사를 드렸다. 몰래 미사를 드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이 들이닥치자 이들은 순간적으로 성체를 한 움큼씩 입안으로 넣고 삼켜버리면서 이 비밀장소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이 물러난 뒤 성당을 잠시 되찾을 수는 있었지만, 소련군을 대신하여 양양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한 인민군은 다시 성당을 빼앗으면서 부속건물마저 접수하고 말았다. 성당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남문리에 있던 적산가옥인 호전의 집으로 쫓겨나 공산당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 집에 거주하며 미사를 집전하여야 했다.

소련군이 물러간 뒤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의 공산당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였다. 양양분당의 이신부는 일제에 빼앗겼다가 해방으로 겨우 찾은 성당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이데올로기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 미사시간에 이신부가 강론을 하면 인민군이 군화를 신은 채 성당 뒤에 서서 총을 들고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들었다. 그러나 이신부는 계속 강론을 하였다. 이신부가 공산당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사제인 자신은 교우들이 양양에 있는 한 양양을 떠날 수 없으며, 사제로서 양양에 있는 교우들을 끝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사상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남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1946년경부터 양양분당은 38선에서 가장 가까운 본당이어서 멀리 연길, 함흥, 원산 등지에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남하하여 양양분당에 들르면, 이신부는 일일이 안전하게 숨겨 주고, 편의를 보아주다가 본당교우들을 시켜 무사히 월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 범부리의 김봉만은 달리기를 잘하였다. 그래서 이신부의 부탁을 받고 약 15회 정도를 남북을 왕래하면서 단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

고 무사히 월남시켰다. 당시 월남한 사제 중에는 김성환(빅토리노) 신부와 허창덕(치로) 신부가 있었고,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서석태 부제와 한 명의 신학생도 있었다. 수녀들은 연길 성 베네딕트 수녀원의 김 제르투르다, 안 룯, 사베시아, 박 데레사, 이 예와, 이 라우데스, 김 블라치다, 김 베네딕다, 이 마우라, 임 그레고리아 등이었다.

이광재 신부는 6·25가 발발하기 전날인 1950년 6월 24일 체포되어 원산 와우동 형무소 특사감방에 수감되었고 10월 8일 41세의 일기로 순교하였다. (사진 출처 : 천주교 양양교회의 엽서. 자료제공 : 양양읍 김두한)



한국전쟁 시 불타기 전의 천주교 성당



제2부



답사자료





제2부 답사자료

양양군은 해방이 되면서 38선이 가로질렀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의 현남면, 현북면의 9개 리, 서면의 3개 리는 38이남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 마을과 접경한 지역에선 상호간 불상사도 많았다. 그러나 그 불상사들도 모두 우리들의 자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양양의 사람들은 이 38선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38선을 넘나들며 장사도 하고, 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는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해방이 되면서 수북이 될 때까지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양양군 140여 개 마을⁸⁴⁾을 토박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84)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 위주로 조사하고, 그리고 없어진 마을도 조사하였다. 그렇다 보니 140여 개 마을이 되었다.

1) 38선 이남의 양양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면서 10월 1일 38선을 돌파할 무렵을 전후하여 38선 이남 지역은 약 100일 정도 인공의 통치를 받았었다. 이 기간을 일러 주민들은 ‘100일 정치’라 하였다. 실제 100일은 되지 못하지만 약 100일은 된다는 뜻일 게다. 이 기간 동안 마을을 점령한 인민군들은 처음에는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는했으나,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차츰 마각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며칠만 더 늦었어도 어떤 사단이 났을 것이라 말들을 하였다. 아래의 단편적인 삽화들은 당시의 여러 사건들 위주로 꾸몄다.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00일 정치와 자아비판

38선 이남의 현남면 사람들과 현북면 사람들은 6.25가 터지고 9.28 수복이 될 때까지(실제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 약 100여 일의 기간을 100일 정치라 불렀다. 이 기간 동안에는 피난을 거의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민군의 진격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하루이틀 피난을 갔다가 인민군을 만나서 인민군이 하는 말을 듣고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민을 해방시키러 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인민군의 말대로 인민군은 별달리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내무서원과 이들의 지령을 받는 세칭 지방빨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

다. 이들이 온갖 악독한 짓은 모두 하였다. 특히 우익이나 지주계급이 겪어야 했던 것은 혹독한 자아비판이었다.

입암리 토박이인 김상○은 멋모르고 아버지를 쫓아갔다가 자아비판을 하고 혹독하게 두들겨 맞는 아버지를 옆에서 바라보아야 했다.

지방빨갱이들은 구두를 신고 방망이와 각구목 등을 들고 아버지가 말 한 마디 하기 무섭게 때려댔다. 그리고 혁대로도 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강현면 도문리 출신인데 이북지역에서 왜 월남을 해 이남으로 살러 왔냐는 것이었고, 또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7년간 반장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를 대라고 죽치는 것인데, 이런 일들에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 아군에 가족을 보낸 세칭 군인가족들도 이런 고통을 한두 번씩은 겪어야 했다.

들리는 말로는 9·28수복이 하루이틀만 늦었어도 아버지를 비롯한 이른바 반동분자들은 죽었을 것이란 말이 들렸다. 사태가 여의치 못하면 반동분자들을 모두 호리가다(참호)에 몰아넣고 사살한다는 것이었는데 아군의 진격속도가 워낙 빨라 미처 죽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입암리는 6·25 이전에도 당시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던 곳이었다. 9·28수복이 되자 이들 지방빨갱이들은 월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처 월북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는데, 세포위원장을 하던 이들은 동네사람들이 남애리 지서 가는 산길로 데리고 가 경찰 입회 하에 때려 죽이는 보복이 펼쳐지기도 했다.

* 호국군(護國軍) 현남중대

현남면에는 호국군 중대가 있었다. 상위부대로 주문진에 대대가 있었고, 대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다. 그래서 그 상위부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⁸⁵⁾ 다만 군⁸⁶⁾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고 군의 명령을 받아 여러 일들을 처리했다.

현남면의 중대가 몇 중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대원들은 현남중대라고 명명했다. 그 아래에 4개 소대가 있었는데, 각 소대별로 50여 명의 인원이 있었으니 대략 200여 명의 대원이 있었다. 주문진 대대장은 석종문(남·1920년생)⁸⁷⁾이었고 현남면 중대장은 최용철이었고, 4개 소대장은 1소대장 박성수(인구리), 2소대장 박병호(인구리), 3소대장 박수호(북분리), 4소대장 김주철(잔교리) 등이었다. 김주철은 인구 이봉록 한약방의 사위였다. 그 외 중대장의 연락병이었던 김택진, 그리고 전보암, 최돈기 등이 활동을 했었다. 당시 사무실은 인구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동창여인숙 부속건물에 있었다. 임대료 없이 임시로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임하사였던 홍현진이 주로 근무했었다. 그 외 대원들은 별달리 계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대원이라 칭했었다.

대원이 되는 조건은 18세 이상의 청년이었다. 젊은 청년이라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가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 즉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인물 등은 제외해 주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지방자위대처럼 지방의 자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무기는 99식, 38식이라 하여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무기와 미군으로부터 M1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1인당 1정씩 돌아갈 만큼 여유가

85) 본고 <호국군> 항목 참조

86) 軍이었고 미군과도 관련이 있었지만, 경찰과는 관련이 없었다.

87) 주문진읍장 역임. 1988년경 사망.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평상시에는 중대본부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 시에는 지급을 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복과 켈로부대 모자도 지급받아 착용했다. 당시 군복은 얼룩무늬가 아닌 일반적 녹색 계통의 군복이었다. 그리고 신발도 농구화 같은 것을 지급받았다. 재원의 출처는 모르지만 경비는 지원받았다. 그러나 임금은 없는 무보수였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훈련을 하고, 인민군이 무단침입하면 군경과 같이 출동하였다. 주로 해안의 경비를 맡았고 검문 등의 일도 동참하였다. 간첩이 침투할 적에 같이 수색작업에 나가기도 하였다. 현북면의 지경까지 통괄하여 현남중대가 활동하였으나 그러나 실제로 현북면까지 가서 활동한 적은 없었다. 평상시 교육은 총기분해 및 소지, 긴급출동 때의 행동요령 숙지 등의 교육을 수시로 하였다.

그러나 밤에 나가 철조망 등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사람들을 징발해서 호를 파고 철조망을 친 것은 낮에 하였고 호국군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6·25가 터지자 울산 방어진으로 피난했다. 여기에서 일부는 현역으로 입대했고, 당시 호국군의 지휘부는 고향으로 돌아가 지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군이 있는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올 수 없어서 울진 근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을 소식을 탐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울진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김귀영을 만나 고향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50여 일을 객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도 국군이 수복을 하기 전에는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피신을 다니곤 하였다. 호국군의 활동은 이때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이○국은 지금은 인구리에 살고 있지만, 당시 아랫면옥치에 살고 있었다. 당시 면옥치는 남북한간 접경지대로서 상호간 침투가 잦았다. 1949년경의 일이었고 당시 13살이었다.

한번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일어나 부엌문을 열고 보니 시커먼 놈 두 놈이 무엇인가 뒤지고 있었다.

깜짝 놀란 두 놈이 누구냐고 묻기에 주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두 놈은 주인이면 가만히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좁쌀로 밥을 해먹는 것이었다. 당시 쌀은 귀해서 좁쌀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공비임을 짐작한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랫집에 가서 알리라고 하면서 두 놈 몰래 내보냈다. 마침 아랫집에 한청 부단장 집이 있었다.

밥을 먹던 두 놈이 별안간 문을 열고 빠끔 들여다보더니 할머니가 없는 것을 찾아내었다. 그러더니 “이거 큰일났다 신고하러 간 모양이다” 하더니 총을 아버지에게 들이대고 앞장을 서서 길안내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도 잘 모르고 나이도 많아 못 간다”고 하니

두 놈은 “따라 나서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버지는 천천히 가면서 아군이 올 때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천천히 가니 두 놈은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천천히 갔는데, 끝내 연하동까지 가도 아군의 기척은 중무소식이었다.

면옥치리의 연하동만 넘어가면 이북이었다. 이 곳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당시 포락이 나서 물이 나가면서 논이 이렇게 떨어진

곳이 있었다. 달이 환하지만 그 곳은 그들이 저 있었는데, 얼마 안 가면 38선을 넘어갈 테니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아버지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고 하였다.

그러니 두 놈이 칼을 들이대면서 다시금 위협을 하는 것이었다. 총을 쏘면 총 소리가 날까봐 총을 쏘지 못하고 칼을 들이댄 것이었다.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고 했다.

그러니까 두 놈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한 시간 있다고 가라”고 하였다. 자신들의 자취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놈이 저만치 가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포락이 진 그늘 속에 숨어 살살 기어서 연하동의 형철이네 집으로 내려왔다.

“형철이, 형철이.” 하고 부르니

형철이가 나오면서

“자네가 어떤 일이나? 자네가 공비에게 붙들려 갔다고 하여 지금 38선에 비상이 걸려 야단이다.”

당시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8사단 10연대 5중대였다. 중대 사무실이 어성전에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성전에 가서 도망친 사연을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래서 형철이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우리 집에 연락을 좀 넣어주게.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형철이가 집으로 연락을 하러 가는 도중에 면옥치 서낭고개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형철이가 어머니에게

“어디 가십니까?”

“영감이 붙잡혀 갔는데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당신 남편은 지금 무사히 빠져나와 지금 어성전 5중대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계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종내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어성전의 5중대에 가서 신고를 하고 화랑 담배를 두 갑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

* 소 한 마리의 기쁨

강숙자는 하월천리 출신이지만 인구2리에 시집을 온 다음에 6.25를 겪었다.

이른바 백일 정치가 지나고 나서 동짓달이 되자 ‘겨울 난리’를 겪어야 했다. 중공군이 내려온다고 하여 남들은 피난을 갔는데 강숙자는 시어머니가 병이 걸리는 바람에 피난을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구리에서 겨울난리를 겪게 되었다. 그 해 겨울엔 눈도 참 많이 왔었다.

시어머니가 병환이 있어 멀리 거동을 할 수는 없어도 가까운 곳으로는 피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근 산 속에 구덩이를 파서 움막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쌀을 갖고 가 밥을 해먹곤 하였는데 당시 반찬이라고는 장이 전부였다. 밥도 비행기 폭격이 무서워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야 해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인근 산 속에서 3달을 살았다.

당시 키우던 소 두 마리도 산 속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소도 무엇을 아는지 3달 내내 울지를 앓는 것이었다. 어쨌든 3달을 산 속에서 보내고 집으로 내려와 있으니 이번에는 패잔병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소란을 피우니 할 수 없이 아군이 진격한 북쪽으로 다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소 두 마리를 끌고 양양까지 왔을 때였다.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더니 작은 소를 끌고 가면서 큰소는 농사를 지을 때 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군인들이 인민군 패잔병인지 아니면 군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강숙자는 소가 한 마리라도 남아 있게 된 것을 감사했었다.

* 수색대의 횡포

수색대는 9.28 수복이 될 때 선두에서 목숨을 내걸고 먼저 들어온 군인들이었다. 목숨을 내걸고 들어온 만큼 일 처리가 시원시원한 점도 있었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부녀자 겁탈이었다.

심일○은 정자리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경찰이었다. 6.25가 터지자 심일○은 경찰인 남편을 따라 피난을 가면서 집에는 나이 먹은 시부모와 19살 먹은 시누이만 남겨두었다.

시부모와 시누이는 100일 정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경찰가족이라 하여 신변의 위험이 가중되자, 정자리 근처의 서리골이란 곳으로 피난을 갔었다. 산 속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집에서 쌀과 김치를 갖고 가서 생활을 하었는데, 쌀과 김치가 떨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잠시 돌아왔다. 마침 그때가 아군 수색대가 들어올 무렵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마주치게 되었다.

수색대는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고는 식사를 한 다음에 시누이를 끌고 학교 뒤쪽으로 가버렸다. 당시 수색대는 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정황을 목격한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시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너 같은 것은 죽여야 한다면서 끌고 나오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탕탕 났다는 것이다. 이후 시누이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 아이마저 죽었건만

김인량은 원포리에서 출생하여 두리로 시집갔다. 6.25가 터질 적에 인구지서 곁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신발을 주로 팔았는데, 남편은 부산에 가서 짝으로 떼다가 도매도 하였다.

6.25가 나던 날 비가 구질구질 내렸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팡! 팡!” 하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큰길 앞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곳에 포탄이 막 떨어지는 것이었다. 당시 남편은 반장을 하였기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피난을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청단원들이 나타나더니 짐을 좀 지어달라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한참 후 남편이 나타났다.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떠날 때 지서에서 하는 말이 주문진만 가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걸 주문진을 나가니 강릉만 가면 괜찮다고 하였고, 또 강릉에 가니 삼당령을 넘어야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당령을 넘어 조금 더 나아가 여량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벌써 그 곳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이 하는 말이

“우리 인민군은 사람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의용군을 뽑는다고 하여 야단이었다. 남편, 시숙2분, 시동생1명과 이웃집 남자들은 대치리 환재로 도피를 했다.

그랬더니 내무서원들에게 맨날 불러갔는데, 김인량은 그래도 어찌다 끌려갔지만, 김인량의 큰덕형님은 매일 밤낮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데, 도피자를 잡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중으로 수시로 찾아와 도피자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

다. 이를테면, 밤이 깊으면 마당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불을 켜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큰댁형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호롱불을 밝히면 들어와서 살펴보고는 또 도장도 살펴볼 것이니 또 도장⁸⁸⁾에도 불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떨리는 손으로 불조차 제대로 못 밝혀 몇 번이나 해야 겨우 불을 밝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을 모두 살펴보고는 나가곤 하였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밤중에 일어났었다.

당시 지서를 분주소라고 불렀다. 거기 끌려가 있을 적에 세 살짜리 아이가 병이 걸렸다. 큰님이라 부르는 홍역을 심하게 하였는데, 그만 죽게 되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방에다 놔두고 김인랑의 시어머니가 조카를 끌어안고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내무서원들이 대창, 쇠뿔창, 칼 등을 들고 와서는,

“도피자들 왔나?”

하고는 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더니 살펴보고는 또

“애가 이렇게 됐나?”

이러니, 시어머니가 아무 대꾸도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앉아 있으니 가까이 와 들이대면서

“애가 죽은 애나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죽은 애를 내가 왜 끌어안고 있나? 봐라.”

그러니 한 녀석이 있다가 나머지 두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아이가 죽어도 장사를 지낼 남자가 없었다. 당시 시아버지는 분주소 영창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으니 장사라도 지낼 수 있게 잠시 내보내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그래도 소용이

88) 곡식을 넣어둔 방을 이르는 말.

없었다. 그래서 김인량은 사람을 사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잃고 나서 추석을 쉬고 나서 추위가 찾아오자 옷가지를 해 갖고 남편 일행을 찾아갔다. 갔더니 남편은 군인들이 오는 곳으로 갔다고 시속이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왜 이 곳에 왔냐고 그 속도 모르면서 야단을 하는 것이었다.

* 군인을 숨겨주었더니...

김신월은 6.25가 터지자 시부모와 시누이들과 함께 강릉 사기막으로 피난을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6명이 있었는데 셋은 군인이고 셋은 경찰이었다.

김신월 일행이 들어가니 6명이 일행에게 묻기를
“인민군이 나갔습니까?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시오.”

당시 밥은 없고 보리쌀 삶아놓은 것이 있어 그것을 드렸더니 그걸 모두 퍼먹고 나서는 하는 말이

“세상이 온통 인민군 천지이니 우리를 숨겨달라.”

이 사람들 6명 중 3명은 경상도 출신 군인이었고, 3명은 북분리, 대치리 등 근처마을의 경찰이었다. 그래서 경찰 세 명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록 설득하였고 군인 3명만 숨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우선 이들이 갖고 있는 총6자루와 실탄 300발, 군복과 경찰복 등을 모두 헛간 속에 숨겨놓았다. 예전 집들은 고무라이라 해서 용마루와 지붕 꼭대기 사이에 빈 공간이 마치 다락처럼 컸었다. 그래서 이 곳에 널빤지를 깔고 자기에 편하게 만들어 놓고 또 요강도 올려놓아서 이들이 숨어 지내기에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당시 김신월의 집이 기와집으로 인근에서는 가장 넓은 집이

어서 인민위원회 등 여러 주요한 정치적 모임을 이 집에서 갖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고무라에 있는 이들은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여러 말들을 듣고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결코 아군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한 달여가 지나간 다음 시아버지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던지 이들 군인 3명을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우리집 아들이 경찰이다. 그렇다 보니 나도 모진 고통을 당하고 집도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너희들도 발각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 금방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테니 이제는 너희 집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 보고 의복을 장만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주문진 시장에 나가서 고무신 3켤레와 맏고재 3개를 샀고, 할아버지가 입던 것과 아랫집에서 얻어온 중의적삼 등 3벌을 마련하여 주었다. 그렇게 하여 이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연곡면에서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김신월이 배를 날고 있는데 지방빨갱이인 외다리가 턱 대문간에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군인 3명의 모습이 보였다.

김신월은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고 소리쳤다. 마침 옆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미쳤나. 죽긴 뭐 지랄하느라고 죽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말씀만은 어린 며느리를 안심시키느라 강단이 있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얼굴빛은 좋지 못하였다.

군인들 3명은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한 달여 간의 생활을 이실직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방빨갱이들이 이들 3인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지방빨갱이들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총알, 총 등을 찾아내고는,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느냐?”

“시아버지는 소침을 놓아주러 개매(주문진읍 향호리)에 가셨다.”

“신랑은 어디 있냐?”

“신랑은 경찰이어서 피난갔다.”

“경찰가족이어서 군인을 숨겨주고 그랬구만.”

그러더니, 지방빨갱이는 시아버지가 들어오면 분주소로 오라고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시아버지가 오신 다음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곧바로 분주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밤이 다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필경은 큰 사고가 났구나 짐작하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김신월은 시어머니와 함께 분주소로 갔다.

당시 분주소 주임이 정호○이라고 아는 사람이었다. 김신월 일행을 보더니 “주리를 틀 년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었다. 김신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 동창생이 한 명 분주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아버지 면회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간신히 시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을 해다 다와. 그리고 누구누구 등 빨갱이 두목들을 만나보라.” 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누구 등을 만나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지방빨갱이들이 매일같이 죽인다고 말하고 다니니 김신월 가족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시아버지가 허리춤을 잡고는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후에 들은 말이지만 석방의 과정은 이러했다.

어느 날 현남면의 지방빨갱이들이 모두 모여 시아버지를 죽일까 말
까를 의논했다. 정호○이 시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들을 왜 경찰을 시켰나? 먹을 게 없어서 시켰나?”

“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말릴 수가 있다.”

그 외 몇 가지 더 묻고는 지방빨갱이들의 70%가 시아버지가 큰 잘못이 없으니 살려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더라는 것이다.

“참. 할아버지가 운이 좋았소. 오늘 우리가 회의해서 석방하기로 결론이 났소. 그래서 풀어주겠소.”

그렇게 하여 시아버지는 정호○의 덕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색대가 들어온 다음 시아버지는 정호○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잘못 하다가 같이 죽을까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정호○은 댁골의 한 친구집에 있다가 끝내 수색대에 붙들려 죽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김신월은 가슴이 아팠다. 누구는 시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런데도 누구를 도와주지 못한 까닭이었다.

* 총알을 막아주는 솜이불

솜이불을 막 뒤집어쓰면 총알을 안 맞는다고 했다. 구덩이에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위에 솜이불을 덮어놓고 물을 막 퍼부어 놓는다. 젖은 솜이불을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하면 총알이 뚫지 못한다고 한다.



50년이 넘는 솜이불

* 비행기가 떠야 좋은데 오늘은 비행기가 왜 안 뜨지

정병교의 가족은 6.25가 터지자 정선까지 피난을 갔지만 곧 이내 돌아왔다. 다른 누구처럼 인민군이 벌써 진주하여 집에 가라고 말했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당시 100일 정치라 불리던 시절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하루도 비행기가 공습을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비행기 공습이 무서워서 낮에도 산으로 피난을 가곤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병교의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행기가 떠야 좋은데 오늘은 비행기가 왜 안 뜨지.”

그런데 마침 곁에 있던 이가 인민위원장의 어머니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인민위원장은 어머니를 붙잡아 가서 족치기 시작하였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대었다면 그 말을 한 사람도 붙잡혀 가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어머니는 비행기가 뜨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지 못하는 분이였다. 주위에서 어찌다가 주위들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잘 모르는 형편이니 누구라고 들이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든 시택사람들도 며느리가 집안사람 모두 잡으려고 한다고 며느리(어머니)를 야단하곤 하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집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죽리는 절골집, 가운데집, 횃골집 등이 지방빨갱이였다고 한다.

* 도민증 때문에 건진 목숨

조○구는 부모님과 누이 부부와 함께 동짓달(음력)에 피난을 나갔

다. 14후퇴를 의미하는데, 그때 도민증이라고 하여 도민증이 있어야 간첩 취급을 받지 않기에 도민증을 발급을 받으려고 주문진읍으로 먼저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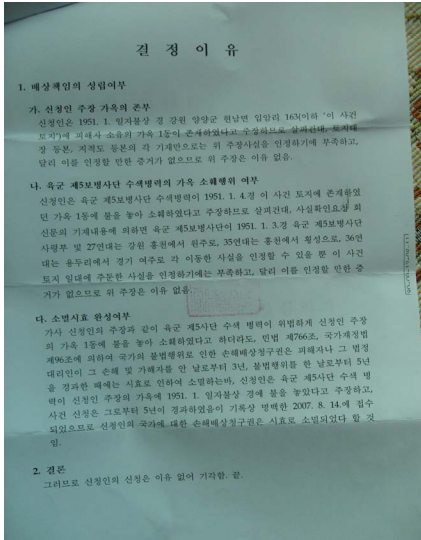
그때 주문진에 있던 아군이 매형을 보더니 덩치가 있고 나이도 적당하니 짐꾼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매형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징병을 갖다온 경험이 있었다. 또 한 번 고생을 할 판이었는데, 부모님이 나서서 군인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사위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장인장모도 살 길이 없다.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이 피난길을 인도하겠느냐?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실랑이를 하느라 도민증 발급이 늦어졌고 그래서 해가 누엿 누엿해서 조금 늦게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연곡을 지날 때였다. 주변에 그들보다 조금 일찍 떠난 사람들이 모두 폭격을 받아 사망하여 갖가지 형상으로 연곡다리 근처에 있는 것이었다. 조○구 일행은 도민증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격이 되었다. 그렇게 떠난 조○구 일행은 안인 모전리에서 피난을 했는데, 당시 출산한 아이 하나는 잃었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학질에 걸려 고생을 하면서도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 상월천리에 불 지른 사람은?

이른바 14후퇴 당시 아군이 후퇴하면서 집들을 불살랐다. 겨울이니 남침하는 인민군과 중공군이 추위에 허덕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동해안에 있던 부대들이 후퇴를 하면서 집들을 불살랐는데, 상월천리의 집들은,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직접 와서 불태



8군단 사령부의 결정문

운 이는, 군인이 아닌 순경이 했다고 조○구는 증언했다.

당시 상월천리의 집들을 불태우려고 왔던 이는 인구지서에 근무하고 있던 전호길이란 순경이었다. 전호길은 한때 상월천리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조○구는 잘 알 수밖에 없었다. 마을이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 이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낸 모양으로 조○구는 짐작했다. 이때 전호길은 집 3채는 남겨두고 불을 질렀는데 남아 있던 3채는 이튿날 군인들이 마저 불태우고 말았다. 또한 바깥에 내어놓은 세간마저도 군인들이 모두 불태우고 떠나갔다.

전호길은 순경이었지만, 아마도 명령은 군부대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조○구는 짐작했다.

* 전봇대를 자른 사연

하월천리 윤태열의 형님이 당시 이장을 했다. 그래서 인구와 남애지서를 연결하는 전화가 집에 있었고 그 전화를 연결하는 전봇대가 집 마당에 있었다. 6.25 아침에 다급하게 울려지는 전화벨소리를 듣고 6.25가 터진 것을 남들보다 일찍 알았는데,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장을 했기 때문에 이복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우선 전봇대를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형님과

둘이서 연장을 가지고 진봇대를 식전에 베어버렸다.

아침을 먹고 윤태열의 형님은 도피를 하였다. 그러나 윤태열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온 것처럼 손발에 흙을 묻히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가물어서 늦모를 심고 있을 때였기도 하였다.

얼마 후 인민군이 들이닥치더니 형님이 사용하던 책상이나 방 안팎을 살살이 뒤져보곤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아서 의외라고 생각했다.

* 의좋은 형제

인민군이 의용군을 뽑으니 윤태열의 두 형제 중의 하나는 할 수 없이 의용군을 가야만 했었다. 당시 윤태열은 총각이었고 형인 윤광렬은 결혼한 상태였다. 그래서 윤태열은 자기가 의용군으로 가겠다고 하였는데, 형님인 윤광렬은 아우가 아직 어리고 세상물정에 어두우니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자기는 나이도 많고 세상도 그만큼 많이 알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도망쳐 살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결국은 형님인 윤광렬이 의용군을 갔다.

윤광렬은 의용군으로 가서 곧바로 도망을 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 끝내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다.

* 두 번 죽은 고희현

하월천리에서 지방빨갱이라 소문이 난 이는 6·25가 나기 전에는 알 수도 없었다. 그만큼 활동이 은밀하였는데, 6·25가 터진 다음 지방빨갱이로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학교 선생이었던 고희원과 지주였던 엄익

재였다. 엄익재는 당시 마을에서도 꽤 알아주는 지주였는데, 아마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쉽게 빠져드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가 생각했다.

고호원은 수복이 된 후 수색대에 붙잡혀 가 인구지서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빗맞았는지 살아서 하월천리 친구 집으로 도망을 쳤다. 이 소식이 어떻게 하여서 다시 수색대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호원은 다시금 붙잡혀 끝내 죽게 되었다.

* 술로 푸는 피명

고정원은 남편이 경찰이었다. 그래서 6.25가 터지고 세칭 100일정치를 받는 동안 술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다.

시아버지 형제가 3형제였다. 하루는 지방빨갱이들이 오더니 철사줄로 이들 3형제의 손목을 뒤로 묶더니 모두 끌고 가는 것이었다. 자라 목이라는 데, 지금은 동해석산이 있는 곳인데, 그 곳에서 모질게 두들겨 맞고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술을 해서 먹으면 피명이 사라진다고 하여 술을 빚어 큰덕에서 해먹었다. 고정원의 집안 형편은 술을 빚을 형편이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더니 큰덕에서 빚은 술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 술을 먹고는 시아버지의 피명도 많이 가시었다.

그 뒤로는 다시금 붙들어 가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겁이 나 밤낮으로 인근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 시부모를 비롯하여 시고모, 시조카 등 무려 5명.6명이 숨어살았는데 이때 이들에게 밥을 해다 주는 것은 고정원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밥을 그냥 해다 줄 수는 없었다. 지방빨갱이들에게 발각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방

빨갱이들이 찾아왔다가 멀리 사라지면 그때 밥을 부리나케 하여 머리에 이고 마치 나물하러 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산 속의 가족에게 갖다 주곤 하였다.

사실 지방빨갱이들도 무서웠지만 비행기 폭격도 무서웠다. 한 번은 산등으로 올라가는데 인민군이 발견하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산 속에 있으면, 비행기 폭격이 아니라 우리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내 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 다음에는 마을로 자주 내려왔다.

* 남로당원 이대학 간첩사건

이대학 간첩사건이 터진 것은 6·25 이전이었다.

남로당 조직이라 해서 이대학이 총지휘자였다. 집 옆에다가 땅굴을 파서 공작실을 만들어서 무전을 치는 것을 방첩대에서 전과를 감지하여 찾아내었다. 가까이 접근을 해 보니 지경리 쪽에서 밤중에 불빛이 보였다. 이 곳이라 짐작한 방첩대원들이 포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대학이 땅굴에서 땅위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체포를 하려는 순간 반항하기에 즉시 사살하고 나머지 일당도 모두 일망타진한 사건이 있었다.

이대학의 아들로 이동섭이 있었다. 6·25가 터지자 원포리의 소년단장이 되었는데 당시 나이가 17세였다. 수복이 되자 월북하였는데, 이후 북한에서 열심히 살아 고위직에 올랐는데 남북이산가족찾기 할 적에 이북 중앙방송 이사로 나타났었다. 이대학의 처, 그러니까 이동하의 어머니는 지금 강릉에 살고 있다고 한다.

* 준 대로 받는다

원포리는 이용민이 인민위원장을 했다. 이북에서 남침을 해 나와서 이용민이 위원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좀 좋지 않은 이들을 반동이라 해서 매일 저녁 마당이 넓은 집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아비판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이용민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간혹 이들이 지나치게 일을 하면 이용민이 나서서 못하게 말리곤 하였다.

최돈배라는 분도 순 농사만 짓던 농사꾼으로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6·25 이전에 순경한테 많이 맞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100일정치가 오자 그 양심으로 해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하자 이용민이 나서서 타일렀다. “지금은 이북정치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 행동을 조심하라.” 이용민의 충고를 받아들인 최돈배는 이후 행동을 고쳤고 더불어 아군 수색대가 들어왔을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이장, 반장을 하던 이들도 자아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려 할 적에 이용민이 나서서 이들이 이장, 반장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위해 한 일이니 그게 무슨 큰 죄냐고 하여 가벼운 처벌로 무마시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원포리에서는 좌우익의 갈등이 거의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이용민 자신도 아군 수색대가 들어온 다음 이런 일들로 인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재산이 될 소와 재산이 되지 못할 소

권오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 6·25가 터져 경황이 없었다. 그

래도 소를 끌고 강릉 자루매[병산]란 곳으로 피난을 갔다. 그 곳에 큰 누나가 시집을 가 있었다. 그래서 사돈집에서 같이 한동안 살았었는데, 당시 자루매란 곳이 강릉비행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수시로 교전이 불곤 하였다. 지상전뿐만 아니라 비행기 폭격도 심하였는데, 권오탁의 가족은 더 이상 피난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사돈집은 세 칸짜리 방이었다. 중간 방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놀았고, 우측 사랑방에는 할아버지들이 몇 분 앉아서 담화를 나누었고, 좌측 방문 앞에는 소 두 마리를 언제나 매어놓았다. 그 소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사돈집 소고 나머지 한 마리는 권오탁의 소였다.

하루는 비행기가 날아오더니 기총소사를 해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행기의 좌측 기총과 우측 기총이 사돈집의 좌우를 향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우측 사랑방의 할아버지 한 분이 사망하였고 좌측 방문 앞의 소 두 마리 중의 한 마리도 죽었는데, 결국은 비행기의 조종석 부근에 해당한 중간방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무사할 수가 있었다.

사돈집 소가 죽자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자기집 소를 사돈집에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사돈이 하는 말씀이,

“재산이 될 소가 있고 재산이 되지 못할 소가 있다. 우리집 소가 죽은 것은 재산이 되지 못할 소이고, 사돈 집 소가 살은 것은 재산이 될 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총소사를 당하고도 어린아이였던 권오탁은 천진난만하게 이웃집 아이들과 놀곤 하였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돈집 아이 하나는 눈이 멀었고 다른 이웃집 아이 하나는 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등잔불 밑에 무엇인가를 들이대었는데 그만 그것이 터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당시 권오탁의 나이는 12살-13살이었다.

* 의용군에서 도망치는 방법

고제설은 6.25 당시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주문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있었다.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피난을 가라고 난리였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막 퇴원한 허약한 상태라 어디로든 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겨우 몸을 추슬러 피난을 간 곳이 연곡이었다. 거기서 하루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남들은 광복절이라 말하는 8월 15일에 고제설은 의용군에 잡혀갔다. 그때 인근에서 가장 많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그만큼 전황이 안 좋았다는 증거다. 그런데 곧바로 전쟁으로 투입하지 않고 이북으로 끌고 들어갔다.

인민군복을 입고 소대장 연락병을 했다. 평북 영변 핵폐기물로 유명한 그곳까지 갔었다. 의용군으로 붙잡혀 가면서 내내 도망을 칠 작정을 하였지만, 소대장 연락병을 하다 보니 좀처럼 도망칠 기회가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제설은 한 꾀를 내었다.

소대장 총을 갖다가 밖에다가 내버렸다. 그랬더니 인민재판을 하면서 자아비판을 시키더니, 상황이 전시인지라 총살을 시켜도 무방하지만, 한 사람도 아쉬운 형편인지라 죽이지는 않고 일반 군대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었다. 소대장으로서 좋은 자리 박차고 나간 놈이 이상한 놈으로 보였겠지만, 내내 도망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고제설로서는 참으로 천금과 같은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그렇게 일반 군대에 3일을 있다가 끝내 도망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영변의 골짜기는 들어가는 입구는 좁지만 계곡 속은 넓기 그지 없었다. 그 골짜기만 벗어나면 되었기에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계곡 입구를 벗어날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의용군 생활을 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 한국군을 만났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여 평남 순천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보니, 피난민, 의용군 갔다가 도망친 이, 인민군 패잔병, 국군패잔병 등 가지각색이 수없이 나오는 것이었다. 참으로 못 보아줄 장면이었다.

순천에서 겪은 일이었다.

무조건 집에 가려고 나오는 사람은 여기 서리는 것인데, 금방 100 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실어서 순천 유치장 같은 곳으로 보냈는데, 그 곳에서 포매리의 정현식을 만났다. 당시 정현식은 헌병대에 입대해 있었는데, 일찍 고향을 떠났기에 고향 소식을 궁금해하던 차였다. 그래서 고향 소식도, 물론 2달-3달 전의 상황이지만 말해주고 또 서로 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현식은 고향에 돌아가거든 자기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평양의 시내 한 중학교 건물에 수용되어 있을 때 중공군의 개입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열차로 인천사발공장으로 와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이북으로 가는 피난

패잔병은 현남면 사람들이 9.28수복 이후의 뒤에 처져 있던 인민군을 부르는 명칭이다. 그런데 이 패잔병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이상하게도 이북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아군이 38선을 넘어 진격을 하면서 뒤에 남겨진 패잔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대관령, 연곡, 주문진 등지에서 모여 이북으로 올라오면서 약탈을 시작하면서 인민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실

처음 625가 터졌을 무렵의 인민군은 주민들에게 별달리 해를 끼친 것은 없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내무서원과 지방빨갱이들이었다. 그런데 아군이 수복을 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민군이 도망치면서 군수품을 보급 받지 못하니 민가를 약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소에 싣고 이북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북에는 먼저 진격한 아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심할 경우 고성군 통천까지 피난을 갔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 가재선

북한의 배를 가재선이라 불렀다. 정식명칭은 모르지만 워낙에 빨리 지나가면서 하얀 포말을 만들기에 마치 가재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크기는 일반 보트보다는 조금 컸는데 이 배로 북한의 실탄과 식량 등 군수물자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얼마 안 있어 이 배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왜냐하면 연합군의 함포에 모두 격침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처음 연합군의 군함이 나타났을 적에 가재선들이 재빨리 다가가 포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워낙 덩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포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가재선에서 기관총을 수없이 쏘아대도 연합군의 군함은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군함에서 함포를 한 번 쏠 때마다 한 척씩 가재선은 그냥 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그러니 가재선은 주문진항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러자 군함은 주문진항으로 또 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주문진항은 불바다가 되었다. 주문진항이 불바다가 되자 가재선은 인근 불가로 또 피신을 하였다.

남에 바닷가로도 몇 척이 피신을 하였는데, 포탄에 맞은 인민군을 보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다리가 끊어진 사람, 팔을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고 후송하는 사람 등등, 전쟁을 떠나, 있어서는 안될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 자기 집을 태우다

장현수는 625가 날 당시 남해1리에 살았다. 장현수의 집은 농사도 하고 어업도 하였는데, 당시 모심기를 한창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작은 오징어가 한창이어서 오징어를 잡아 50꼭지를 말려놓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포탄이 남해 지서 뒤에 떨어지고 아군들이 후퇴하면서 같이 피난을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소에 쌀을 싣고 피난을 떠났는데 연곡에 가니 인민군이 쏘는 포탄이 대관령 줄기에 막 떨어져 더 이상 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강릉 아래에 있는 안인으로 피난을 했다.

수복이 되어 들어와 농사를 마저 짓던 그 해 겨울이었다. 이른바 2차 난리라 부르는 14후퇴 때 장현수의 집은 아군의 소개명령으로 인하여 집들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명령을 남해지서의 경찰들이 수행했다.

당시 장현수의 사촌형이 경찰이었고 친형은 보조경찰이었다. 친형은 남들이 자기집을 불태우느니 차라리 자신이 태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하여 자기 집을 태워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다.

* 피난은 바다로

수복이 되어 고향집으로 돌아 온 것은 좋았지만 군인들이 복진을 하고 난 다음, 인민군 패잔병들이 그 뒤에서 복진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복진하는 과정에 인민군 패잔병들을 모두 소탕하지 않은 채 복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그런데 인민군 패잔병들이 복진을 하면서 처음에 내려올 때와는 달리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었다. 음식을 달라 하고 집에서 잠도 자겠다 하는데, 이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길 안내를 해달라, 등짐을 지고 가자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에서는 인민군 패잔병들이 밀고 올라오니 할 수 없이 이북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현수의 가족이나 바닷가의 주민들은 육지가 아닌 바다로 나가 피난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장현수의 아버지는 돛배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인민군 패잔병들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음식을 돛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왔는데, 며칠 후 또 인민군 패잔병들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번엔 아예 삼척 정라진으로 돛배를 몰았다. 장현수의 가족은 남쪽으로 피신을 했지만, 주민들 중 고성군 통천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아군이 원산까지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술쌀과 밥쌀

동짓달 겨울에, 이른바 14후퇴 때 아군을 따라 피난을 갔다가 돌아

오니 어디로 갈 데가 없었다. 왜냐하면 피난을 가는 와중에 모든 집들이 불에 탔기 때문이었다.

당시 장현수의 집은 200여 평의 널찍한 집이었는데, 집은 불탔어도 주위에 둘러놓은 울타리는 불에 타지 않았었다. 그래서 울타리를 뜯어 그 재목으로 기둥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 이웃집에 함석으로 지붕을 한 집이 있었기에, 그 집 함석을 벗겨 또 지붕을 이었다. 비행기가 폭격을 할까봐 슬가지를 꺾어와 지붕에 덮어 위장을 하였다. 이렇게 만든 임시 거처를 움이라 불렀다. 움막이란 뜻이다.

잠잘 곳은 그러저럭 해결을 하였지만 먹을거리가 문제였다. 피난을 가기 전에 땅에 묻어놓은 쌀은 집이 불에 타는 과정에 화기(火氣)를 입어 망가져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불에 탄 쌀을 버리자니 달리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쌀로 술을 담갔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불에 탄 쌀 모두를 술을 담그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그 쌀을 씻으려 고무다라(함지)에 담가놓았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다. 도저히 개인이 먹으려고 담근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다.

아군의 수색대가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고무다라에 담긴 술쌀을 보더니 아마도 이는 인민군들이 먹으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장현수의 형이 보조경찰이었다. 그래서 경찰가족이라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이 담가 놓은 것은 밥쌀이지 술쌀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침 아버지가 다리춤에 태극기를 걸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솜바지를 걷어 태극기를 보여주었더니 그때서야 아군이 인정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었다.

장현수의 가족은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

을 뻔했다. 지금도 장현수는 가게 앞에 국기계양대를 만들어놓고 태극기를 매단다.

* 명태 덕장의 덕나무

최성용은 6.25가 터질 당시 남해2리에 살았다. 최성용의 아버지는 명태를 말려 북어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6.25가 나기 전에는 명태를 말려 북어로 만들어 한 두름에 20마리씩 싸리나무로 엮어 30두름씩 만들어 충청도로 보낼 정도로 사업수완이 좋았고, 또 명란, 창란 등을 만들어 쌓아놓은 창고도 갖고 있었다. 이 물량을 대기 위해서 근방에서 가장 큰 명태 덕장을 갖고 있었는데, 명태덕장은 황태덕장과는 달리 바닷가에 주로 만들었다.

덕장을 만드는 나무를 덕나무라 하였다. 6.25가 터질 무렵은 마침 여름이라 덕장에 매달아 놓은 명태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은 크지 않았다. 큰 손실은 2차 피난 때 발생했다. 2차 피난은 동지선달의 피난이었다. 14후퇴가 양력으로는 1951년 1월 4일이지만 음력으로는 1950년 동짓달(11월) 27일이었다. 이때는 아직 덕장에 명태를 걸어 말릴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명태로 인한 손실은 없었지만 명태를 걸어 말리는 덕장 자체가 문제였다. 덕장의 덕나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덕장의 덕나무가 없어진 것은 폭격 때문은 아니었다. 이웃사람들 때문이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웃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14후퇴 때 피난을 나갈 때 모든 집들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 돌아와 보니 집을 지을 재목이 필요했다. 이때 바닷가에 있는 덕장의 덕나무는 좋은 재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덕나무를 하

나들 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명태덕장의 덕나무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최성용의 아버지는 이로 인하여 화병(禍病)이 나 몇 년 후 사망하고 말았다.

* 피난할 겸 모를 심자

박창호는 6·25가 터질 무렵에 14살이었고 인구1리에 살고 있었다. 6·25가 터지기 전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비가 오지 않아 모를 심지 못해 걱정이었던 부모님은 늦게나마 오는 비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녘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어수선한 것이었다. 순경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전쟁이 났으니 피난을 가라는 것이었다. 박창호의 부모님은 상의하시더니, 그러면 피난을 할 겸 광진리3반에 있는 다락논에 가 모를 심자. 다락논이 있는 곳이 외지기 때문에 안성마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통장 등 귀중품은 챙겨 가자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하여 박창호의 집안은 피난을 할 겸 모를 심으러 다락논으로 향했다.

광진리3반 다락논에 도착하여 모를 심으려는 부모님은 도저히 모를 심을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모를 심는 것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제대로 살림을 챙겨 남애로, 다시 주문진으로, 또 다시 연곡으로, 마지막으로는 강릉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남애만 가면 된다 하여 남애를 가보면, 순경들이 다시 주문진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주문진을 가면 다시 연곡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또 연곡으로 가면 또 다시 주문진으로, 주문진에 가면 강릉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피난살이는 결국 강릉에서 하룻밤을 자

고는 다시 삼당령을 넘어 영천으로 해서 울산방어진까지 이어졌다.

* 5중대 털보 중대장

6·25가 터지기 전에 동해안을 사수하고 있던 군대는 8사단 10연대였다. 연대 사무실은 강릉 화부산에 있었는데, 현남면, 현북면에서 주로 활동하던 부대는 10연대 소속으로 흔히 5중대, 6중대로 알려진 두 개 중대였다. 그 중 5중대 중대장 털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해진다.

이 사람은 성명보다도 멋있게 기른 구레나룻 때문에 털보중대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워낙에 모습이 털보이다 보니 팔로군 출신이란 루머까지 떠돌았다. 6·25가 터지기 전이라도 국경에서 분쟁은 수시로 일어났다. 이 분쟁은 1948년·9년경이 더욱 치열했는데, 당시 38선을 넘나드는 공비를 색출하는 데 털보 중대장이 일가견이 있었고 싸움도 곧잘 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전과를 올린 것이 문제였다. 오늘은 몇 명을 잡았고, 또 오늘은 몇 명을 사살하였다 하니 한두 번이어야 믿지 너무 자주 보고를 하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미군 쓰리쿼터가 오더니 인구 다리 밑에다가 가마니를 버리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하여 동네 꼬마아이들이 나가 가마니를 열어 살펴보니 바로 잘라진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털보 중대장이 공비들 머리를 베어 상급자에게 보이고는 곧바로 이 곳에다 버린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털보 중대장이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공비의 머리를 베어 상급자에게 보이고 곧바로 이 곳에 내어버린 것이라 생각했다. 혹

은 아마도 상부에서 머리를 잘라 오라는 명령이 있지는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후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상부에서도 더 이상 털보중대장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안질 때문에

홍현국은 인구2리 토박이로 지금까지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6·25 때는 할 수 없이 이 마을을 벗어날 뻔한 적이 있었다. 의용군 때문이었다.

6·25가 터지고 인민군이 내려와 처음 인민군의 전황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인민군의 전황이 나빠지자 의용군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홍현국이 사는 인구2리도 의용군 몇 명이라는 할당이 떨어진 것이었다. 저마다 가지 않으려 해도 몇 명은 가야만 하는 것이 할당이였다. 홍현국은 진실로 갈 수가 없었다. 이미 처자가 있고 늙으신 부모도 봉양해야만 했다. 홍현국은 피를 내었다.

눈을 문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눈알을 시뻘정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의용군 모집자가 오면 빨개진 눈을 보여주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갈 수가 없다고 시치미를 떼었다. 하루는 의용군 모집자가 의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의사에게 검사를 맡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동안 행했던 일이 거짓임이 판명나면 의용군으로 가기 전에 먼저 몽둥이찜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위기였다.

의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은 확대경으로 눈알을 살펴보면서 눈이 깜박이는지를 살피는 거였다. 홍현국은 정말로 죽기살기로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안질에 걸렸

고 이런 사람은 의용군에 필요 없다고 한 마디를 던지는 것이었다. 홍현국에게는 그야말로 가뭇에 단비 같은 말씀이었다.

* 칼에 31곳 찢린 사나이

6.25가 터진 다음 9.28 수복을 하고 양력으로 11월-12월쯤 되었을 때였다. 아군이 북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후방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많았고 더불어 미처 떠나지 못한 지방빨갱이들도 많았다. 연곡면 부연동에 지방빨갱이들이 굴을 파놓고 은신하고 있다가 식량을 조달하려고 건불리를 침입했다.

당시 이들은 식량만 조달해 간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 몇 사람을 짐꾼으로 데리고 갔는데, 고개를 넘자마자 자신들의 종적이 발각될까 두려워 데리고 간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을 쏘면 총소리가 날까 저어하여 총에 달린 대검으로 찢러 죽이려고 하였다.

대검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조병시는 옆으로 살짝 몸을 돌렸다. 그러자 대검이 빗나가자 찌르던 사람은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몸이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지방빨갱이는 “이 놈 봐라” 하더니 다시 힘을 주어 조병시를 찢렀다. 조병시는 대검이 살에 닿는 순간 나뭇대로 살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딱딱해진 살을 대검이 쉽게 파고 들지 못하였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하조직에서 대검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대검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느낀 지방빨갱이는 다시금 여러 번 조병시의 몸을 찢렀다. 이미 조병시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조병시는 정신을 잃지 않고 대검이 살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살에 힘을 주었다. 그러다가 조병시는 정신을 잃었다.

조병시가 깨어나 보니 길가였다. 정신을 수습하여 겨우 몸을 추슬러 내려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나중에 몸에 찢린 곳을 세어보니 무려 31곳이었다. 찢른 사람도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 제대로 찢르지 못하고 방어한 사람도 나름대로 기운이 있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병시는 수(壽)를 누리고 2008년 봄에 91살의 일기로 사망했다.

* 우익이 여덟 집 반

현남면에서 좌우익의 갈등이 심한 곳을 꼽는다면 입암리 일대가 손꼽힌다. 그런데 좌익이 많은 곳으로는 포매리, 견불리, 상월천리, 하월천리 등이 손꼽히는데, 실제 필자가 답사하기로는 어느 마을이나 좌익이 몇 명은 있었을지라도 많다라는 말은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견불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익이 여덟 집 반’이라는 말이 있다. 100호를 예로 든다면 85호 정도가 우익이고 15호 정도는 좌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좌익도 사실 제대로 된 좌익은 아니었다. 상전이 좌익이면 그 밑의 머슴들은 자연히 상전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625 전후의 사회구조였다. 이런 집들도 포함하여 15집 운운을 한 것이니 실제 좌익은 몇 집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 떠도는 말은 이와 같았다.

견불리에서 마을주민 스스로는 우익이 여덟집 반이라고 말을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 인근 포매리의 영향 때문인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좌익이 많다고 하였다. 무엇이 옳은 말인지는 오늘날 알 수 없다.

* 의용군 탈출기

6.25 때 20-30대였던 사람들은 누구나 의용군으로 붙잡혀 가지는 않나 걱정을 하였고 또 실제로도 의용군으로 붙잡혀 갔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건불리의 조철행도 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조철행이 처음 의용군으로 붙잡혀 갔던 곳은 원산 아래에 있는 자동면이라는 곳이었다. 이 곳에서 두어 달을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끝나고 호명을 하더니 일행을 두 패로 나누는 것이었다. 신체 건장한 이들은 의용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나이도 많고 허약한 이들은 짐꾼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었다. 조철행은 나이도 젊은이들과 나이든 이들 중간이고 또 눈치껏 활동을 하여 군인이 아닌 노무자 팀으로 편성될 수 있었다.

자동면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고성군을 거쳐 인제군으로 들어가 노역을 하였다. 고성군을 지나면서 보니 여성들도 대창을 가지고 보초를 세워놓은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인제에 도착한 것은 8월 중순쯤이었다. 장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면 쪽이었다.

당시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고향 사람이 10여 명이 있었다. 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였는데, 조철행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 하는 일은 그곳 사람들이 목도를 해놓은 나무를 엮어 때를 만들어 물줄기를 이용하여 서울 쪽으로 내려보내는 일이었다.

이후 인제군 남면으로 이동을 했다. 잠은 창고에서 잤는데 시멘트 바닥이었다. 그 위에 까는 것도 없이 그냥 자는데 8월이 아니었으면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밥은 밀을 섞은 밥이었는데, 아무리 꼭꼭 씹어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도 국은 먹을 만했다. 감자를 썰어 넣고 고등어조각도 들어 있었다. 일행은 관리자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관리자는 언제까지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약속시간이 되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노무자 400여 명은 집단행동을 하기로 하고 양구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냇물을 하나 건넜는데 그 곳에 자위대원 2명이 길을 막고 있었다.

“뭘 사람들이냐?”

“의용군 갔다가 나이가 많아 돌아가는 길이다.”

“당신들 말 믿을 수 없다. 확인해보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도로 냇물을 건너 학교 근처로 이동했다. 그 곳에서 나무 밑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기다렸더니 저녁이 되어 인근 민간인 집들로 분산배치를 해주는 것이었다.

이튿날부터 일행들은 다시금 노역을 하기 시작했다. 산에 가서 호를 파고 나무를 베고 하는 일이었는데 조철행은 그들에게 음식을 저다 주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은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과정에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비교적 손쉬운 일이었다. 그 틈에 산에 있는 잣이며 밤 등을 따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곤 하였다. 그리고 냇가에 구덩이를 파고 이들 과일들을 잘 싸서 과문어 놓았는데 후일 도망칠 때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후에 도망칠 때 보니 이것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다.

드디어 도망치기로 작정하고 어느날 밤 길을 나섰는데, 강물을 건너가야 했다.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행 중 건장한 이 몇몇이 건너가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가지 않아 벌써 물이 목 근처에 닿는 것이었다. 그러니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와 다시 잠을 청했다.

며칠 후 포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아마도 아군이 전진하여 교전이

붙은 모양이었다. 일행도 관리자를 따라 이동을 하였는데, 웬 사람들이 밤중에 피난민 보따리를 들고 송아지를 끌고 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다. 아군이 북진하니 지방 사람들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 지역은 38이북지역이 분명했다. 그러니 이북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었다.

관리자가 어느 날 고등어 한 손하고 쌀 두어 되를 각기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비상식량이다.”

하고는 이북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아득하기만 하였다.

일행은 길을 떠났다. 어느 산자락에 붙은 집에서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밤중에 나서려고 하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아군이 현리에 들어왔답니다. 4키로 정도 거리이니 밤에 가면 아군이든 인민군 패잔병이든 모두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날이 밝으면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새벽이 아직 캄캄한데 주인이 밥을 해주었다. 얻어먹고 가는데 냇가 건너 소로길이 보였다. 길은 한 줄기 뿐이고 달리 갈 길이 없는데 앞에서 군인들 한 떼가 오는 것이 보였다. 아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가 없었고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냇가를 건너 군인들과 조우할 수밖에 없었다.

냇가를 건너가 보니 인민군 패잔병들이었다. 총을 서너 개씩 묶어 말에 올려놓고 끌고가는 사람도 있고, 눈이 툭툭 부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고성에 사는 고종사촌을 만났다. 사상을 떠나 남과 북을 떠나 친인척을 이 곳에서

만나니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둘은 서로 만나 그동안 밀렸던 얘기를 전쟁터임을 잊고 떠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자연스레 떠드니 인민군 패잔병들이 조철행의 일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렇게 한 위기를 넘기고 가다 보니 서림이 나왔다. 서림은 벌써 아군이 지나갔는지 몇 대대는 어디로 가고 또 몇 대대는 어디로 가라는 벽보가 나붙어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림을 지나 면옥치를 향하였다. 면옥치로 가는 길은 30리 무인지경이었다. 사람의 모습을 찾기조차 어려워 마음은 금방이라도 고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면옥치가 가까워 올 무렵 갑자기 수풀 속에서 세 놈이 나타나더니 “손들어” 하는 것이었다. 보니 인민군 패잔병이었다. 옷차림은 저들이나 우리나라 한 가지였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그야말로 상거지차림이었다. 따라오라기에 따라갔더니 어느 작은 빈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 집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가득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그들이 세워놓은 총 여나쁜 개가 세워져 있었다. 부엌에서는 콩을 볶아먹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보니 인민군 패잔병들의 입가에는 볶아먹은 콩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인민군 패잔병들이 일행에게 음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 일행들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고등어 한 손이며 쌀이며 있는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일행 중의 하나가 오는 길에 옥수수를 따 놓은 것이 있었다. 인민군 패잔병들은 옥수수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일행은 그것을 주기를 한사코 거절하였다. 인민군 패잔병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여차하면 살인이라도 날 기세였다. 조철행은 급

히 그 사람에게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죽은 다음이면 옥수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설득을 하면서 옥수수를 빼앗아 인민군 패잔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와중에도 끝내 옥수수를 다 넘기지 않고 몇 개를 감추고 있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었더라면 참으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당시 조철행의 혁띠가 폭이 넓었다. 이곳을 발견한 인민군 패잔병이 자기 것하고 바꾸자고 하였다. 거절이란 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 바꾸어 줄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 패잔병들은 일행에게 묻기를

“서림에는 국군이 있느냐?”

“없다.”

“믿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길을 안내해라.”

할 수 없이 일행 중 4-5명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하여 일행 10여 명은 반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참을 가다가 또 다시 총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길가에서 호박을 구워먹고 있었는데, 정체는 지방빨갱이들이었다. 아군이 복진하자 이북으로 도망치는 중이었다.

조철행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길을 안내하라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끄끙거리며 몸이 아픈 시늉을 했다. 사실 실제로도 몸이 아파 오던 참이었다.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눈치를 채고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자기 등에 업히려는 것이었다.

지방빨갱이들도 사람은 사람이었다. 조철행이 끄끙거리고 있자

“왜 이러냐?”고 묻고,

조철행을 업은 사람이

“사람이 아파 죽을라 한다”고 하니,

“저 건너 집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일행들이 그 곳에 집이 있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다만 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피를 내었을 뿐이었다.

조철행의 일이 끝나자 지방빨갱이들은 몇 가지를 더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인제서 왔다.”

“인민군이 어디 있더냐?”

“인제에 인민군이 꼭 찼다.”

그렇게 문답을 주고받고는 지방빨갱이들과 헤어져 벽실령을 향해 올라갔다. 혹시라도 또 인민군 패잔병들이나 지방빨갱이들을 만날까 저어하여 조철행은 아예 업혀 가기로 작정하였다. 일행들도 그것이 더욱 좋겠다고 찬성하였다. 다행히 조철행은 덩치가 크지 않아 몸무게가 가벼웠다.

벽실령 꼭대기에 와보니 나무구멍에서 “탁! 탁!” 소리가 났다. 바라보니 또 인민군 패잔병들이었다. 이들이 밤이 되어 추우니 나무토막을 구해와 불을 해놓고 있었는데, 나무토막이 타는 소리가 “탁! 탁!” 하고 났던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면옥치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서대석이란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조철행이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었다. 6·25가 나기 전이었다. 조철행은 아버지를 따라 이 집에 꿀을 사러 온 적이 있었다. 당시 꿀이 한 되가 채 나오지 않아 사지는 못했지만 한 번 와 보았던 경험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일행이 찾아들자 서대석은 반갑게 맞아들이며 고생했다고 위로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저녁이 이슬하도록 고생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행은 급히 호롱불을 끄고

동정을 살폈더니 마당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어 들려오는 말이,

“움직이지 말고 불을 켜라.”

그러면서 총이 확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서대석이 급히 불을 켜다. 역시 인민군 패잔병들이었다. 인민군 패잔병들은 서대석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더니 여기에서 자고 간다는 것이었다. 일행은 급히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안방에서는 인민군 패잔병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들려왔다.

“권총을 안 차보았더니 꽤 묵직한 걸.”

그걸로 보아 아마도 소대장을 잃고 새로 소대장이 된 부하장병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이들이 떠나고 난 뒤 일행은 주인에게 밥을 줌 얻어먹고 가자고 하여 다시 밥을 하였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귀신같이 또 인민군 패잔병들이 나타나 해놓은 밥을 다 먹고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또 밥을 빼앗기자 이번엔 하면서 또 다시 밥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인민군 패잔병들이 나타났다. 그래도 또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니 벽실령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인민군 패잔병들이 분명했다. 이 집에서 아침을 제대로 찾아먹으려고 하다가 찾아먹기는커녕 또다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아침밥을 얻어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 인민군 패잔병들을 만날까 저어하여 조철행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이트 사람 등에 업혀 이동했다.

* 인민위원회 대회

6·25가 터지고 난 뒤 인민군이 남침하면서 각 읍면마다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최현규는 1950년경 8월에 인구리에서 열렸던 현남면 인민위원회를 구경 간 적이 있었다.

최현규의 삼촌이었던 최용철은 호국군 중대장으로 근무했기에 6·25가 터지자 남쪽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지만, 다른 가족들은 떠나지 않고 고향에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안한 것은 말할 수가 없었다. 지주이고 가족 중에 최용철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남면에서 열리는 인민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최현규는 삼촌(최용철이 아닌 다른 삼촌)과 같이 나름대로는 얼굴을 가린다고 하여 맷고재를 쓰고 찾아가 보았다.

6·25가 터지기 전에 장수호라는 분이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죽은 적이 있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촌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연단에 나와 하는 연설이 놀랄 만큼 세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우익에 동조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 곳에 있다가는 몽둥이찜질이라도 당할 분위기였다. 그래서 슬그머니 아는 사람들 몇몇이 대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대회가 끝날 무렵에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던 우익에 동조했던 이들이 몽둥이찜질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최현규는 일단 도망을 쳤지만 밤이 두려웠다. 밤에 우익의 집들을 습격하지나 않는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정황을 살폈다. 밤이 되자 견불리, 포매리의 좌익 사람들이 횃불을 해 들고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짐작대로 우익의 집들을 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후 최현규는 낮에는 집에 있다가도 밤만 되면 인근 산 속으로 올라가 새우잠

을 자곤 하였다. 당시 최현규는 입암리에 살고 있었다.

* 포매리에 좌익이 많았던 이유

현남면에서 유독 포매리에 좌익이 많았다. 6.25가 터지기 전부터 이 지역은 좌익의 온상처럼 여겨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두원으로부터 기인한다. 조두원은 일제강점기 때 소련으로 유학을 갔다. 일설에는 모스크바대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어떤 공산대학이라고도 한다. 어느 대학에 유학을 하였던지 간에 주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온 것이었다.

조두원이 돌아온 다음 조씨 집안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 집안이라고 하여 모두가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한 집안 형제끼리도 좌익, 우익으로 갈린 곳이 포매리였다. 포매리는 농촌이었다.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었다. 소작농은 지주의 눈치를 봐야했다. 지주가 하자면 하고 가자면 가야 했다. 이들도 지주가 좌익이면 덩달아 좌익이 되어야 했다. 죄가 있다면 가난한 게 죄였을 따름이었다.

조두원이 살았던 집은 근래에 동해고속도 공사를 하면서 헐리게 되었다. 이제 포매리에서 좌익의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다.

* 모듬

6.25가 터지기 전에 모듬을 많이 했다. 장소는 주로 인구리였지만 참가자는 인구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현남면 전체의 모듬이었는데, 당시 인구리가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인구리에서 많이 모듬을 한

것이다.

모듬이란 좌익이나 우익이 자기네 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개최한 일종의 단합대회를 이르는 말이었다. 단합대회가 끝나면 자기네 세를 과시하면서 좌익은 인근에 있던 우익을 습격하고, 우익은 또 좌익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단합대회장(場)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우익이 모듬을 열면 좌익이 몰려들어 방해하고, 또 좌익이 모듬을 열면 우익이 달려들었는데, 때로는 강릉에서도 지원군을 얻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좌익보다는 우익이 세었기 때문에 좌익은 별반 힘을 쓰지는 못하였다.

* 농촌과 어촌은 1촌

6.25가 터지고 북한에서 내려와 소위 백일정치란 것을 할 적에 의용군을 차출했었다.

의용군을 차출하기 위한 회의가 인구리 학교에서 열렸는데 당시 의용군에 해당될 만한 나이의 장정들은 모두 소집을 당하였다. 입암리의 최현규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오라는 데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서 보니 최현규네 집에서 일하던 머슴 두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의용군으로 차출되어 가면 집의 농사가 걱정이었다.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일을 할 형편이 못 되고 집안사람들은 우익이 많아 밤낮으로 도망쳐 다니고 있던 형편이라 이 두 사람만큼은 의용군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최현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의용군으로 갈 수 없다. 대신 내가 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현규는 의용군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 모인 곳은 주문진 교항리의 솔밭이었다. 이 곳은 비행기도 보이지 않아 아군의 폭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에서 인민군의 일장연설을 듣고는 강릉에 있는 경포초등학교로 이동했다. 이곳이 영동지역 의용군 차출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집결지였다. 여기에서 군가 등 몇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저녁 때 출발해 이북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숙박을 한 곳이 땃골[죽리]이었고, 이튿날은 양양의 상춘초교였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최현규를 호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물어 보는데, “사회에서 무얼 했나?” 하고 묻기에, 무얼 한 게 있어야지. 하여튼 적당히 대답했더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저녁에 정치보위부 사람이 와서 어떤 개인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무래도 임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보였다. 거기에서 또 다시 몇 가지 묻더니, 재우고는 다음날 보위부 직원이 자전거를 갖고 와 그 뒤에 태우더니 양양으로 이동을 했다. 뒤에 타고 보니 보위부 직원의 권총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보위부 직원의 덩치를 보니 만만하게 보였다. ‘이걸 그냥 콧 해치우고 달아나 버려’ 등등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하여튼 끝까지 가보자고 참아내었다.

그 사람은 최현규를 양양 정치보위부 지하실로 데려갔었다. 임시유치소로 보였는데, 거기에서 사흘을 지냈는데 도통 심문도 없으니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 사이에 월리 사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 말동무가 되었다.

밤시간이 되자 어떤 아주머니가 밥을 가져왔는데 밥이 검었다. 그

래서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밥이요?”

“피밥이요.”

까칠까칠한 게 먹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었다. 최현규는 여기에서 생전 처음으로 피밥을 먹어보았다.

3일 만에 보위부 직원은 현북면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북면 분주소에 들러보라고 했다. 저녁에 내달아 현북면 분주소에 도착해 사정을 말하고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통행증은 없고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어물거리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최현규는 부리나케 나와 길을 재촉했다. 그렇게 하여 현남면 인구에 오니 한밤중이었다. 거기에서 ○진태를 만났다. 또 사정을 말하니, 인민위원회 본부에 가자고 하였다.

본부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었다. 최현규가 이만저만한 사연을 이야기하자 다 듣고는

“그럼 바로 가지지 여기 왜 들어왔냐. 이 양반 빨리 내보내라.”

그러면서 인구의 분주소에 또 들렀다가 가라고 하였다. 들렀더니 부엌에 가서 자라는 것이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마을 입암리 인민위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 놈이 어떻게 나왔지’ 하면서 이상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최현규는 자세한 사정을 말해줄 수 없었다. 자신도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농촌과 어촌간에 주객간에 형제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어촌에서 고기를 잡으면 농촌으로 찾아와 고기를 건네주면, 농촌에서는 곡식으로 대신 가격을 치러주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농

촌과 어촌의 자매결연과 비슷한 것으로 마치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 최현규의 집으로 자주 고기를 갖다주고 곡식을 받아 가는 사람들 중에 이태억과 장〇〇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현남면 인민위원회 책임자가 되었다. 최현규는 아마도 이들이 자기를 빼내준 것은 아닌가 짐작을 하였지만,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수복이 된 후 이들은 월복을 했다.

최현규는 의용군에서 무사히 탈출하였지만 집에 있는 내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인근 산 속으로 들어가고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수복이 될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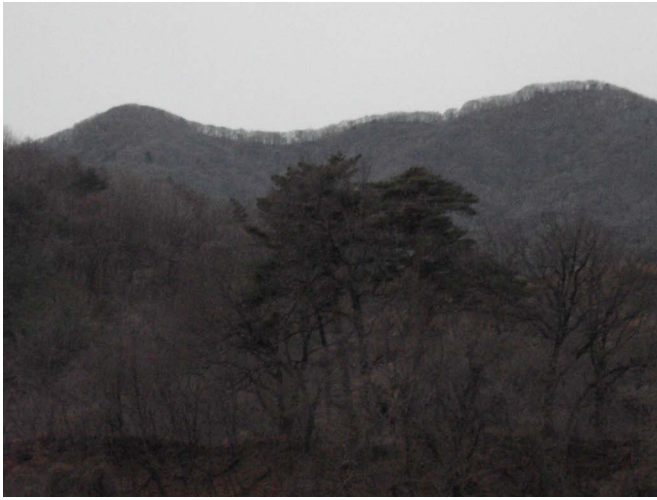
* 면옥치리에서 21명이 동사(凍死)한 내막

면옥치리는 38선 접경인데 공비가 자주 출몰하였다. 도채바우⁸⁹⁾ 등을 타고 가면 매봉령으로 곧장 나가고, 또 양양 정족산을 타고 벽실령 줄기가 매봉령으로 나가니 공비의 루트(길)가 되었다. 또 벽실령에서 면옥치를 내려다보면 바로 그 아래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 양식 등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1952년경이었다. 당시 양양군이 수복이 되어도 아직 제대로 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 면옥치리는 강릉군에 속하였고 여성전을 필두로 하여 면옥치리는 강릉군 현북면이 되었고 주문진경찰서⁹⁰⁾에서 경찰 7명~8명이 현북면에 파견을 나와 치안을 유지하고

89) 화재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화재바위라 불렀는데, 후에 와전되면서 도채바우가 되었다. 고경재 편,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261쪽 참조.

90)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주문진에 경찰서가 있었다.



상면옥치 서낭목

있었다. 공비들이 자꾸 출몰을 하니 경찰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어성전1리-2리, 장리, 원일전, 법수치, 면옥치리 등 인근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차출하여 임시로 의용경찰을 조직하였다. 이들이 요소마다 다니면서 경계를 썼는데, 보통 한 번 경계를 서면 3일을 기본으로 하여 썼다. 그러니 3일 되어야 교대를 하는 것이었다. 경찰 역시 동일하였는데 당시 면옥치리에는 경찰 두 명이 파견을 나와 있었다.

도체바우 밑에 외딴 집이 한 집 있었다. 이 집에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벌써 공비는 멀리 사라지고 없곤 하였다. 잠복을 하면 어떻게 용케 알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하여튼 공비 때문에 골머리를 싸안고 있을 무렵이었다.

음력 2월 21일경(양력 3월 16일)이었다.⁹¹⁾ 그 날도 공비가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날 어성전리, 원일전리, 장리, 법수치 사람들이

91) 『양주지』에는 3월19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유족들의 제삿날은 음력 2월21일이었다.

와 지키는 날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오니 경찰 두 명이 공비를 잡으러 가자고 하여 총 22명이 출동을 하였다.⁹²⁾ 그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발자국을 따라 쫓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얼마쯤 가니 등 너머로 가는 공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뭐라 잘 들리지는 않지만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거나 말거나 주민들은 돌아가자고 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음식도 동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이 계속 쫓아가자고 주장을 하니 주민들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면옥치리의 서경석은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갔다는 경험 많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경찰에게 돌아가자고 간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게 대놓고 “몸이 정말 아프다. 더 쫓아갔다가는 내가 죽겠다. 나는 더 못 가겠다”고 하였다. 경찰들은 그러면 당신은 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서경석은 무사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공비를 잡으러 간 사람들과 약속한 신호를 보냈다. 신호는 다름 아닌 총소리였다. 하늘로 쏘아보낸 공포를 듣고 공포가 같이 올라오면 안전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하늘로 공포를 쏘아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당시 마을마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쓰던 것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신호를 보내던 전화기였다. 이웃마을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더니 곧이어 의용경찰과 마을젊은이들 100여 명이 지원을 나왔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수색대를 조직하여 공비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왔음직한 곳으로 수색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발자국은 별막골로 이어졌다.

92) 당시에 출동한 순경2명은 김정운, 전호길이었고, 마을주민들은 상면옥치 주민 7인, 면옥치리 1반(월아치) 주민 3인, 법수치리7인-8인, 기타 등이었다.

벌막골은 험하기 그지없는 골짜기였다. 곳곳마다 물웅덩이고 돌들도 뽀족하여 다치기 십상인 곳인데 눈마저 쌓여 있으니 이 곳으로 내려갔다면 필경은 야단이 났을 것이라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벌막골로 내려가면서 수색을 하니 하나둘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 내려오다 미끄러져 죽은 사람 등등 대부분이 죽어 있는 듯했다. 그런데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 두 사람이 몸을 꼭 껴안고 죽어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일행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조준기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여 공비를 잡으려 갔던 이들은 조준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21명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다.

후에 조준기로부터 전해들은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공비를 뒤쫓아가는데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공비 때문에 일행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할 때 음식은 점심만 준비해 갖고 쫓아왔다. 더구나 밤이 되자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앞은 시계 제로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때가 되어서야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왔던 길로 돌아간다면 앞일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마을로 가는 지름길인 벌막골을 통하여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비록 벌막골이 험하다고 소문은 났지만, 조심해서 내려가면 20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곡은 만만하지 않았다.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어서 한 번 빠졌다가 나오면 금세 물기가 고드름이 되어 온몸을 조여왔다. 조준기는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맨 뒤에서 쫓아왔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오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

서 서로 껴안고 죽어있는 두 사람 틈바구니로 끼어 들어갔고,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악전고투를 하다가 결국은 한 명만 남긴 채 모두 죽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조준기를 일러 천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천명, 즉 하늘의 명을 받았다던 그도 이내 10년이 채 되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다.

이웃마을의 사람들은 서낭이 노했다고 수군거렸다. 면옥치리 본말은 3월에 마을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이들이 출발하기에 앞서 서낭에 들러 마을제사에 쓰려고 준비해놓은 술을 꺼내먹고 출발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런 루머도 있기에 아울러 기록한다.

* 뱀에 물리면

의용군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 시숙이 차골에 숨었다. 그리고는 만동서가 밤낮으로 사람들 몰래 밥을 해 갖다 주곤 하였다. 가면서 남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마치 나물을 하는 것처럼 꾸며 나갔고 또 돌아올 적에도 일을 하다가 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갖가지 일들을 하였다. 한 번은 산에 밥을 갖다 주고 오다가 개울에서 발을 씻는 중이었다. 갑자기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더니 발을 물었다. 뱀에 물린 발이 퉁퉁 부어올랐다. 의사에게 데려갈 경황이 없었고 또 난리 중이라 의사를 찾기가 만만찮아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당시 우리 남편은 산에 안 가고 집에서 피난을 했다. 누가 오면은 방구석에 누워 있으면서 환자처럼 위장을 했다. 형수가 뱀에 물리니 더 이상 위장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급히 뛰어나와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뱀독을 빼는데 호미를 달구어 찔러야 한다고 했다. 급히 불을

해놓고 호미자루를 빼내어 불에 달구어 뱀에 물린 곳을 문지르면서 찌르니 물이 곱악 나왔다.

사실 이는 소가 병이 났었을 적에 써먹던 방법이었는데 급하니 사람에게도 써먹은 것이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당시 뱀에게 물린 만동서(이주해, 여·93살)는 지금도 살아있다.

* 학상동무, 엄마동무, 밥 먹으래

그때는 인민군이 남자든 여자든 좀 많이 왔소. 인민군이 내밀리는데 주민들에게는 해꼬지 하나 안 해.

저 우에 우리가 살 적에 대밭 곁에 살 적에 우리 할아버이, 시숙들, 형님들 다 피난 가고, 시어머니 하고 시아재비 하고 나 하고 아이 하고 넷이서 남았는데, 당시 영자를 가져 배가 부른 상태였어.

도이집 마당이 넓거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니, 인민군이 다가오더니,

“학상동무, 동무가 나왔으니 같이 손목 잡자.”

난 먼 산 보고 있는 척 했지며.

내가 시커먼 고무신을 신었는데,

“야. 이남도 시커먼 고무신을 만드는가?”

이러는 거야. 속으로

‘지놈들도 어지간히 좋은 거 만들어 신고 오는가 보다’ 했더니,

보니 짚신이고 옷도 다 떨어지고, 총이 땅에 질질 끌리는 거야.

인민군이 우리 가매에 와서 밥하겠다고 가매를 빌려 달래. 그리고는 우리 보고 나오지 말래. 그래서 나하고 시어머니 하고 아이 데리고 방안에 있었지.

옛날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내다 보니, 우물에서부터 보초를 서드라고요. 우리 못 나오게.

큰택 가매가 큰데, 쌀을 서 말을 해서, 먼저 이만큼 뜨대.

‘저거 대장 주는 건가 보다’ 했더니

떠 갖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며,

“학상동무, 엄마동무, 밥 먹으래. 이 정신에 무슨 밥을 했겠느냐”고.

“겹이 나서 밥을 먹소?”

가만히 내다 보니

주먹밥을 해서 여기저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 쌀을 닦아 집어넣는 사람 등 지랄을 하더라구. 가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 쌀은 지네들이 갖고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쌀은 아니었어.

그들이 나갈 때까지 우리 두 고부 남아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었어. 나가고 난 뒤에 보니 술가지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나갔어. 처음 첫날 인민군이 들어올 적에는 그랬어. 나중엔 아니지만.

* 감자밭의 주인은 누구?

삼척에서 피난 할 적의 이야기다. 어촌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언제 아군 군함이 나타나 함포를 쏘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피난을 많이 했다.

6·25가 처음 터질 무렵은 감자가 익어 가는 계절이었다. 처음 피난을 나갈 때는 나름대로 얼마간 음식을 장만하였지만, 그러나 고대 음식은 동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 밥 한 술 얻어먹고 가곤 하였지만, 이마저도 쉬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럴 경우 길가 감자밭의 감자는 훌륭한 식량이었다. 감

자를 캐내어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심지어 생감자를 먹기도 하였다. 급한 처지에 감자밭의 주인이라고 내 감자 돌려달라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어 다리 밑이나 으스스한 곳에서 감자국을 끓이든지 삶든지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한 손가락씩 갖고 간다. 그래도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내 것조차도 이미 남의 밭에서 그냥 뽑아온 것이니까.

* 공 차는 켈로 한림부대

윤회장은 19살이 되던 해, 1952년에 아버지를 따라 동산리로 왔다. 아버지가 고향 땅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다면서 동산리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줄곧 동산리에 눌러 앉아 터주대감이 되었다.

625사변이 나자 운상률 씨는 양양에 내려와 켈로부대 중 산하부대인 켈로한림부대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 분 덕분에 윤회장도 켈로한림부대에 들어갔었다. 당시 윤회장은 축구를 잘하여 주말마다 켈로부대 내 다른 부대와 축구시합을 하곤 하였다. 물론 윤회장은 주전 선수로 뛰었다.

켈로부대는 북한의 후방지역에 투입될 목적으로 조직된 특수부대였다. 그러나 정규군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대여서 나름대로 자유스러운 점이 있었다. 켈로부대의 보급은 미군이 전담하였다. 미군의 군복과 비슷한 군복을 입고 나름대로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적지침투훈련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낙하산훈련을 받는다. 주요 훈련 장소는 지금의 설악콘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 떨어지는 낙하산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곧바로 이북에 투하되는데, 윤회장은 이북에

투입되기 직전에 켈로한림부대가 해산되는 바람에 실제 참전을 하지는 못했다.

켈로한림부대가 해산되는 과정에 정규군으로 갈 사람은 정규군으로 보내주었다. 이때 대부분 계급은 선임하사, 하사, 병장 등을 달고 있었는데, 켈로한림부대 출신들은 대체로 공병대에 배속을 받았다. 윤회장은 당시 나이가 어려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규군으로 편성될 때 도망쳐 나왔다가 이듬해 3월 논산에 입소를 하였다. 윤회장이 논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휴전이 되었다.

2) 38선 이북의 양양

금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이북사람들도 이북에서는 살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현물세, 사회적으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학습, 정신적으로 꼼꼼하게 죄어오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등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쟁 중의 이야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것도 남한으로 보아서는 점령지나 다름없는 지역이었으므로 점령지인 양양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나름대로 말 못할 사연들도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직도 양양의 주민들이 한국전쟁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사연을 제공하면서도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언제 총알을 맞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사연은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필자는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여 이 항목에서는 대부분 가명으로 처

리하였다.

38이북의 양양지역에서 전쟁 전 가장 큰 사건은 호림부대 사건일 것이다. 호림부대 사건에 관하여는 여러 문헌에 이미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를 더 조사해 보았다. 필자가 만난 호림부대의 그 분이 어찌면 마지막 생존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은 벌써 60년이 흘렀던 것이다.

38이북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필자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하여 1/3 정도의 자료가 사라지는 봉변을 당하였다. 또한 지면의 제약도 있어서 여기에 기재한 사건은 양양군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기록이다. 이 점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 영혈사의 지불⁹³⁾

영혈사는 의상대사 창건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고찰이건만 625의 참화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625 이전 영혈사는 전쟁준비를 위한 탄약 등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창고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법당 안에 모셔져 있던 지불이 근처 계곡 불담골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를 양양읍 화일리에 사는 시어머니 김선녀와 며느리 김필녀가 우연히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발견하고 그날 밤 야음을 틈타 집으로 모셔왔다. 그 후 3년 6개월 동안 김선녀 할머니의 집 벽장에 숨겨놓았다.

전쟁이 끝나고 당시 1군단장 이형근 장군



지불

93) 이 내용은 황여사로부터 받은 청원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과 김동석 첩보대장의 도움으로 낙산사 원통보전 등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때 원통보전에 모셔야 할 마땅한 관음보살 상이 없었다. 마침 김선녀 님에 영혈사의 지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하여 낙산사 원통보전으로 모시게 되었다. 황여사에 따르면 당시 이형근 군단장과 김동석 첩보대장은 영혈사를 복원하면 반드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지불은 종이로 만든 불상을 의미한다. 이 불상의 오늘날 정식 명칭은 건칠관음보살좌상이고, 2003년 2월 3일자로 보물1362호로 지정되어 있다.

* 동호리 앞바다에 좌초된 함선

지금의 을지병원연수원 있는 그 아래 바닷가 쪽에 터널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있었을 적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한국전쟁 중에 유엔군의 배들이 와서 함포 사격을 가하곤 하였다. 그러면 주민들은 터널로 대피를 하곤 하였는데, 유엔군의 배들은 터널로 피신하는 주민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하고 터널로 함포를 쏘곤 하였다. 터널의 출입구가 바다와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에 배들이 바닷가에 가까이 와서 쏘아야 터널 출입구 쪽으로 포탄이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바다에서 쏘면 터널 등 위에 포탄이 떨어지므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배 3척이 다가와 해안으로 바짝 접근하면서 터널을 향해 포탄을 쏘았다. 그런데 그 중 한 척이 너무 가까이 왔는지 그만 해안에 좌초되고 말았다. 전하는 말로는 당시 3척의 배가 다가왔는데, 갑



동호리 터널

자기 1척의 배에서 불이 나면서 불이 난 배가 해안선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유엔군의 배 한 척이 좌초된 것만은 분명했다. 좌초된 장소는 동호리 구역인데 개바우라고 불리는 곳에서 남쪽으로 100여 미터 지점이었다.

이 배는 1960년대 중반까지 그 선체가 남아있었다. 당시 서울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선체의 철판, 철근 등을 분해해 갖고 갔다.

* 윤석진 월남사건의 진실⁹⁴⁾

윤석진은 1933년 생으로 당시 말곡리 아랫말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인공 때 현북중학교를 들어갔다. 제대로 졸업을 하였다면, 인공시대 현북중학교 1기⁹⁵⁾인데, 물론 졸업은 하지 못했다. 사건은 1949년 3월

94) 본고 문헌자료 항목에서 〈반공투사 이야기〉로 간략하게 소개된 것이다. 이를 필자가 다시 채록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에 벌여졌다.

인공은 사상 문제를 많이 따졌다. 윤석진의 막내 삼촌이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에 다녔다. 인공으로 보아서는 윤석진 집안의 성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으니 생활에도 곤란을 받았고, 그것이 어린 윤석진에게도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다. 당연히 인공의 체제가 달가울 리 없었던 것이다.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야간선전이라 하여 통학반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치곤 하였다. 그 것을 매일 하여야 하였는데 윤석진을 비롯한 또래의 친구들 몇 명이 하지 않았다. 부모님들도 “그거 거짓말인데 뭐 하러 떠들고 다니느냐?”면서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게 발단이 되어 “너희는 왜 선전을 안 하느냐?” 하고 질책을 받았다. 윤석진을 비롯한 말곡리 학생들은 질책을 받자,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갔는데, 이번엔 학교 교장이 문책을 당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니 분명 교직원에게도 책임의 소재를 묻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말곡리 학생들 6명은(당시 모두 3학년) “이북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우리 월남을 하자”고 모의하고는 월남을 시도하였다. 말곡리에서는 38선이 가까웠다. 그래서 장리로 월남을 했다. 장리에는 지서가 있었다. 말곡리 학생 중에 장리의 지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서 3일-4일 묵다가 주문진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거기에서 또 3일-4일을 있었는데, 최종에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생들이니까 별일 없을 테니 공부

95) 오늘날의 현북중학교 1기 졸업과는 다르다. 남한에서는 인공 때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열심히 하고, 대신 정부요인들 작성해서 아무 때 되면 넘어 오라.” 이러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렸으니 뭐 별 탈 있겠는가 싶어 다시 기사문리 쪽으로 해서 38선을 넘어왔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다가 38선 경계를 서던 인민군에게 발각이 되었다. 곧바로 인민군 중대본부로 이송되었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양양지구 정치보위부로 넘어갔다. 거기서 보름을 있으면서 조서를 만들더니 끝내 원산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감옥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죄명은 이남에서 간첩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에서 간첩죄, 사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반동죄가 적용되었지만, 학생 신분임을 참작하여 4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런데 당시 감옥에 이감된 6명이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월남했던 6명 학생들 중 2명은 성분이 좋다는 이유로 풀려나고, 엉뚱한 2명이 교사죄로 추가되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사죄로 엉뚱하게 끌려온 2명은 8년형을 언도 받았다.

성분이 좋은 2명은 장원식(16살)과 박용호(18살)였다. 이들은 후에 인민군에 갔었는데 그 후 생사를 알 수 없다.

교사죄로 끌려온 2명은 윤석승(25-26살)과 윤석규(25-26살)다. 어린 학생들에게 월남하라고 선동하였다 하여 억울하게 붙잡혀 간 것이다.

4년형을 언도 받은 4명은 윤석진(17살)을 비롯하여 윤석빈(17살), 윤석근(18살), 박상진(19살) 등이었다. 박상진(조카)과 박용호(삼촌)는 조카와 삼촌 사이였다. 그런데 박상진의 외삼촌이 장리의 지서에 순경으로 있었다. 그래서 박상진은 성분이 나쁜 사람이었으나, 그의 삼촌인 박용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 풀려났다. 당시 박상진과 박용호는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일종의 코미디였다.

원산형무소에 간 6명은 형이 확정된 다음 여기저기로 헤어졌다. 박

상진은 아오지 탄광으로 갔는데, 거기서 옥사하였다고 한다. 윤석근과 윤석규는 청진감옥으로 가고, 나머지 3명은 함흥감옥으로 갔다. 함흥 감옥에 간 3명은 우연인지 하여튼 같은 감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감옥생활이란 것은 순전히 감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노역봉사를 하였는데, 윤석진 일행이 일한 곳은 피혁공장 이었다.

1950년에 전쟁이 터졌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감옥에서도 한국의 지도를 그려놓고 화살표로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비로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열흘쯤 지났는데, 포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폭격을 하였다. 윤석진 일행은 폭격을 해도 설마 감옥이야 폭격하겠냐고 믿고 살았다. 밤12시가 되면 간수가 죄수1명을 불러내는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부릉부릉 나더니 그 후로는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처음에 불러간 사람은 20년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었다. 그 후로 19년형, 18년형 등으로 차츰 형량이 낮아지더니 그렇게 불러간 사람들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어느 골짜기에 가서 사형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형무소에는 이제 반동죄목으로 들어온 4년 이하의 죄수와 잡범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잡범 중에서도 3년형 이하의 사람은 인민군대로 다시 뽑아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남은 죄수들을 만주쪽으로 소개시켰다. 10월이었다. 함남과 함북의 경계에 황철령이라고 있다. 죄수들이 황철령이란 고개를 넘을 때였다. 그 고개만 올라서면 마치 대관령처럼 일망무제의 버덩이 펼쳐지는데, 유엔군의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윤석진은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이때 윤석진은 윤석빈과 헤어졌는데, 이후 윤석빈의 생사는 알 수가 없었다.

윤석빈은 그 후 함흥에 와 있다가 화섬[화도]으로 건너가 숨어 있다가 14후퇴를 할 적에 돛배[풍선]을 타고 주문진으로 피난을 나왔다.

* 1950년대 전후 현북면의 교육기관

윤석진이 월남을 할 당시 현북중은 3학년까지 있었는데, 3학년과 2학년은 1개 반, 그리고 1학년은 남녀 각기 한 개 반씩 총 4개 반이 있었다. 각 반당 5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위치는 지금 하광정리의 면사무소 옆에 있었다. 그 자리는 옛날 면사무소 자리였다.

1950년대 초에 현북면에는 이렇다 할 교육기관이 없었다. 1954년 부임한 천주교 양양성당의 설리번 신부는 ‘중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지금 현북공소(상광정리542-1번지)가 있는 자리에 세웠다. 당시 선생으로 오계환, 추인호 등이 있었으나 정식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학교여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의 명칭은 현북농업전수학원이었다.

* 설악대

설악대는 양양군 치안대에서 탄생했다. 치안대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자기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설악대의 목적은 상북리, 둔전리 등 설악산 일대의 치안과 공비소탕을 위한 특별부대였다. 따라서 이들은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였고, 이들은 치안대와는 달리 당시 돈으로 800원 정도의 월급도 받았다. 이 돈은 쌀 몇 말을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다.

설악대의 창설시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HID창설 이후

인 점만은 분명하다. HID는 한국전쟁 당시 첩보업무의 활성화 필요에 따라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를 1951년 3월 독립시켜 발족했다.⁹⁶⁾ 따라서 설악대의 창설 역시 1952년 3월 이후인 것만은 분명하다.

설악대는 군복을 지급 받았는데, HID 마크가 붙어 있는 군복이었고, 신발은 워커였다. 배지를 달았는데 쇠뿔으로 매 형상을 한 치안대 배지였고 누런 색이었다. 준군사조직이었지만, 설악대 대원들도 1955년 후에는 다시 군대를 가야 했다.⁹⁷⁾ 이런 점에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치안대에 불과했다.

설악대의 본부는 상도문리에 있었다. 상도문리는 지금은 속초시에 속하지만, 과거는 양양군 속초읍 상도문리였다.

설악대는 본시 1군단 산하 특무대, 그 중에서도 HID 소속이었다. 설악대가 처음 발족할 당시 대장은 김재완이었는데, HID 소속의 이등상사⁹⁸⁾였다. 상도문리 박의균 씨 집 행랑채에 본부를 두고, 마을의 운동장에서 대원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그 후 CIC 소속인 강원해가 부임했고, 그는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본부는 역시 상도문리에 두었으나 설악대 대장의 거처와 대원들의 거처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대장은 오준택 씨 집에 머물렀고, 대원들은 박용운 씨 집에 머물렀다.

설악대 제3대 대장은 HID 소속인 김기철이었는데, 그는 팔로군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확인할 바는 없었다. 그는 오색에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몇 달 정도를 하다가 그만두고, 제4대 대장이 부임했

96) 김태완, 「북과 호림유격대」,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397쪽.

97) 양양은 1954년 11월에 완전히 민정이양이 되었다.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국군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1955년부터 군대에 간 사람이 이 지역 징집1기가 된다.

98) 당시의 계급은 이러했다. 이병, 일병, 하사, 이등중사(오늘날의 병장에 해당),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다. 그는 뚱뚱해서 별명이 곰이었다. 그가 마지막 설악대 대장이었다. 그는 설악대 본부를 당시 상도문리 마을회관(지금의 노인회관)에 두었다.

설악대가 관할하는 마을은 화일리, 둔전리(간곡리 포함), 상복리, 상복2리(오늘날의 속초시 설악동), 상도문리, 고성군 잼버리장 근처(원암리 등), 척산, 장재터 등으로 각기 1개 분대 병력이 매일 출동하였다. 그 외 병력은 중대본부에 예비로 대기하고 있었다.

설악대는 1개 중대병력이었다. 예하에 3개 소대가 있었고, 각 소대는 3개 분대로 구성되었다. 1개 분대는 9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인원은 약100여 명이었는데, 부족한 병력은 각 마을의 치안대의 협조를 받았다.

저녁이 되면 설악대 대원들은 각자 담당할 마을로 배치된다. 이때 치안대원들에게 줄 무기도 같이 갖고 나가는데, 무기는 보통 M1이었다. 각 마을마다 주요 지점에는 줄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깡통을 달아 발목이 걸리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다. 각 마을마다 주요 지점은 보통 3곳-4곳이었고, 치안대 대원들을 2명-3명씩 같이 보초를 세웠다. 설악대원들은 이들 초소를 수시로 순찰을 돌았다.

1952년-1953년 봄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눈발이 날릴 정도로 늦겨울 초봄의 어림이었다. 당시 본부의 대원 11명이 출동하여 설악산 현장에서 공비3명을 발견하였는데 반항하기에 즉시 총살한 적이 있었다.

그 해가 저물어 가던 초겨울, 날씨는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다. 이번엔 화일리에서 공비를 잡았는데, 잠복근무를 서다 보니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산중턱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수상하다 싶어 살금살금 수색하여 나가보니, 발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을 따라 갔더니 공비들이 밥을 해먹고 자고 있었다. 살금살

급 다가가 “손들어” 하니 몇 명이 급히 도망가는 것이었다. 냅다 총질을 해대었는데 몇 명은 도망가고, 몇 명은 현장에서 사살하고, 두어 명은 생포하여 1군단 사령부로 압송한 적도 있었다.99)

1952년-1953년 가을경이었다. 지금 속초시 설악동 켄싱턴호텔이 있는 자리인데, 그 앞에서 공비들이 내려와 군인들과 총격전이 붙었다.

김기철이 대장을 할 당시 오색으로 파견을 나가 있을 때였다. 당시 오색리 일대의 마을은 주민들을 소개하여 집집마다 비어 있을 때였다. 영덕리 근처에 길가에 간이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보였다. 울까말까 우물쭈물하는 거동이었다. 데리고 왔는데 그 거동이 자꾸만 총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었다. 대원들은 즉시 이상하다 생각하고 마을로 데려가 일단 하룻밤을 재웠다. 이튿날 HID본부로 연행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그 사람의 손에 포승을 묶었다. 사람이 착해 보여서 포승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도 포승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포승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서면을 지나 양양 삼거리로 접어들 때였다. 마침 군단 사령부에서 대령이 한 명 지나가다가 포승을 한 사람을 보고는 심문을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 누구냐?”

“여차여차 해서 청간정 HID본부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게 문제냐? 빨리 심문하여 일당을 모두 잡아야지.”

하고는 대령이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 대령이 가버리고 곧바로 상급기관인 HID에서 백소위가 쓰리쿼터를 타고 나타났

99) 이 사연은 『양주지』에 전하는 <영덕리 공비토벌 개황>과 유사한 내용이다. 필자가 제보자에게 몇 번이나 확인하였는데,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하였다.

다. 설악대 대원들은 총망중에 이상한 사람을 군단 소속 대령에게 빼앗겼다고 보고하였다. 백소위는 즉시 그 대령을 찾았지만, 그러나 대령은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HID대장은 설악대 대원의 귀때기를 한 차례 올려붙였다. 설악대 대원로서는 공(功)도 빼앗기고 되려 뺨까지 맞게 되었던 아주 억울한 사건이었다.

설악대 대원들은 설악산 인근의 여러 마을을 수시로 순찰을 돌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마을주민들과 친해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하였는데, 상복리의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다. 또 한겨울에 상복리 근처 설악산에서 꿈을 잡은 적이 있었다. 곰고기로 마을 주민들과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 1945년 : 징병, 해방 그리고

K는 1945년 21살에 징병을 가야 했다. 처음 훈련을 받으러 간 곳은 길림성 막석이란 곳이었다. 훈련을 서너 달 받고 이제 부대를 배치할 때에 해방이 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것이었다.

일본군이든 한국인이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K는 혼자서는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은 당시 같이 훈련받던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K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길을 찾아 나왔는데, 사실 객지인지라 길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그래서 철길을 따라 주욱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나오다 보니 길림 시내가 보였다. 거기에 소련군이 기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다. K는 그 기차에 올라탔다. 당시 돈도 없이 그냥 무임승차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냥 승차하는 것 같았다. 기차는 며칠을 가더니 강계로 접어들었다. 당시 기차는 목탄

차였다. 오는 도중에 기차 연료가 떨어지면 나무의자를 잘라서 넣거나, 혹은 기차를 세워놓고 근처 나무를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하곤 하였다.

K는 기차가 설 때마다 기차에서 내려 근처 옥수수 밭에 들어가 옥수수를 따 허기를 채웠고 또 옥수수대궁으로 황덕을 해놓아 언 몸을 녹이곤 하였다. 만주는 9월-10월이어도 대단히 추웠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소련군이 주는 헐레밭이란 빵으로 요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 외는 대다수 굶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렇게 강계로 접어드니 강계의 부녀자들이 기차 근처로 나와 주먹밥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K는 실로 수십일 만에 처음으로 밥이란 것을 먹어보게 되었다. 그때 K는 비로소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K가 원산에 왔을 때였다. 그때까지 K와 그의 한국인 징병자들은 일본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련군은 K와 한국인 징병자들을 일본군 포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군복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군 포로들은 K를 비롯한 한국인 징병자들을 자꾸 밀쳐내었다. 그런 현상은 일본군 포로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징병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밀쳐내는 것이었다. 나중에 소련군도 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군 포로들과 한국인 징병자들을 분리하여 한국인 징병자들은 풀어주었다. K와 그의 일행은 즉시 민가로 들어가 일본군복을 벗어버리고 민간인 복장을 한 후, 비로소 고향 양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K는 고향마을 중북리에 왔지만, 마을은 이미 좌익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우익이라 한다면 민주당이 있었다. K는 좌익이 싫었다. 그래서 K는 민주당에 가입하였고 그들과 같이 활동을 하였다. 당시 회룡리, 장산리, 상북리, 중북리, 하북리 등 5개 마을의 민주당원은 12명이나 되었는데, K가 가장 나이가 어렸다.

노동당에서는 징병을 갔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관학교에 가라고 하였다. 곧 창설할 인민군의 고급장교가 부족한 탓이었다. 그러나 K는 싫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자 급기야 보안대에 잡혀가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K의 사촌형이 강현인민학교 교장이었다. K의 사촌형 역시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추후 미래가 걱정스러웠다. K의 사촌형도 K처럼 이북에서는 살기 힘든 존재였다. 그래서 둘은 같이 오색, 호랑이콧바우, 인제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하여 월남을 하였다. K의 사촌형은 강릉에서 교직에 취직을 하였고, K는 주문진에 있는 서북청년단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가 1947년이였다.

* 조선해방기념비

현재 중북리에 있는 이 비석은 1945년 해방이 된 다음 중북리의 김형배, 김천배 등 5-6인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이 비석을 처음에 세웠던 김형배, 김천배 등은 지금 살아 있다면 92살-93살 정도 되지만 생사는 알 수 없다. 이들은 당시 좌익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서 전쟁의 와중에 월북했다.

이 비석을 만든 둘은 하북



조선해방기념비

리와 중북리 사이의 개천에 있던 돌인데, 그걸 세워서 석수장이를 불러 가공하여 만들어 놓았다. 처음 이 비석은 방앗간 앞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도로가 생기면서 근처 논가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51년 9월 5일 현재 자리로 이전해 놓았다.

* 주문진의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서북이란,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을 아우르는 용어인데, 편의상 관서는 평안도, 황해도 일대, 관동은 북강원도, 함경도 일대를 지칭한다.

영동지구의 본부는 주문진에 있었다. 처음에 본부가 위치한 곳은 중앙시장통이었는데, 동아극장 맞은편 4거리에 있던 2층건물이었다. 이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였는데 약 30평 정도였다.

서북청년단의 단원 중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참가를 하였고, K처럼 직장이 없고 가정도 없는 젊은이들은 합숙소가 있어 여기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K가 있던 합숙소의 인원은 15명 정도였고 위치는 주영초교가 있는 5거리 근처였다. 서북청년단의 단원들은 합숙소에 있는 단원보다는 가정이 있는 단원이 더 많았다.

합숙소에는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 즉 식모가 있어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었다. 점심은 현지에서 해결했다. 반찬은 김치와 명태 말린 것이 주로 나왔고, 밥은 잡곡이었다. 이런 일들은 서북청년단 산하 사업 부장이 있어 전담하였다.

옷은 제각기 알아서 장만해 입었다. 서북청년을 의미하는 표지는 없었으나 완장은 있었다. 완장은 파란 바탕에 흰색 한자글씨로 西北

이라 써놓은 것이었다. 평상시에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다가 사건이 벌어지면 팔뚝에 차고 출동을 했다.

아침을 먹으면 청년들은 주문진 중앙통에 있는 서북청년 영동지구 본부로 출근을 했다. 조회를 한 후 각기 그 날 할 일을 명 받아 각자 근무지로 출근을 했다. 하는 일은 수상한 사람을 찾는 일, 38선 근처 마을로 순찰을 나가는 일 등이었는데, 관할구역은 동으로는 태백산맥 동쪽, 북으로는 38선 접경지, 남으로는 후진까지였다.

좌익들은 경찰보다도 서북청년을 더 무서워하였다. 서북청년은 좌익을 잡아오면 정말로 모질게 고문을 하였다. 그래서 서북청년에 검거된 좌익들은 붙잡혀 오다가 근처에 있던 지서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두들겨 맞는 것이 서북청년들보다는 지서의 순경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훨씬 약하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 호림부대의 훈련

호림부대가 만들어진 다음 갖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K는 기억에 남는 훈련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구보를 했다. 그런데 이 구보가 달리기로 단련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힘들만큼 강도가 세었다. 유골을 보관한 막사가 있었다. 이 곳에서 밤마다 보초를 서게 하곤 하였는데 아마도 담력을 키우는 훈련인 듯싶었다. 암기할 것도 많았다. 어떨 때는 암기를 하지 못하면 굶기기도 하였다. 굶을 수는 없었기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암기는 모두 하였다.

훈련 중에 장관들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찾아와 구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장관들이나 고위급 인사들은 부대 막사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훈련하는 호림부대 대원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찾아올 때면 주로 산등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유격전 훈련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망원경으로 잘 보이는 산등을 탈 때면 최선을 다해 산을 타곤 하였다. 그러나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반대쪽 능선을 탈 때면 쉬엄쉬엄 하곤 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했어도 호림부대 훈련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훈련은 두어 달 계속되었다.

* 호림부대의 출동과 활약

어느 날 훈련을 마친 호림부대 대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드디어 출동명령이 내린 것이다. 대원들을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탔더니 밤새도록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었다. 아침에 도착하여 보니 국방부였다. 거기서 다시 호림부대 대원들은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위장전술인 것이다. 인민군 장총과 기관총 등 무기도 복한 것으로 지급 받았다. 남한 것으로 지급 받으면 보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북지역으로 남한 총의 실탄을 공급해 줄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실탄 등과 같은 것은 북한 현지에서 스스로 조달하여야 했기에 인민군 총으로 무장한 것이었다.

무장을 마치고 대원들은 강릉군 신서면 서림리(오늘날의 양양군 서면 서림리)로 향했다(6월 27일). 거기에서 이북으로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며칠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김구 선생의 암살(6월 29일)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38접경지에 인민군의 경비가 더욱 촘촘해졌다는 정보도 들려왔다. 이북도 비상이 걸린 것이 분명했다. 대원들은 성동격서의 전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대원들이 뚫고 들어갈

반대쪽으로 소대 병력을 보내 총질을 시작하였다. 인민군의 주력이 그리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 틈을 타 호림부대 5-6대대는 오색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드디어 호림부대의 장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대원들이 오색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껏어 더 이상 행군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인근 아무 민가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밖에 없었다. K의 부대는 5대대였다. 5대대는 대청봉을 넘고 장안사로 들어가야 했다. 당시 5대대장은 백의곤이었다. 산하에 3개 중대가 있었다.

5대대는 드디어 대청봉 정상에 도착하였다. 막상 도착하여 보니 앞일이 걱정스럽기 한이 없었다. 일행은 비장한 마음으로 손톱발톱을 깎아 담배종이에 말아 산정에 묻어놓기 시작하였다. 오늘 일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일이라, 대원들 중 혹여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나중에 여기에 와 손톱발톱이라도 찾아내어 영혼이나마 위로해 달라는 뜻에서 묻어놓은 것이었다. 후일담이지만, 생존자들이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이 곳에 찾아왔지만, 그 담배종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전란의 와중에 대청봉의 지형이 포격을 맞아 바뀌어도 수천 번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김남홍은 금풍리 사람이었고 이계화는 서문리 사람이었다. 이 둘을 금풍리로 정보수집을 보냈는데, 발각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색해오는 인민군을 피해 금풍리 김남홍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만 사살되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것은 〈금풍리 돌발사건〉 참조)

대대장은 중북리 출신인 K에게 식량보급을 상의하면서 상북리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K는 대원들을 데리고 상북리로 내려갔다. 주민들은 그때도 우익사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았기에 식량



호림부대 생존자와 이범석 장군

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곡식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한 마리 주민 중 누가 끌고 올라왔었다. 대원들은 산 정상에서 송아지를 잡아 모처럼 포식할 수 있었다.

이튿날 마을의 누군가가 정보를 모아 줄 테니 언제쯤 내려오라고 하였다. K는 그 말을 믿고 시간에 맞추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필경 사단이 난 게 분명했다. 그 와중에도 K는 고향마을인 중북리의 좌익 집을 습격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차마 습격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고향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보니 인민군이 험레벌떡 내려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인민군 정찰병이 분명했다. 나중에 들으니 산 정상으로 두 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준하여 한 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한 명이 도망치는 것이었다. K는 대원들

과 같이 인민군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 인민군은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도망치는데 성공하였다.

상복2리(지금의 설악동)에서 인민군 연락병을 붙잡았다. 인민군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 어디에서 자고 있다고 하였다. 찾아가니 자고 있기는커녕 마당에서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가 K의 일행을 보고 총질을 가하는 것이었다. K의 일행은 대응사격을 하였다. 나중에 잠잠해져 살펴보니 인민군 대여섯 명이 죽어 있었다.

호림부대의 종적은 이미 탄로가 났다. 그때부터 호림부대는 도망쳐야 했지만, 이미 비장한 마음을 모두가 품었던 터라 북으로 더 들어가 고자 했다.

5대대가 화암사에 이르렀을 때였다. 새벽에 인민군들이 수색하며 올라오고 있었다. 5대대는 이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사격을 하고는 삼치령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령 일대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 속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인민군들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대원들은 일제히 소리치며 사격을 하였다. 거기에서 인민군 7명-8명을 사살하였다. 또 아직 채 사망하지 않고 부상을 입은 이도 있었다. 그들 중에 강·표대대 월북사건 때 월북한 대원도 끼어 있었다. 그들이 살려달라 하였지만, 종적이 발견 당할까봐 그들을 살려줄 수는 없었다. 그들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은 인근 구렁에 집어넣었다. 그것이 전쟁이었다.

* 호림부대의 이북 탈출기

국사봉이었다.¹⁰⁰⁾ 인민군 원산30단과 간성여단이 호림부대를 추격

100) 7월17일이라고 한다. 『호림부대전사』, 호림유격전우회, 2000, 130쪽.

하여 왔다. 그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호림부대 대원들이 거의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시간은 19시경이었다. 대원들은 저마다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다 보니 서너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회의를 하였다. 이제 우리 서너 사람으로는 원래의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되돌아가자. 일행은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되돌아 나오는 과정은 들어가는 과정보다도 더 힘들었다.

산등은 이미 인민군들이 가득 차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서너 명의 대원들은 산허리를 돌아서 조심조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나오다 보면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있곤 하였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 낮으로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도망치곤 하였다. 때로는 좋은 집을 만나면 길도 안내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일행들은 겨우 양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금풍리 돌발사건

김남홍은 금풍리 사람이었고 이계화는 서문리 사람이었다. 38선이 그어지자 둘은 월남을 하여 서북청년 영동지구 본부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이후 호림부대에 들어가 5대대 대원으로 1949년 7월초 이북으로 잠입했다. 당시 김남홍은 21살-22살이었고, 이계화는 20살 정도였다.

호림부대가 설악산을 장악하고 아래 마을로 정찰을 내보낼 때 이들은 인근 마을 출신이라 정찰병으로 투입되었다. 사교리의 아는 집으로 숨어들었다. 김남홍의 친척이 되는 집이었다. 김남홍은 친척에게 부탁하였다. 양양군 소비조합에 가서 물건을 사다달라면서 인민화폐를 건네주었다.



6.25 이전의 인민폐

친척은 인민화폐를 집어들고 군소비조합으로 가서 동향도 파악하면서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만 보안대 요원에게 발각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용했던 인민화폐가 위조지폐였기 때문이었다. 보안대 요원은 친척을 붙잡아가 고문을 하였다. 그 결과 간첩이 양양군으로 숨어들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보안대를 보내어 김남홍이 숨어 있는 곳을 습격하였다. 김남홍은 엉겁결에 다락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밖에서 날아드는 총알은 다락이라고 용서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곧이어 들것에 실려 한 명은 후송되었지만 기식이 엄엄하였다. 누가 사망이고 중상인지 구분은 할 수 없지만, 중상을 입은 이도 곧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엉뚱하게 비화되어 인근 민주당 당원 검거선풍을 유발하였다. 당시 김남홍의 친척이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붙들려 간 사람은 김찬○, 김남○ 등이었는데 한 달 후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 6.25 며칠 전 : 우차(牛車) 동원

한국전쟁이 터지기 1주-2주 전부터 양양군 관내 우차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우차를 가진 사람들이 동원되어 송암리의 양양역에 나가 기차로 내려오는 물자를 싣고 38선 근처로 이송해주곤 하였다.

인공 때 양양역은 송암리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서쪽으로 장승리 양양철광까지 올라가는 철길 외에는 더 이상 남으로 내려가는 철길은 없었다. 그래서 동도미철(東道未鐵)이라 하였다. 동쪽으로 길은 있지만, 철도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결되지 않은 철도는 강릉에서 양양까지였다. 38선이 가로 막혀 있으니 연결될 수 없었던 것이다.

*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인민학교(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됨) 시절에는 학생들도 사상을 구분하여 계급장처럼 빨간 줄, 파란 줄을 그려 붙였다. 이 줄의 개수도 1개 반, 2개, 2개 반, 3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나 단체행동을 해야 했다. 이를 통학반이라 하였고, 상급반 학생이 통학반 반장을 하였다. 통학반 반장의 구령에 맞추어 등교와 하교를 하였는데,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누구는 신고를 하였는데, 누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면 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자아비판을 당하였다. 이런 일이 3번 발생하면 그 부모도 자아비판을 당하였다.

통학반의 일과는 하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면 모두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 했다. 골짜기 너머 외따로 있는 집일지라도 빠뜨리면 안 되었다. 이들은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었다. 줄을 맞

추어 다니면서 구호를 외쳤다.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통학반 학생들이 맨 앞에 선 이가 반장이다. 반장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나머지 학생들도 복창하여야 했다. 가장 큰 원수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였다. 사람들은 이승만은 잘 몰라도 김구는 잘 알았다. 이북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인물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김구 선생이었던 것이다.

아침에 모여 등교를 할 적에 ‘호무랑’이라 하여 오늘날의 야구와 같은 경기도 하였고, 하교 할 적에는 씨름도 하였다. 씨름을 하다가 힘이 부치면 “고상”이라고 소리친다. 이는 졌다는 뜻이다. 이를 ‘고상 받기’라 불렀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이북에서 가장 큰 명절은 공산당 창건기념일, 8·15해방기념일 그리고 노동절이다. 강현면에는 3개 인민학교가 있었다. 강현인민학교, 회룡인민학교, 적은인민학교였다. 노동절이면 강현면의 3개 인민학교가 강현인민학교에 모두 모여 경축행사를 했다. 행사 후에는 학교끼리 집단패싸움이 붙었다. 이때 자기네 학교 학생이 맞고 오면 자아비판을 당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했다. 이기기 위하여 모자에 함석을 넣어 찡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우차의 가락지를 구해 칼날처럼 갈아 붕대로 칭칭 감아 갖고 다녔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힘 센 아이를 만나면 이것을 휘둘렀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던 인공 시대 교육의 한 단면이었다. 전투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력단련 겸 정신무장이었던 것이다.

* 인공 때의 축구선수

인공 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짚신을 삼을 만한 짚도 태부

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농사를 짓고 나면 겨울에는 가마니 공출이 있었다. 집집마다 할당이 떨어졌는데, 할당된 가마니 수량을 채우다 보면은 짚신 삼을 만한 짚이 부족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짚신을 삼기가 힘들은 집에서는 거의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신발이 없으니 축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축구선수로 뛰는 사람은 그래도 짚신이라도 신고 다니던 아이들이었다. 신발이 없으니 축구선수로도 출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떡판을 아십니까?

인공 때도 마을마다 서당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었다. 둔전리에도 서당이 있었다. 둔전리는 추씨 집성촌이었다. 마을의 어른 중에서 일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명심보감, 당음 등 여러 가지 서적들을 교육시켰는데, 글씨 연습하는 것이 문제였다. 종이도 부족할 뿐 아니라 먹도 귀했기 때문이다.

종이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떡판이었다. 떡판은 피나무를 잘라 대패로 깎아 평평하게 한 다음 기름을 먹여 만들었다. 크기는 1자×2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글씨를 쓰고 난 후 걸레로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졌다. 훌륭한 재생용 종이였던 것이다.

먹이 귀했기 때문에 먹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다. 아궁이의 솔 밑에 보면 그을음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그 그을음을 긁어낸 후 채에 걸러 낸 다음 솔에 넣고 끓인다. 한참 끓이다 보면 걸죽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개울에 나가 나뭇가지에 찍어 평평한 돌에 글씨를 썼다. 글씨를 다 쓴 다음에는 개울물을 끼얹으면 깨끗하게 지워졌다. 햇볕에 돌이 마르면 다시 쓰곤 하였는데, 이런 일은 한여름 퇴약벌이 반짝

일 때 하였다.

붓은 황모라고 하여 족제비털이 최고였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황모를 구할 수 없었기에 붓 대용으로 즐겨 사용한 것이 칩줄이었다. 마침 산골마을 언덕마다 칩은 많이 있었다. 칩이 오래 묵으면 칩줄이 새카매지는데, 그 끝을 살살 돌맹이로 찜으면 마치 붓처럼 잔뿌리가 실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붓 대용으로 사용했다.

* 아! 어머니

인민재판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정식으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고, 마을 동사에서 주민들이 모인 다음, 누구의 잘못을 고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처벌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인민재판이란 이름이 주는 억압 감처럼 보통 몽둥이찜질이 있게 마련이다.

1950년이였다. 최씨가 둔전리에 개인 절을 갖고 있었다. 이 절을 헐어 내고 인민동사를 짓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인민재판에 섰던 사람들은 C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회룡리의 C의 어머니(이하 ‘회룡리 아주머니’로 표기), D의 어머니 등이 그 대상이었다. 각본대로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들의 죄목을 열거하면서 반동분자라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주소(경찰 지서에 해당)에서 나온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래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 다음에는 물푸레나무로 몽둥이찜질이 이어졌다.

다음에 포승줄로 묶어서 용호리의 장모씨 집으로 끌고 갔다. 당시 양양의 내무서(오늘날의 경찰서)가 폭격에 맞아 불타자 용호리의 개

인 기와집에 임시로 내무서를 설치하였을 때였다. 그 집 뒤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이 방공호가 임시 감옥이었다. C의 외조모가 C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느이 어머니가 용호리의 누구네 집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 밥을 좀 갖다 주라.”

그러는 것이었다. 인민군의 행거¹⁰¹⁾는 남한군의 행거와는 달리 동그란 것이었다. 거기에 밥을 담아 C는 용호리로 갔다. 가는 와중에도 비행기의 폭격은 계속되었다. 비행기가 나타나면 C는 수풀에 숨고,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를 찾아 탄피도 주머니 가득 주워담았다. 탄피는 그 시절 상당히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공호의 문은 사람문이었다. 열고 들어서니 3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밥을 전해 준 지 3일째였다. C가 찾아갔을 때 인민군이 화상을 입어 온 몸을 붕대로 싸매 놓은 것을 보았다. 국군이 월리까지 진격했다는 것이다. C는 생각했다. 잘못하다가는 어머니를 잃을 것만 같았다. 필경 국군이 진격해 들어오면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방공호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둘 것 같지가 않았다. 분명히 총살을 시킬 것 같았다. 그래서 C는 어머니와 다른 분들에게 말했다.

“나오세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도 C를 따라 도망쳤다. 영광정에 도착했을 때였다. 회룡리 아주머니가 집으로 가야한다고 헤어지자고 했다. C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을로 들어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마을로 가지지 말고 저를 따라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룡리 아주머니는 말을 듣지 않았다. 후일에 전해들은 말이지만, 내무서원에게 다시 체포되어 어디론가 갔는데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101) 행거는 밥통을 이르는 말.

C는 어머니를 산 뒤 고양이하위 아래에 숨겨두었다. 또 다음날은 다른 곳에 숨겨두고 이렇게 7일을 옮겨다녔더니 드디어 국군이 마을로 들어왔다. C의 어머니는 전쟁의 와중에 무사히 연명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두들겨 맞은 탓에 몸에 의혈이 생겨 1961년 42세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지금도 C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마을주민들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같은 일가 성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몽둥이찜질을 하다니...

* 영광정의 팔선녀

지금 영광정 막국수가 있는 곳 원래 지명은 영광정이 아니고 영광정이라고 한다.

영광정이란 말뜻은 여러 개의 마을이 마치 한자로 光자를 쓸 때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 즉 물갑리, 사교리, 침교리가 光자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연결되는 지점에 영광정이 있었다. 사교리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을 침교리에 가서 해결한다는 우스개 말도 떠돌았다. 그렇게 여러 마을이 가깝게 붙어 있었다. 또 술을 먹어도 영광정에 가 먹어야 안전하다는 말도 있었다. 자기 동네에서 먹으면 노소간 눈치가 보이지만, 영광정에 가면 다른 마을 관할 주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 곳은 본래 사람들이 넘나들던 교통의 요지였다. 상평리에서 화일리로 해서 석교리, 어기정고개, 중-하북리 앞의 관독정, 소금재 고개, 중도문 웅구점마을, 싸릿재로 넘어가는 길이 과거의 교통로였는데, ‘시투루길’이라 불렀다. 그렇다 보니 교통의 요지인 영광정에는 주막들이 몇 집 있어 길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당연히 아가씨들이 있

는 주막도 여럿 있어 8선녀니 7선녀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다. 이때의 선녀는 술집 아가씨를 의미한다. 이들 선녀 때문에 망한 부자도 꽤 여럿 된다고 한다. 주막 중 가장 큰 주막의 이름이 또한 영광정이었다.

인공 때는 술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고 수복이 된 다음 다시금 주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안가로 큰 도로가 활성화되면서 차츰 그 성세는 미약해져갔다.

* 1949 수리 동사 습격사건

수리는 다른 마을보다도 월남한 청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주문진 서북청년이나 강릉서북청년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림부대에도 들어가 활동하였다. 계림부대는 서북청년단 소속 중에서 특별히 무장훈련을 받은 이들을 지칭한다. 호림부대처럼 일종의 유격대 조직이었다.

1949년 가을 수리의 동사무소에 노동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주문진의 계림부대에서는 이들을 습격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K를 습격대 대장으로 하고 수리 출신 청년들 위주로 구성된 특공대가 조직되었다.

수리 동사무소에 가깝게 접근을 한 다음 안을 엿들으니 누군가 와 있는 소리가 났다. 특공대는 위원장을 생포할 요량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손들어”라고 했다. 그런데 누가 곧바로 권총을 빼들더니 총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습격대 대장 K가 흉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대원들 중 힘이 장사인 사람 K2가 있었다. K2는 급히 K를 등에 업고 마을을 빠져 나왔다. 습격대 대장 K를 살리는 게 급선무였다. K는 이후 후방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수리

동사 습격사건은 이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 영덕리 벼 베어간 사건

영덕리는 38선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조금 더 나가면 38이남의 서림리와 만난다. 38이북의 마을로는 영덕리가 최일선 마을이다.

1949년 7월 4일, 흔히 74사건이라 부르는데, 이 날 남한에서 군대¹⁰²⁾가 마을을 습격해왔다가 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서림리 주민들 말로는 더 이상 들어간다면 정말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이때 마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동반하여 월남하였다.

가을이 되었다. 영덕리에서 월남했던 K는 여름 내내 지어놓은 농사가 걱정이었다.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가지 못하니 억울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서 서림리의 장정들과 의논한 결과 그러면 밤에 건너 가 벼를 베어 오자고 하였다.

가을의 어느 날 드디어 K는 서림리의 장정들과 같이 38선을 넘어와 자기 논에 벼를 모두 베어 갔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인공 내무서는 비상이 걸렸다. 그리하여 급기야 38선 접경지에 경계가 한층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 신서면 김남원 면장 선정비

면장으로선 선정비가 서기는 정말로 드문 일이다. 서림리에 가면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는 곳에 김남원 면장 선정비가 있다.

102) 유격대인지 국군인지는 불분명하다.



김남원 면장 선정비

김남원은 1950년 이전에 강릉군 신서면 면장을 했다. 당시 면사무소는 서림리에 있었다. 서림리는 38이남으로 바로 38선 접경마을이었다. 6.25 새벽 처음 포탄이 서림지서 앞에 한 발이 떨어졌다. 이후 무차별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 와중에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피난민들은 남으로 내려가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당시 김남원 면장은 자기를 따라오는 주민들을 인솔하여 강릉으로, 경상도로, 거제도도로 이끌고 다니

면서 자신은 배를 굶아도 자기를 따라온 마을주민들에게는 힘을 다하여 식량을 공급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을주민들은 김남원 면장의 그 공을 잊지 못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보다도 남의 끼니를 걱정하여 이리뛰고 저리 뛰면서 식량을 구해오던 김남원 면장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조금씩 성의를 모아 단기4285년(서기 1952년)에 비를 해세웠다. 그것이 사진 속의 김남원 면장 선정비다. 오늘날 김남원은 역대 최장수 서면 면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면 면사무소의 역대 면장 사진 옆에는 그의 재임기간을 1945년 10월 2일에서부터 1961년 1월 17일까지 15년3개월을 재임한 것으로 기록하여 놓았다.

* 징(徵)자 달은 군속

국군은 군인 외에 보급품 등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군속이 있었는데, 이들 중 ‘징(徵)’자를 달은 군속도 있었다. 이들은 군인들을 따라다니며 온갖 심부름을 다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노임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에 숙식을 해결할 수는 있었다. 전쟁의 와중이라 숙식을 해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이들은 군속이라기보다는 노무자에 가까웠다. 다만 일반 노무자는 군부대 내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했다면, ‘징’자를 달은 노무자는 부대 내외로 다니면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징’자를 붙인 노무자가 붙이지 않은 노무자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징’자를 붙이던 붙이지 않던 간에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였다.

동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징’자를 한자로 써서 군복에 붙였다. ‘징’자가 붙은 사람들의 복장은 군복에 군대 모자를 썼는데, 계급장은 붙이지 않았다. 군인이 아니므로 계급장을 붙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징자를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모자는 그냥 아무 것도 붙이지 않았다.

P는 2년간이나 군속 아닌 군속 노릇을 했다. P가 처음 양양 땅을 밟은 것은 50년 말이었다. 그때 군대에 있던 조카의 도움으로 ‘징’자를 붙인 군속이 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P는 양양 땅을 밟자마자 후퇴를 해야 했다. 이른바 14후퇴였던 것이다. 평창 진부, 호산, 양양 월리, 강릉 연곡 등지로 다니며 생사의 고비도 많이 넘겼다. 양양은 군단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었다. 결국 P는 양양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하였다.

* 말라리아 때문에

아군이 양양군을 수복하면서 인공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기리의 간부(인민위원장, 세포위원장, 농민위원장, 여맹위원장 등)를 색출하였는데, 당시 마을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이복으로 피난을 들어가고 난 다음이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마을의 간부들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 외 설령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탈을 쓰고는 손가락질¹⁰³⁾ 할 수는 없었다. 또 손가락질을 할 만큼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1950년의 가을은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공세로 인하여 아군이 후퇴를 하고 다시 아군이 2차 수복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벌어졌다. 당시 마을의 세포위원장이 미처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었다. 가지 못한 이유는 당시 유행했던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병중이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것이었는데, 예외 없이 이 집에도 아군의 수색대가 들이닥쳤다. 아군이 수색을 하는 중에 땅바닥을 두드리니 공명현상이 나타났다. 아군은 수상하다 싶어 땅 밑을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여러 문서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문서들은 노동당과 주고받은 문서들이었다. 그렇게 하여 당시 마을의 세포위원장은 아군에게 붙잡혀 가 총살을 당하였다.

* 북암리 마을이 없어진 사연

북암리는 양양군 서면의 산골마을이다. 북암리를 가려면 송어리를 거쳐 들어가거나 송천리를 거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

103) 같은 마을에 사는 사상이 달랐던 사람들을 직접 호명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저 집 혹은 이 집 등으로 가리켰기에, 이를 ‘손가락질’이라고 했다.

다. 그만큼 외져서 주민들도 그리 많지 않은 산골마을인데, 1945년 해방이 될 무렵만 해도 16호가 살고 있었다.

38선이 그어지자 마을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38선은 겨우 2km 남짓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에 수시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은 1949년 후반부터 더욱 심해졌다. 주민들 중 경제적 형편이 그런 대로 나은 사람들은 논밭을 정리하고 충돌이 없는, 즉 38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고 난 뒤 1950년 전쟁이 벌어질 무렵에는 겨우 8집만 남게 되었다.

전쟁의 와중에 이 곳에 남아 있던 몇 집 안 되는 주민들은 인민군이 들어올 때면 인민군에게, 아군이 들어오면 아군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는 아군이 들어온 다음 백담사 근경으로 경찰을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활용하면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한 것이었지만, 끝내 ○○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외 4명은 인민군에게 짐꾼으로 끌려갔는데 종래 무소식이었다.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라진 주민들도 5명이나 되었다.

전쟁 중 인민군이 내리치고 아군이 올라오고 하는 북새통 속에 외지로 나가 있던 북암리 주민들이 고향 북암리는 산골이니 전쟁에서 비교적 자유롭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 북암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아군이 수복한 다음 다시 찾은 고향 북암리는 인민군 패잔병의 루트였다. 벌꿀 사건¹⁰⁴⁾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고향 북암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 집 안 남아 있던 주민들마저도 아예 몽땅 이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104) 이 책 〈벌꿀이 뛰기에〉 항목 참조.

전쟁의 와중에 西面 북암리는 주민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¹⁰⁵⁾

* 기리는 피난골

기리는 6.25 전쟁의 와중에서도 집 하나 불탄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곳이 유엔군의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양양읍이 공습을 받아 불탄 다음, 양양군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기관들이 기리로 이동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하나 불탄 곳이 없었던 것은 마을의 지형 때문이었다. 바다 저 멀리서 함포를 쏘아도 포탄은 산 너머로 떨어지거나 마을 중앙의 논밭에 떨어질 뿐이었다. 산을 등지고 지어놓은 집들 중 함포 사격에 불탄 집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특성은 비행기 공습에서도 여전했다. 비행기가 아무리 포탄을 퍼부어도 신기하게도 비껴나갔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조상이 돌보아 준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을 주민들도 폭격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옥의 타랄까 다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폭격으로 인하여 다친 것은 아니었다. 포탄 하나가 어느 집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그 집이 포탄에 불탈 유일한 집으로 기록이 될 찰나였는데, 하필이면 그 폭탄이 불발탄이었다. 그래서 어떤 폭격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집들이 불타지 않았다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그 불발탄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그만 그 포탄이 터진 것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치료를 하고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

105) 전쟁이 끝난 후 근래 들어 외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몇 집이 살고 있다.

다. 조상이 돌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주민들은 생각했다.

아군이 수복을 한 다음 아군 역시도 이 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지형학적으로 이 곳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공군의 공세로 말미암아 아군이 급작스럽게 후퇴를 시작할 때도 이 곳 마을들은 불 타지 않았다. 미처 불을 지를 틈이 없었기도 하였지만, 도로에 멀리 떨어져 있기에 불을 지를 까닭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쟁의 와중에서도 기리만은 주택들 하나 파손되지 않은 채 살아남을 수 있었다.

* 벌꿀이 뭐기에

1950년 북암리의 주민들 중 태반은 다른 마을로 이주하였다. 마상철도 일가붙이가 많이 이주해와 있는 기리로 이주하였다. 38선 접경에서 남북한 간에 충돌사건이 발생하였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전황은 처음에 인민군에게 유리한 듯했으나 이내 곧 아군이 양양을 수복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이때 벌어졌다. 아군이 양양을 수복하였으나 인민군 패잔병들이 밀고 올라올 때였다. 마상철은 고향 북암리에 두고 온 꿀벌 통이 생각이 났다. 꿀을 채취할 때가 된 것이었다. 시황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설마 하면서 마상철은 북암리로 아내와 함께 올라갔다. 다행히 올라가 보니 아직 피난을 가지 않고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도 몇 집 있었다. 이웃집들을 위안 삼아 며칠 묵는 중에 하루는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것이었다. 나가 보니 인민군 패잔병이었다.

“아바이 동무, 먹을 것 좀 있소?”

총이 무서워 마상철은 급히 감자 몇 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 밖에 없소?”

“정말로 이거밖에 없습네다.”

사실 정말로 먹을 게 궁하던 시절이었다. 감자라도 있어 연명을 하면 다행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인민군 패잔병들은 사실로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하는 말이

“집 뒤에 벌꿀 통이 있던데 그것 좀 따주오”

하는 것이다. 마상철은

“안 됩네다.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겨울을 납네다. 그거 없으면 우리 가족은 겨울에 굶어 죽습네다.”

그러자 인민군 패잔병은 마상철을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보니 총소리가 났다. 마상철을 끌고 간 인민군 패잔병이 마을 어귀를 돌아나가면서 마상철에게 총질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마상철은 총알을 비껴 맞았다. 마상철은 데굴데굴 구르다시피 하여 현장을 빠져나와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아내가 보니 마상철의 어깨에서 피가 몽클몽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내는 급히 지혈을 하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고는 상평리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의무대를 찾아갔다. 북암리에서 상평리까지는 산협으로 4km나 되었다. 한밤중이었지만, 이것저것 가릴 시간이 없었다. 급히 찾아가 겨우 치료를 마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마상철은 북암리로 다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북암리의 주민들도 더 이상 북암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길로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 토박이는 안 데려가고

마상민은 북암리에 살다가 1950년 6·25가 나던 해에 기리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오고 난 몇 달 후였다. 6·25가 터졌을 무렵인데, 인민위원장이 찾아오더니 큰아이(마주환)가 인민군에 갈 나이가 됐으니 군대를 가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장이 가고 난 뒤 마상민은 사랑채에서 김치 한 조각에 술 한 사발을 받아놓고 한 잔 먹으면서 혼잣말로 욕을 해댔다.

‘본토박이는 안 데려가고 외지에서 왔다고 군대에 끌고 가냐?’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말을 근처에서 엿듣던 세포위원장에게 걸린 것이었다. 세포위원장은 이 말을 그대로 양양내무서에 신고를 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양양내무서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데리고 갔다. 그리고 취조하기를

“아버지 동무, 어제 무슨 말을 하였소?”

“난, 아무 말 한 거 없습네다.”

“무시기, 어제 무슨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잘 생각해보오.”

“난, 정말로 한 말 없습네다.”

내부서원은 장작더미 위에 마상민을 올려놓고 구둣발로 짓밟으면서 고문을 했다.

집에서는 마상민이 끌려가자 가족들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였다. 고심 끝에 인민위원장에게 청탁을 넣어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인민위원장을 찾아갔다.

“위원장 동무.”

“아. 어서 오오. 무슨 일입네까?”

“한 가지 청탁이 있습네다.”

“말해보오.”

“우리 주환이 아빠가 어제 양양 내무서에 끌려갔습니다. 술 한 잔 먹고 핫김에 어떤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듯싶습니다. 풀려 나오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찾아가 보지요.”

며칠 후 마상득은 풀려났다.

* 소를 잡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었다. 그 사이에 기리는 아군이 수복을 일시 하였다가 다시 물러나고 1951년초에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정초에 회식을 하려 소를 잡기로 하였다. 잡을 대상을 물색하던 중 외딴 곳에 사는 정연두 씨 집의 소가 마침 노쇠하여 잡을 때가 되었다. 장소도 외진 곳이어서 안성마춤이었다. 그래서 한 밤에 가서 잡아서 나오다가 그만 정치보위부 산하 정보대의 감찰요원들에게 발각이 되었다. 옷은 하얗고 세상은 어두운 밤중이다 보니 쉽게 눈에 띈 것이었다.

“아버지동무, 그게 뭐요.”

“이건 소고기입니다.”

“뭐에 쓰는 거요?”

“주민들이 먹으려고 잡았습니다.”

“소를 잡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정연두 씨 집 소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잡았습니다.”

“가 보오.”

주민들은 가보라고 하였지만 발걸음이 잘 놓여지지 않았다. 후환이 두려웠던 탓이다. 주민들은 궁리 끝에 정치보위부 사람들을 불러

대접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없는 곡식이지만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곡식을 거두어 급히 발방아를 짚어 떡국을 끓여놓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려 정치보위부 감찰요원들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잘 대접하면서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렇게 대접을 한 이후 다행히 마을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리 주민들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

* 감 때문에 생이별을 하다

상북리에 사는 평양댁은 참으로 알곳은 운명 탓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평양댁은 1936년 생이었다. 양양읍에서 출생한 그녀는 그 해 병자년 물난리를 겪고 곧바로 평양으로 갔다. 아버지가 평양에서 고무공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양양에 온 것은 어머니 고향(용천리)이기도 했지만, 양양에도 고무신 가게를 차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북리에 사는 이종사촌오빠가 양양의 고무신 가게를 맡아 운영을 하였다.

평양댁은 평북 강계 전천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주 우연히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선망고무공장을 설립한 날이었다.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고 대동강에서 뱃놀이도 시켜주던 날이었다. 직원들은 사장님도 술 한 잔 하시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본시 술을 잘 못하는 평양댁의 아버지는 직원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술 몇 잔을 받아먹었는데,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다. 못 먹는 술이 원수였다. 그게 평양댁이 2살 되던 해였다.

그 후 회사는 사촌오빠들이 운영을 했다. 고무공장은 계대[나막신] 공

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해방이 되자 팔 수밖에 없었다. 사촌오빠들은 월남을 하였다.

하루는 이종사촌이 평양에 다니러 왔다. 당시 평양에는 감이 귀했는데 평양택은 감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이종사촌에게 말했다.

“오빠, 지금 가면 나 감 먹을 수 있어?”

그때가 1948년 가을 14살이 되던 해였다. 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였다. 이제 어머니도 평양의 살림을 정리하고 고향 용천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 있으라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양양 상북리에 와 회룡인민학교를 다녔다.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평양택은 사촌오빠에게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촌오빠로서도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중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촌오빠는 말했다.

“그러면 일단 시험이나 쳐보렴.”

평양택은 강현중 시험에 합격했고, 그리하여 사촌오빠는 자기 자식과 함께 학교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강현중은 남녀공학이었다. 평양택은 4살이나 위인 사촌오빠의 아들과 같이 학교에 즐겁게 다녔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시골 살림살이라는 게 빠듯하여 둘을 중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평양택에게는 배다른 언니가 한 분 있었다. 평양택과는 나이 차이가 한참 났었는데 당시 형부가 척산에서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양택은 척산으로 옮겨가 중학교 2학기 과정(1950년대초)은 속초여중에서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우 1학년뿐이었다. 왜냐하면 6.25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와중에 언니와 형부는 이북의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이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평양택은 다시금 사촌오빠가 있는 상북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와도

연락이 끊겨버렸다.

평양택이 감만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감을 먹으러 상복리로 먼저 오지 않았더라면 평양택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동무 반갑소

중복리에 7남매를 낳아놓고 살던 남자가 있었다. 국군이 들어오고 난 뒤 물치에 나가 국군 장교를 보고 “동무 반갑소.”라고 했다. 그러나 듣는 국군장교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복리 사람은 물치에서 일을 보고 마을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치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 거기에서 다시 그 국군 장교를 보았다. 국군 장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중복리 사람이 못내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동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국군 장교는 생각했다. ‘저 놈 필히 인민군 간첩이다.’ 그리고는 그 중복리 남자를 잡아다가 장산리에서 총살을 하였다.

양양지역은 인공치하에서 5년여를 있었기 때문에 동무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었다. 중복리 사람은 정말로 국군이 반가웠던 것이다.

* 당목과 불 멀미

사천리는 지금은 마을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인공 때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내무서 모르게 마을제사를 지내곤 하였다.

어느 해¹⁰⁶⁾ 겨울에 눈이 많이 와 서낭나무가 쓰러져 버렸다. 미신

타파에 앞장섰던 좌익사상에 투철한 마을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이 톱으로 이 나무를 잘라 불쏘시개로 사용하였다. 그 해 눈이 워낙 많이 와 집 처마에 눈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였다. 그러니 산으로 나무하러 가기도 어려웠던 참이라 동네 어귀에 나무가 쓰러지자 참 잘 되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 나무로 불을 떼어 밥을 해먹고 여물도 쭈어놓고 집에 들어앉았는데,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이른바 동투가 난 것인데, 그렇게 그 집 안 사람들 모두 불 멀미를 시작한 것이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불 멀미를 하던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끝내 이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사천리는 인공 치하에서도 가만히 마을 제사를 올렸었건만, 그 해 겨울 폭설에 서낭나무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마을제사가 사라져 버렸다.

* 손자를 살린 할아버지의 강단

사천리 사람 중에 인민군에 갔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후퇴할 적에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온 이가 있다. 그러나 주위에 대놓고 우리 아이가 돌아왔다고 말을 할 때가 아니었다. 집 다락에 숨겨놓고 몰래 조석으로 공양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국군이 찾아와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국군이 머무를 때가 없으니 이 집을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 집에서는 하늘이 노래졌다. 그렇게 되면 다락에 숨겨놓은 아들은 끝장이 날 판이었다. 이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나섰다.

“안 되요. 절대 집을 내어줄 수 없소. 우리도 살아야 하오.”

군인들은 협박을 했다.

106) 1950년 겨울-1951년초로 추정한다.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막무가내였다.

“우리를 모두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집을 내어줄 수 없소.”

군인들은 끝내 그 집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위낙에 할아버지의 강단이 세었기 때문이다. 손자는 그 후 남한의 군대에 입대하였다.

* 말뚱을 걸러서 먹다

소련군은 주식은 계란을 풀은 밥을 해먹기도 하지만 편하게 식사대용으로 먹는 것은 헐레발이란 빵이다. 평상시엔 이것을 베개처럼 베고 자다가 일어나면 이것을 툭툭 털고는 뜯어먹는다. 이것을 본 양양 사람들은 참으로 미개하다 욕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음식이 귀하니 소련군이 던져주는 헐레발이라도 먹어야 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더럽고 깨끗하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소련군이 특히 좋아하는 곡식으로 팥이 있었다. 팥을 주면 헐레발을 주곤 하였다. 일종의 물물교환이었다. 헐레발도 주는 사람의 심성이 고약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헐레발의 품질이 달라졌다. 어떤 이는 속이 짝 찬 헐레발을 던져준다. 그러나 어떤 이는 속은 저희가 파먹고 겉껍질만 던져주는 것이었다.

청곡리에 소련군 주둔지가 있었다. 이들이 주둔하는 곳에는 양이 몇 마리 매어져 있었고 근처 초원에 방목을 하곤 했다. 또 말도 많았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말 발자국이 솔뚜껑만 하였다. 그만큼 큰 말이었다. 양은 고기대용이었지만 말은 기마용이었다.

청곡리 주변의 연창리, 송암리 등의 마을 할머니들은 말이 뚱을 눈 곳을 찾아다녔다. 말의 주식이 보리였는데, 소화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말뚝을 뒤지면 보리낱알이 나오곤 했다. 그러면 이 보리낱알을 가지고 물에 걸러서 깨끗한 보리를 추출하여 갖고 가는 것이었다. 그만큼 배고팠던 시절이었다. 쭉뿌리도 캐어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 국군이 남자들은 다 썩 죽인대

1950년 10월 처음 국군이 들어올 적에, 지금 생각해보면 낭설이지만, 국군이 들어오면 남자들을 모두 썩 죽인다고 하였다. 사천리에 사는 K의 아버지는 그 말이 무서워 이북으로 피난을 들어가면서 K에게 하는 말이

“며칠 있으면 나올 테니 너는 어머니, 동생들 데리고 잘 있거라.”

그러나 K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K는 어머니와 동생들 넷과 같이 집에 있었다. 당시 집집마다 방공굴을 몇 개씩 파놓고 있었다. 그리고 방공굴도 일자형으로 파 들어가는 게 아니라 T자형으로 또 중간에 혹을 하나 달은 것처럼 파놓았다.

K의 어머니는 K 보고 너는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고 하였다. K의 집에도 드디어 군인이 들이닥쳤다.

“남자들이 있느냐?”

“없다.”

”방공굴에 정말로 사람이 없느냐?”

어머니는 굴에서 동생들을 나오라고 하였다.

“정말로 이 아이들뿐이다.”

그러자 군인은 그러면 굴에 총을 쏘아도 되겠느냐고 하였다.

어머니는 그러라고 하였다.

군인은 돌아갔지만, K는 그 날의 광경을 마치 눈에 본 듯이 기억하

고 있었다.

* 사천리가 불에 타지 않은 이유

L은 사천리에 살지는 않지만, 사천리가 처가였다. 국군이 양양을 수복한 다음 하루는 L이 처가에 일이 있어 사천리에 왔다. 일을 보고 나가는데 국군이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든 채.

L은 물었다.

“무슨 일어요.”

“국군이 퇴각하는 중입니다. 마을마다 소각하라는 명이 떨어져 사천리도 불태우러 갑니다.”

L은 곰곰이 생각했다. 사천리는 처가도 있고 또 굳이 불을 태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찌를 내었다.

“내가 지금 사천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만, 거기는 이미 인민군 정찰대가 와 있으니 위험합니다.”

당시 K는 남한의 민정경찰이었다. 그러니 국군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군은 사천리를 미처 불태우지 못했다고 한다.

사천리가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마을보다 앞서 갈 수 있었다.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더 빨리 다른 데 돈을 융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천리가 부자동네라는 말이 이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 왜 살려주었을까

사천리의 K는 17살이 되자 인민군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키가 작아 인민군에도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양양군이 국군에 수복이 되었고, 또 인민군 패잔병이 올라온다고 할 어수선했 때였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데 국군이 부르는 것이었다. 바라보니 눈만 제외하고 온 얼굴에 검댕이칠을 하고 있었다. 군인은 말 했다.

“너희 집이 어디냐? 쌀이 있느냐?”

아마도 묻는 품이 보급이 달려 보급을 구하러 나온 모양이었다. 여기저기 수색하더니 쌀 서너 말을 구하더니,

“이 쌀 좀 켜다오.”

“어디로 말입니까?”

“우리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하여 쌀 서너 말을 지고 따라갔더니 기정리였다. 거기에서 군복과 군화를 주더니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K는 짐꾼으로 근무를 했다.

K가 소속된 부대는 7사단(?)¹⁰⁷⁾ 박격포부대였다. 부대가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원산까지 따라갔는데, 박격포 부대가 있는 능선까지 포탄통 2개(포탄통 1개에 포탄2개가 들어있다)를 운반하는 것이 K의 할 일이었다. 포탄통의 무게는 40kg정도는 넘는 것 같았다. 아침에 포탄통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때 점심은 어디에서 먹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점심은 포탄을 가져다주고 거기에서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포탄통을 짊어지고 올라가 보면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거나 설령 식사 시간이라 할지라도 짐꾼에게 줄 밥은 남아 있지 않았다. 점심은 거의

107) 제보자는 7사단이라 하였지만, 당시 7사단은 이 지역에 없었다. 수도사단과 3사단이였다.

꿇다시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군인이 짐꾼들을 모아 놓더니 하는 말이
“우리를 따라 갈 사람은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집 떠난 지 오래된 K는 집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있는 어머니가 걱
정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더니 부대장이 사인한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너희들이 돌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국군들이 짐을 지고 가자고 할
지 모른다. 그러면 이 증명서를 내보여라. 이만큼 봉사하고 돌아가는
것이니 더는 붙잡지 않을 것이다.”

K는 그 서류를 꼬깃꼬깃해서 허리춤에 감추고 목호 사람 두 명과
같이 남쪽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패잔병들이 올라올 때였다. 건봉산을
막 지날 때였다. 거기서 인민군 패잔병들을 만났다. 인민군 패잔병들
은 주머니 조사를 했다. 주머니에서는 그 서류가 나왔다. 인민군 패잔
병들은 이게 뭐냐고 물었다. K와 동료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
인민군 패잔병들은 K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마도 다
른 두 사람과 말씨가 달랐던 모양이었다. K는 양양이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인민군 패잔병들이 갑자기 목호 사람 두 명을 죽이더니 K는 가
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을 보니 K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발
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어
떻게 내려온 지도 모르지만, K는 한걸음에 줄달음쳤고, 고향으로 무
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K는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지만, 가슴
한 칸에 자리잡은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왜 나만 살려주었을까?’

* 고급중 스트라이크 사건

인공 때 양양지역의 중학교 과정은 초급중과 고급중이 있었다. 각기 3년 과정이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인공의 학제가 9월 1일 개학과 7월 15일 졸업이었다는 것이다. 고급중은 남한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고급중의 자리는 1학년 때는 서문리 중고등학교자리에 있다가, 2학년 때는 도서관 뒤 자리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옮겨왔다. 이 건물의 교실은 위에 4개, 아래에 4개 등 총 8개 교실이 있었다. 이 건물로 학생들이 옮겨올 때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1948년 초가을로 접어들 때였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돌을 나르고 흙을 퍼 나르는 일에 고급중 학생들이 노력동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남학생(남자고급중)이 아니라 여학생(여자고급중)부터 집어넣어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남학생들이 자신들의 책걸상을 짊어지고 들어가 교실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남학생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건물은 반으로 나누어 서쪽은 남자가 사용했고, 동쪽은 여자가 사용했다. 당시만 해도 남자는 2학년이 1학급, 2학년이 2학급이므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1949년 가을 1학년 신입생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1학년이 4학급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 건물은 남자만 사용하게 되었다.

* 졸업생 없는 고급중학교

1946년 9월에 양양중학교¹⁰⁸⁾가 개교되었다. 당시 1학년과 2학년을

108) 인공 때의 양양중학교로서 오늘날의 양양중학교와는 다른 학교이다. 남한에서는

동시에 모집하였다. 왜냐하면 학제 개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인민학교(국민학교에 해당)를 6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졸업반이 5학년과 6학년 등 2개 학년이 생겼다. 그리하여 5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1학년으로, 6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2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47년 9월 1일자로 다시 학제가 변경되었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분리된 것이다. 고급중학교는 오늘날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1946년에 초급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던 이들이 1947년 9월에 고급중학교1회가 되었다.

1950년 당시 3학년은 37명이었다. 정상적이라면 이들 37명은 졸업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1명도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제1회 졸업생은 1950년 7월 15일에 배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7월 7일경에 대부분 인민군에 가야만 했다. 6·25에 터진 한국전쟁의 전황이 인공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6·25가 터지기 전 6월 13일부터 졸업시험이 시작되었다. 졸업시험은 구답시험과 필기시험이 있고 이 둘을 병행했다. 정상적이라면 7월 6일에 화학구답시험을 보고, 7월 9일 로어(러시아어)시험을 마지막으로 졸업시험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로어시험을 6일에 앞당겨 보고 연무장에서 신검을 받고는 이튿날 오전10시에 곧바로 인민군으로 입대했다.

당시 고급중3학년 37명 중 전쟁에서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¹⁰⁹⁾

인공시절에 다녔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09) 현재 필자가 확인한 당시의 생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동형, 이상우, 이은기, 이인형, 이주해, 전광식, 최두한(가나다 순).

* 강현중 스트라이크 사건

인공 때 강현인민학교와 강현중학교가 건물을 반씩 나누어 사용했다. 건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강현중이 처음 생길 때였다. 1946년 학제 개편 때 1학년과 2학년을 동시에 모집을 했다. 당시 2학년은 40여 명이었고 1학년은 그보다는 상당히 많았다. 처음에 모집은 그렇게 하였지만, 1학년이 상당히 많다 보니 학교로서는 학년 배치를 다시 하려고 했다. 그래서 1학년 중에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2학년으로 올려보냈다. 그러면서 원래 2학년 학생들과 혼합하여 다시 2개 반으로 나누어 편성을 하였다.

원래 2학년인 학생들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설령 같이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한 반을 만들어 달라.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 것이 이듬해 봄 풀이 올라올 때였다.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고 지금 강선리 비행장이 들어선 곳에 있었던 마을회관에 모이기로 약속을 하였다. 일종의 스트라이크였다. 약속한 날이 되자 학생들은 마을회관에 하나둘 모이는데, 학교에는 학생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큰일이 난 것이었다. 이 일을 정치보위부에서 알게 되면 큰일이었다. 학교장은 부랴부랴 선생들을 재촉하여 상황과약에 들어갔다. 알아보니 학생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수업에 불참을 하는 것이었다.

강현중의 역사 선생은 이북의 체제에 환멸을 느껴 월남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선생이 찾아오더니 학생들을 하나둘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스트라이크를 확대할 수는 없었다.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당시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 중

의 하나였다.

* 양양의 학도호국단

국군이 양양을 수복하고 난 다음 1951년 양양의 학생들 중에서 뜻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도호국단을 창설했다. 당시 단장은 단국대의대를 다녔던 이창우(당시 20대 후반)였다. 감찰부장 이상훈(강선리 출신), 총무부장 조상학(이북 출신), 선전부장 김태병(통천 출신) 등이 보직을 맡았고, 그리고 양양군 관내 남녀 초급중 학생들이 주요 회원이었다.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지만, 처음엔 허울뿐이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어느 날 민정관이 부르더니 하는 일 없이 놀지 말고 일선위문공연이나 하라고 하였다. 당시 중동부전선에 3사단, 동부전선에 5사단이 있었을 적이었다.

양양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던 이가 예전 청진에 있을 적에 심청전 연극에 사공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문공연을 하기 위해 양양극장에서 간판그림을 그리던 이를 초빙하여 와 연극 연습을 하였다. 여학생들은 L5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대공방송도 하였다. 이렇게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였다.

백담사에 공비가 출몰하였다. 백골부대가 이들을 토벌하러 갔다가 되려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였다. 국군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강현면 학도호국단 단원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군사훈련도 하였는데, 막상 양양읍에 모인 다음에는 모두 해산시켜 주었다.

* 양양보통학교 데모 사건

1940년대 초 아직 해방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였다. 양양보통학교 건물을 짓느라 학생들도 근로동원을 시켰다. 학생들 중에 한두 번 아닌 학생이 없었는데, 2층 건물을 완공하고 난 다음 문제가 벌어졌다. 교실을 배당하는데 아래층을 남자에게 주고 위층을 여자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남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찌 머리 위에 여자가 있을 수 있는가? 남학생들은 데모를 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2층을 남학생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

* 삼촌과 조카

간곡리는 최씨 집성촌이다. 그렇다 보니 인공 때 인민위원장 등 마을의 여러 자리를 최씨들이 많이 차지하였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최 인민위원장의 큰집 조카가 월남하고자 하였다. 조카는 자기가 키우던 소를 삼촌에게 팔았다. 조카가 월남하려는 것을 눈치챈 삼촌은 내무서에 신고를 하였다. 조카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내 월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카의 토지는 삼촌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조카는 고향으로 찾아와 보니 자기의 토지가 삼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삼촌은 이복으로 들어간 상태였지만 명의변경은 쉽지 않았다. 그래하여 여러 분쟁을 겪은 끝에 다시 토지를 찾을 수가 있었다.

* 쿠폰 뺏기

일제강점기 때 보통학교에서는 ‘쿠폰 뺏기’라는 것이 있었다. 반마

다 일정수량(보통 10개)의 쿠폰을 나누어준다. 그리고는 같이 다니다가 무심코 한국말을 하면 옆에 있던 친구가 이를 지적한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쿠폰을 지적한 친구에게 하나를 주어야했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산하여 빼앗긴 쿠폰만큼 일정 벌을 받던 것이 바로 쿠폰 뺏기였다.

이 쿠폰 뺏기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성행하였다. 다만 그 대상이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이었다. 일본어를 배워야 했던 세대에게 다시 한국말을 사용하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 이미 생활 속에 일본어가 파고 들어가 있었던 터였다. 국가 차원에서도 일본 색채를 하루바빠 지워야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이를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인공 시대에 통학반이라는 게 있었다. 학생들은 아침을 먹으면 모두 모여 같이 학교로 향해 가고 같이 마을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때 조잘조잘 재잘재잘 하면서 무심코 일본어를 섞어 쓰면 먼저 지적한 사람에게 쿠폰 하나를 주어야 했다.

* 원수가 된 사돈

복골에 살던 K는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땅은 많이 있었다. 해방이 되고 돌아가는 눈치가 영 마땅하지 않아 K는 월남을 결심했다. 당시 K의 사돈이 물치에서 사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K는 사돈에게 월남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사돈은 알았다고 한 다음 내무서에 신고를 했다. K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팔에 총상을 입어 팔병신이 되었다.

어찌하였던 K는 월남에 성공할 수 있었다. K는 서북청년에 가입을

했다. 그 후 양양을 수복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K는 자기를 신고했던 사돈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쏘아 죽이고 말았다. 그 후 K는 고향을 떠났다. 38선이 한 사람은 죽게 했고 한 사람은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다.

* 배로 월남을 하는 방법

전진2리와 용호리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다. 인공 때 전진2리에는 몇 집 살고 있지도 않았다. 전진2리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살기는 용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C의 아버지 역시 용호리에 살면서 전진2리에 배를 한 척 갖고 있었다.

전진2리 지역은 이북에서 월남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배를 이용하여 기사문리 남쪽으로 넘겨주곤 하였다. 배로 월남을 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작은 배일 경우 직접 남쪽 항구나 바닷가까지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명태바리를 하는 큰배인 경우 바다에서 직접 남쪽 배를 만나 바다 한 가운데에서 사람을 넘겨주는 방식이 있다. C의 집 배는 작은 배였다. 그래서 직접 기사문리 남쪽으로 넘겨주곤 하였다.

월남을 하러 오는 이들이 당일 출항하기는 어려웠다. 여러 여건을 살펴보고 적합한 날이어야 출항을 하였다. 그동안 월남할 사람들은 이숙한 곳에 숨어 있어야 했다. C는 그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해다 주곤 하였다. 그런데 그 날 따라 비가 오는 것이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이 소 꼴을 먹이려 풀밭으로 나왔다가 비가 오니 급히 인근 몸을 숨길 만한 곳으로 찾아갔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곳에 월남할 사람이 있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내무서에 신고를 하였고 월남할

사람 역시 종적이 발견되자 급히 서둘러 사라졌다.

내무서원이 찾아와 조사해보니 C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다. 그 길로 C의 아버지는 속초내무서로 불러갔다. 당시 C의 나이 11살이었다.

* 소련군과 명태

막 해방이 되었을 때였다. 당시 청곡리에는 소련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차나 말을 타고 순찰을 돌았다.

진진리는 포구마을이었다. 마을마다 겨울이면 명태잡이를 하여 집집마다 덕을 만들어 명태를 말리곤 하였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말[馬] 소리가 났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보면 덕에 걸어놓은 명태가 없어지곤 하였다. 소련군은 생선을 날로 먹기를 즐겨 했다.

소련군이 즐겨 훔쳐먹는 것으로는 닭이 있었고, 또 왜무도 즐겨 뽑아갔었다. 왜무는 달다 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소련군들이 왜무밭에 침범하여 뽑아가곤 했다.

* 소련군과 여학생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양양에 소련군이 진주해 왔다. 이들은 민가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 여자들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곧잘 있었다.

양양의 초급여중, 고급여중 학생들이 등교를 할 적이었다. 길가 양쪽으로 도랑이 있는데 소련군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공연히 휘청하면서 말이 쓰러질 듯 하면, 여학생들은 말에 밟히지 않으려고 옆으로



당시의 교복

피한다는 것이 그만 도랑에 빠지곤 하였다.

소련군 장교 중에 머리를 바짝 깎은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제정러시아에서 난리가 나 감옥에 갔다가 이 곳으로 파견나온 사람이라고 속떡거렸

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여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다. 상의는 여름에는 소매 짧은 흰색 옷, 겨울에는 소매 긴 검은 옷을 입었고, 하의는 주름진 검은 색 치마였다. (사진제공 : 강현면 주청리 박학렬)

* 밥에 취하다니

1950년 8-9월 용호리의 K는 17살에 인민군을 갔다. 처음에 평안도 양덕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안변을 지나갔다. 그때 비행기 폭격이 심하여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마다 인근 과수원으로 숨어들었다. 숨어든 와중에 사과를 못 본 채 할 수 없어 한두 개 맛보았는데, ‘안변 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안변 사과는 크고 맛이 있었다.

양덕에서 훈련을 받던 중 국군이 진격해오자 평안도 어느 이름 모를 산협으로 도망을 갔다. 당시 양양사람 7인이 같이 행동을 하였는데, 어느 산비탈을 지나고 있는데 산비탈 가득히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일행은 옥수수로 요기를 하고, 또 잠자리도 옥수수단으

로 움막을 지어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일행이 워낙 많아 자는 중에 누군가 밭이라도 뒤척이면 겨우 세워놓았던 옥수수단움막집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던 중에 다시 일어나 움막을 세워 놓고 다시 잠들곤 하였다. 사실 잠이라고 하여도 선잠이지 단잠은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석이 지난 터라 날씨가 또한 차츰 추워져 오고 있었기에 대강 세워놓은 움막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움막이라도 없으면 더욱 곤란하니 그거라도 세워놓았던 것이다.

날이 새면 산비탈을 타고 산협을 돌아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한참을 가다가 보면 처음의 그 자리였다. 이렇게 3일을 허비했다. 일행은 상의했다. 이렇게 산협을 타고 돌아가다가는 사람 구경도 못하고 생을 하직하겠다. 그럴 바엔 차라리 산을 내려가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 큰길이 보이고 군용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인민군복을 입은 상태라 그들에게 달려갈 수는 없었다. 일행은 민가를 찾기 시작했다. 겨우 민가를 찾아 사정을 얘기하니 주인은 어디론가 나가더니 어른옷, 학생옷 할 것 없이 한 보따리를 갖고 오는 것이었다.

일행은 그 집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북한식M1, M2), 실탄 160발, 군복, 인민군외투 등을 모두 주었다. 주인도 많은 선물을 받아 밥을 해주었다. 일행은 한동안 밥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본 사람들이었다. 주인이 해주는 밥을 먹자 일행은 그만 식곤증이 밀려왔다. 그 길로 그들은 달콤한 잠에 빠져버렸다. 일행은 익일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추스릴 수 있었다. 어제 먹은 밥은 술보다도 더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함포 사격을 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정암1리의 K는 정말로 개죽음을 당하였다. 정암1리는 낙산역이 있

있던 교통의 요지였다. 따라서 전쟁하기 전부터 이북의 군수물자가 수북히 쌓여 있던 곳이어서 국군이 진격을 할 적에도 정암1리의 낙산역 근처는 폭격의 주요 대상이었던 마을이었다.

하루는 비행기가 아니라 군함이 와서 함포 사격을 하였다. 정암1리 낙산역 근처는 불바다가 되었다. 이를 구경하던 K는 혼잣말로 ‘함포 사격을 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무심코 말을 내뱉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근처에 있던 빨갱이가 엿들은 것이었다. 빨갱이는 내무서에 곧장 신고를 하였고, 즉시 K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 금풍리·적은리의 인민재판



인공 때의 적은초교

금풍리는 유엔군의 비행기 폭격에도 한 집밖에 불타지 않을 정도로 피난처로 유명했는데, 그런데 14 후퇴 당시에는 피해갈 수 없어서 거의 모든 집들이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이북으로 들어갔던 인민군이 마을로 들어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에는 국군이 진격하였을 때 잠시 마을의 이장을 맡아보고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였던 한청단원들이 몇몇 남아 있었다. 이들은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무서원들은 이들을 불러내 마을의 인민재판에 회부하였다. 인민



금풍리의 방공굴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당시 마을의 이장을 잠시 했던 김○렬(당시 55세), 한청단장을 맡아보았던 김○옥(당시 60여 세), 자식들이 전부 월남했던 이의○(당시 60여 세), 그리고 피난 갔다가 돌아온 김□렬(당시 55세) 등이었다. 이들은 물푸레나무로 만든 몽둥이썰질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1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인민재판은 인민군이 1951년 1월 양양지역을 다시 차지한 다음 양양군 곳곳에서 벌어졌다. 강릉 김씨 집성촌인 적은리에서는 그 도가 지나쳐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씨 부자가 잠시동안이었지만 모두 리장을 했다. 또 반장을 한 또 다른 김씨가 있었다. 내무서원들은 이들 3인을 인민재판에 회부했다. 역시 물푸레나무로 만든 몽둥이썰질이 이어졌고 리장을 했던 두 부자는 며칠 내에 사망¹¹⁰⁾하였고, 반장을 했던 이는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종무소식이었다.

110) 이 두 사람에 관한 것은 본고 <김남형·김학래의 죽음> 항목 참조.

* 강선리 건국미 사건

인공 때 건국미라 하여 마을마다 창고에 쌓아놓았다. 강선리의 동사 옆 창고에도 건국미가 가득 저장되어 있었다. 건국미라 하여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마을에서 생산된 쌀인 것이다. 국군이 38선을 넘었던 소식에 강선리의 우익청년들은 우리 마을의 쌀은 우리가 지킨다고 하여 창고 앞에 횃불을 밝히고 경계에 들어갔다.

국군이 들어와 보니 횃불을 든 청년들이 동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국군은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사격을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창고를 지키던 청년 1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 낙산사의 종소리

낙산사는 일제강점기 때도 학생들이 즐겨 찾는 소풍 코스였지만, 인공 때는 그 발자취가 뜸하였다. 그러나 낙산사의 범종을 치는 소리는 인공 때도 울려 퍼졌다.

L의 아버지는 낙산사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L은 아버지를 따라 낙산사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공 때는 절에 스님이 살 수 없었다. 스님 없는 낙산사를 인공은 사람을 두어 관리를 하게 하였는데, 관리자는 L의 아버지였다. 인공은 L의 집에 한 달에 쌀과 좁쌀을 합하여 서 말씩을 배급해 주었다.

L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범종도 쳐보았다. 낙산사의 범종은 주로 점심 때 많이 쳤는데, 이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를 듣는 마을주민들은 이제 점심인 줄 알 수 있었다. 또 저녁에도 간혹 가다 종을 치곤 하였다.



낙산사의 동종

이 본 원통보전에는 2위를 봉안하고 있었는데, 산 쪽으로 정취보살을,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관음보살을 봉안하고 있었다. 당시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은 6·25 때 불타버리고 말았다. 지금 원통보전에는 새로 구해온 관음보살 1위만 봉안하고 있다.

석탑의 상층부에는 쇠뿔이 있었다. 오동으로 만든 것이어서 상당히 값이 나갔는데, 어느 날인가 도둑을 맞았다.

전쟁이 끝날 무렵 1군단 민사처에서 낙산사를 재건하는데 사용하려고 목재를 제공하여 주었다.

* 낙산사 군사동원부

1950년 전쟁이 터지고 7월초에 양양지역에 공습이 시작되었다. 인민군 병력을 동원할 군사동원부도 포격에 휩싸이자 급히 군사동원부를 낙산사에 설치하였다. 낙산사는 사찰이었으므로 유엔군의 공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란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양양군의 젊은 장정들을 동원하여 인민군에 집어넣었다. 낙산사에 군사동원부가 설치되었던 기한은 7월-8월, 약 2달 정도였다.

* 위장한 국군

6.25 때는 남북한간 위장전술이 심했다. 서로 상대방의 군복을 입고 민간인의 의중을 떠보는 일이 많았는데, 전진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14후퇴 때였다. 북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인민군들이 있었다. 마을에서 좌익사상을 가진 이들이 몇몇 환영을 하였다. 인민군은 마을에서 인민군을 진실로 환영하는 자가 몇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동사에 좌익사상을 가진 이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다. 마을의 좌익은 인민군이 왔다면서 어서 동사에 모이라고 설쳐대었다. 예전 인공치하를 겪은 이들은 좌익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얼굴을 내밀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한둘 모이기 시작하여 동사가 빼곡이 들어차자, 인민군들은 총을 꺼내더니 갈기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몰살을 당하였다. 사실 이들 인민군은 국군이 위장한 것이었다. 후퇴하는 마당에 전진리에서 좌익들이 환영을 하니 이 참에 좌익 몇 명 더 죽이고 갈 요량으로 일을 꾸뻐던 것이다.

* 강제노동

주청리의 L은 인공 때 집이 낙산사 사천왕문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 마을의 어떤 모임이 있어도 쉽게 합류하지 못했다. 마을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소식을 잘 전달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령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지각하기 일쑤였다. 마을에서는 반동이란 소문이 돌았다. 그리하여 L도 자아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아비판의 결과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태만하니까 양양철광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기한은 5일 동안이었다.

L은 양양철광으로 갔다. 하는 일은 폐석(철 함유량이 낮은 돌)을 치우는 일이었다. 폐석을 그냥 놔두면 일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폐석 더미를 빨리 치워야 하는데, 이 일을 L이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돌이 상상외로 무거웠다. 아무리 함량 미달의 폐석이라 할지라도 철광석인 것이다. 그러니 일반 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경험도 없고 몸도 약한 L은 그만 손에 잡았던 폐석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폐석은 L의 발등을 찍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L은 그 길로 폐석 더미를 치우는 일을 면제받고 마을로 복귀할 수 있었다.

* 낙산은 사단 창설지¹¹¹⁾

양양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국군의 사단이 술하게 창설되었던 곳이다. 국방일보(2007년 5월 9일자)를 보자.

12사단, 15사단이 1952년 11월 8일에 창설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1953

111) 이 항목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에서 정리하여 보내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다.

년 1월 15일에는 21사단이, 1953년 2월 9일에는 20사단이, 1953년 9월 18일에는 27사단이 창설되었다. 이후 제주도에서 창설된 29사단도 양양에서 다시 UTC교육을 받았다. 한국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55년까지 5개 군단, 20개 사단이 창설되었다. 그런데 이중 7개 사단이 양양군 강현면 일대에서 모두 창설되었다.

사단 사령부는 강현면 주청리 99-45번지에 위치해 있었고, 해당 사단 사령부가 1개월 정도 순차적으로 주둔했다가 다음 사단에 인계했다. 예하 연대는 사령부를 중심으로 반경 4-5km주변에서 부대 교육을 했다. 창설을 마친 사단은 대부분 전선이나 후방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강현면 장산리는 1975년 23사단과 1987년 8군단이 창설되었다. 조산리의 7개 부대, 장산리의 2개 부대, 모두 9개의 부대가 강현면에서 창설되었다.¹¹²⁾

그런데 육본에서 제공한 <부대 약력표> 를 보면, 27사단은 전남 광주에서 창설되어 양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양양군에서 창설한 사단의 수는 현재 확인한 것으로는 6개 사단이다. 다음은 각 사단 창설과 이동에 관한 연대기이다.

• 12사단 :

- 1952.11. 8 : 국본 일반명령 제207호에 의거 강원 양양 전진에서 창설하였다. 초대 사단장에 준장 윤춘근이 보직되었다.
- 1952.11.22 : 강원 양양 전진 주둔 신설 보병 제12사단 창설기념식에 대통령 부부, 벤프리트 장군 부부, 신국방장관, 백총장, 최용덕 공군총참모장, 라이언 주한군사고문단장 등 내외 장성 및 귀빈 다수 참석하여 거행하였다.

112) 국방일보 2007년 5월9일자 참조.

- 1952.12.8 : 강원 양양 전진 주둔 보병 제12사단은 미제9군단 수송 지원 하에 경기 포천 이동 미제9군단에 배속하였다.
- 15사단 :
 - 1952.11.8 : 국일명 제206호(52.11.8)에 의거 강원 양양 전진리에서 창설하였다. 초대 사단장으로 이정석 준장이 부임하였다.
 - 1952.11.22 : 대통령 이승만 각하는 국방부 장관 신태영과 참모총장 대장 백선엽, 미8군사령관 대장 벤프리트, 1군단장 중장 이형근을 대동하고 사단장의 안내로 사단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 부대기를 수여하였다.
- 21사단 :
 - 1953.1.15 : 국일명 제17호(53.1.12)에 의거 제2교육여단을 부대훈련소 강원 양양 조산에서 창설하였다.
 - 1953.2.4 : 육일명 제17호(53.2.4)에 의거 민기식 준장이 초대 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 1953.2.9 : 국일명 제39호에 의거 제2교육여단 및 건제부대를 해체함과 동시에 제21사단이 창설되고 건제부대로서 다음과 같이 예속받았다. 63연대(양양 하북), 65연대(양양 석교), 66연대(양양 서면)
 - 1953.5.5 : 사단은 군단 작명 제174호(53.4.15)에 의거 사령부를 군단예비진지지역 강원 고성 간성으로 이동하였다.
- 20사단 :
 - 1953.2.9 : 국일명(육) 제39호에 의거 육본 직할로 강원 양양 강현 전진리에서 창설.

- 1953.5.15 : 미제10군단 작지 제352호에 의거 강원 양구 현리로 이동 제6사단과 진지 교대함.
- 1952.11.8 : 육본 일반명령 제205호에 의거 강원도 양양 회룡에서 보병 제57연대로 창설.
- 1952.11.8 : 국일명(육 제208호에 의거 육본 직할로 제58연대가 양양 강현 석교에서 창설되었다. 1953.11. 제58연대는 제61연대로 개칭되었다.
- 1952.11.8 : 육본 직할로 제59연대가 양양 낙산사 옆 솔밭에서 창설 연대장에 박일선 대령(임시) 취임. 1953년 1월 1일 62연대로 개칭.

● 22사단 :

- 1953.4.21 : 국본 일반명령 제107호(53.4.21)에 의거 보병 제67,68,69 연대로서 강원 양양에서 제22사단 창설 육본에 예속.
- 1953.4.25 : 초대 사단장 준장 박기병이 부임.
- 1953.7.23 : 강원 화천군 사창리로 이동과 동시 미9군단에 배속.

● 25사단 :

- 1953.4.21 : 강원 양양 설악산 기슭 창설.
- 1954.3.25 : 강원 인제 천도리 이동.

* 윌리의 탱크부대

1950년 6월 20일경 양양군 윌리에 남침을 위한 탱크가 20여 대가 들어왔다. 당시 윌리에는 아카시아 숲이 무성하여 탱크를 숨기기에 아주 적합하였으며, 기갑병은 나뭇가지와 풀잎 등으로 위장을 하였다.

탱크는 이후 22일경에도 20여 대가 들어왔다.

해방이 되면서 양양읍에는 소련군이 진주했었다. 그러나 1948년경에는 소련군이 물러가고 인민군 1개 대대가 들어와 주둔하였고, 이어 195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는 인민군도 물러가고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날 무렵에는 인민군이 기차를 타고 속속 남하하고 있었다. 양양군 송암리에 양양역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1일 2회 정도 오고갔었는데, 6월에 접어들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기차가 들락날락 하면서 군수물자와 병력을 실어 날랐다. 그렇게 도착한 병력은 있오되 양양 읍내에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 남으로, 즉 38선 접경지로 이동한 것이었다.

군소[郡牛]라 하여 집집마다 공용의 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 소를 전쟁이 날 무렵 회수하여 함석지붕의 창고에 모아놓았었다. 이 창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건물이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한 인민군에게 이 소를 잡아 먹였다.

당시 우차(牛車)는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양양군 관내 우차조합에서 우차를 동원하였는데, 이를 테면 우차부대가 오늘날의 수송부대였다.

양양교(橋)는 양양 읍내를 통하여 남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였다. 이 다리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흙을 덮어 놓았는데, 트럭도 지나갈 만큼 튼튼했다. 실제로 당시에 디젤트럭도 있었는데, 인민군 1개 대대마다 2대 정도 배치되었던 것으로 이종우(손양면 수여리 거주)는 짐작했다.

양양교를 통하여 남으로 통하는 도로는 2차선이라 하기에는 좁았고 1차선이라 하기에는 넓었다. 625가 터지던 날 인민위원회 소속의 마을 책임자(오늘날의 반장에 해당)가 방송을 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남한군이 쳐들어와 인민군이 대응하면서 쫓고 있으니 마을의 젊

은이(학생 제외)들은 모두 나와 도로를 보수하라고 하였다. 이 일은 그때 당시 하루 정도만 하였다고 수여리의 이종우는 제보하였으나, 인근 밀양리, 상양혈리 등지에 사는 이들은 거의 매일 동원되어 도로 보수를 하였다고 제보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경찰서가 있던 자리에 해방이 되자 내무서가 들어왔다. 전쟁이 날 무렵 이 곳에 직사포 부대가 있었다. 대략 30여 문 정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 직사포를 끄는 것은 포차(砲車)였다고 이종우는 제보했다. 이 직사포 부대가 있던 자리는 오늘날 양양군 의회가 들어와 있다.

[참고문헌]

고경재 편,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상)』, 1995.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중)』, 1996.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하)』, 19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보고서□□, 2001.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
김순기, 『말곡의 땅과 택호 이야기』, 2005.
김태완, 「북과 호림유격대」,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 박창암, 「보병 제8사단 수색대대의 6·25 실전비화」, 『월간 자유』, 성우회 안보연구소, 2002.
- 서용선, 「한국전쟁시 점령정책 연구」, 『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1993.
- 양양문화원, 『향토지』, 1976(증보판).
-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한국학술정보, 2007.
- 양영조, 「한국전쟁시 노무운동 연구」, 『한국전쟁연구 : 점령정책 노무운동 동원』, 국방군사연구소, 1995.
- 양주지 편찬위원회, 『양주지』, 1990.
- 이수일, 「유진오와 최용달」,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 편집위 편, 역사비평사, 2008.
- 인터넷 자료.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co.kr).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천주교 춘천교구 양양교회 편, 『양양본당 80년사』, 2001.
- 최종태 편, 『한국전쟁일지』, 군사문제연구소, 1991.
- 호림유격전우회, 『호림부대전사』, 2000.

후기

양양은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상당히 특이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 때는 동학이 왕성하였고, 그 일파인 보천교가 손양면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설치된 38선은 양양군을 접경지로 만들었다. 인공은 양양군의 향교를 주둔지로 하여 빨치산(유격대)를 남파시키는 기지로 삼았다. 1948년 11월부터 시작된 빨치산의 남파는 1950년 3월까지 10회에 이를 만큼 대규모로 보내졌었다. 이 모두 남한 사회의 혼란을 부추키기 위한 술책이었다. 남한에서도 가만있지 않았다. 호림부대라는 유격대를 양양 쪽으로 파견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양양군은 수시로 38선 근처에서 충돌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 1일 유엔군은 38선 돌파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미 국군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다. 38선 돌파는 사실 상당히 주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었다. 유엔군의 도움은 38선 이남까지의 대한민국 영토의 회복에 1차적으로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진격명령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38선 이북은 원칙적으로 북조선의 땅이었다. 유엔군은 이들 지역을 점령한 다음 이들 지역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수복지였기 때문이었다. 그 수복지의 개념은 다른 38선 이남의 지역, 즉 예를 들어, 강릉이나 삼척과는 다른 의미의 지역이었다. 그래서 10월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수복한 지역에 대



하여 비상계엄령(1950년 10월 16일)이 선포되고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군의 통수권이 유엔군에게 있었으므로 결국은 미군정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양양은 1945년경의 소련군정, 그리고 이번엔 미군정이라는 당시의 이념체제에서는 적대적인 두 국가의 군정을 받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전황은 돌변하고 말았다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원주-삼척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후퇴를 감행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양양은 인공의 나라가 되었다. 그 후 1951년 5~6월의 중공군 공세를 물리친 국군은 다시금 양양을 수복한다.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복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밀고 밀리고 하는 과정에 양양군의 민간인들은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겪었다. 국군이 올라오면 인공에 협조했던 민간인들은 쫓겨가야 했고, 또 인민군이 밀려오면 국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짐을 싸야 했었다. 그 와중에 오해를 받아 죽음을 당한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난 후도 양양은 미군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미군으로부터 양양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 받은 것은 1954년 8월이었다.¹¹³⁾

113) 『한국전쟁(하)』 부록의 연표 참조. 그러나 김귀옥의 글(「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 30쪽)에는 11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지역행정권을 이양받는다고 하였다.

>>> 저자 약력

이한길 李漢吉

강원도 강릉 출생. 서강대 국문과 박사학위과정 수료.
현재 강원도민속학회 편집이사.

저 서 :

강원도 민속에 관한 것. 『양양의 민속예술』(2002, 공편), 『속초의 민요』(2003, 공저), 『강릉의 설화』(2003, 공저), 『평창아라리 가사집』(2005, 공편),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2005, 공저), 『인제 뗏목과 뗏꾼들』(2005, 공저), 『양양군 서낭제 축문 연구』(2007), 『경포대와 경포호의 문화산책』(2009, 공저), 그 외.



논문1[신앙] :

「양양군 서낭제 전승 중단 원인에 관한 고찰」, 「양양군 어촌마을의 서낭제와 성신앙」, 「양양군 강현면 서낭제 연구」, 「양양군 양양읍 서낭제 연구」, 「양양군 현남면 서낭제 연구」, 「양양군 현북면 서낭제 연구」, 「양양군 서면 서낭제 연구」, 「양양군 손양면 서낭제 연구」, 「원주시 매지리 회춘마을 단오제에 있어서 신격의 문제」, 그 외 여러 편.

논문2[설화] :

「양양 불교설화에 나타난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양양군 탁장사 설화의 문헌자료 분석」, 「양양군 탁장사 설화의 변화과정 고찰」, 「강릉 설화의 특징」, 「〈해님달님〉 연구」, 「〈해님달님〉에서 탐색의 문제」, 「도깨비담과 도깨비 연구」, 「〈금강산호랑이〉의 심리학적 연구」, 그 외 여러 편.

논문3[민속일반] :

「양양군 농경세기 고찰」, 「양양군의 〈소모는소리〉고찰」, 「지명유래를 통해 본 양양읍 명당 시론」, 「양양군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양상」, 「강릉관노가면극의 문화적 특성」, 「탄광촌 민속 연구」, 「남·북한강 뗏꾼 비교 연구」, 「〈강릉농악〉 연구사 검토와 진단」, 「민속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강원도 삼베길쌈 과정 연구」, 「축제 이론의 모색 : 삼위일체론」, 「강원도 삼(대마)과 삼베 민속 고찰」, 「삼척 〈살대 세우기〉 일고」, 그 외 여러 편.



양양의 6.25 비화

2009년 12월 20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지은이 이한길

펴낸이 양양문화원 양동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82-1
Tel.033-671-8762_Fax.033-672-7267

펴낸곳 대양프리컴
Tel.033-257-3400_Fax.033-257-773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인 저자 및 양양문화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9

양양의
6·25
비화

양양문화연구원